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한국불교 세계속에
꽃 피우기를 발원합니다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2월 29일) · 주간

제977호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춰라.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근현대 스님 유물은 종단 역사 전승 기반

불교중앙博, 주요 스님 소장품 기증 운동 시작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이 근현대 스님들의 소장품을 기증받는 등 종단 역사 전승 기반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1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신년 사업으로 △근현대 스님 소장 유물 기증 운동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금석문 탁본사업 △'탑의 사리장치와 불상의 복장' 등 특별전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현대 스님 소장 유물 기증 운동은 불교계의 유물기증문화 확산과 박물관 소장 유물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근현대 스님들의 유물 기증 사업은 불교계 안에서도 현저히 인지도가 낮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인식 개선에도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은 1차적으로 현직 종정 스님, 원로 · 중진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스님의 소장품의 기증을 유도하며, 향후 역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 유물은 사용하고 있는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등 생활용품과 법구를 비롯해 종단 역사 정리에 도움이 되는 유물,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근현대 자료까지 포함된다.

원할한 유물 기증을 위해 기증 시 특전과 예우도 마련한다. 각종 전시 출품 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하고 유물의 복원 수리, 훈증 처리와 복제품을 요구했을 경우 복제품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기증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증자 및 기증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서 발급과 총무원장 명의의 감사패도 증정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덕문 스님은 "근현대 스님들의 자료를 문중 별로 소장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오히려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사 한 벌도 종단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다. 종단 역사를 정립하는 차

현 원로 · 중진 스님도 대상
향후 역대 종정으로 확대
기증 시 예우 · 특전도 마련
유물 기증 문화 조성 기대

원에서 도 원로 · 대덕 스님들의 주요 소장품을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우선적으로 현존해 있는 주요 스님들의 소장품 기증을 독려한 뒤 역대 종정 스님 문중에게도 소장품 기증을 부탁하려 한다"면서 "기증의 방법은 연구 기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장 유물 기증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근현대유산 수집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불교사 전문가인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유산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시대의 생활상과 사상 등 변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라며 "이런 작업들이 수반돼야 종단의 교과서적인 '통사(通史)'를 기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물 기증운동은 불교를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불사"라고 평가하며 "불자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소유자들의 자발적 보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찰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023년까지 10년 동안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올해 우선적으로 유물 소장자 및 관리자 교육을 열고 문화재에 대한 기본 소양과 책임의식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덕문 스님은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이 업체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불교계가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자료를 총망라하기 위한 금석문 탁본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목록화 조사가 완료됐으며, 올해에는 경상북도의 금석문들에 대한 탁본, 사진, 영상 촬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전시회도 계획 중에 있다. 오는 6월에는 '탑의 사리장치와 불상의 복장'을 주제로 오는 9월에는 '추사와 봉은사'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1월 23일 내성천을 자비나눔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이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사진 가운데〉에게 내성천 생태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내성천 살리기에 조계종도 적극 동참하겠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1월 23일 지율 스님 격려 방문

경북 영주 내성천은 인근 영주댐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이가 지율 스님이다. 스님은 2012년부터 강둑에 텐트를 설치하고 내성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겨울바람처럼 차갑다.

이런 세간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연과 환경에 대해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해 조계종이 움직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1월 23일 오후 경북 영주 내성천을 방문해 지율 스님에게 격려하고 영주댐 공사로 인해 훼손된 내성천 상류와 중류 지역을 모니터링했다.

자승 스님은 가장 먼저 내성천 지킴이로 활동 중인 지율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텐트를 찾아 손수 차를 내리며 격려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자승 스님은 지율 스님에게 내성천 변화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지율 스님은 "현재 내성천의 변화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내성천 보호를 위해 스님들께서 1000평만이라도 땅 한 평 사기운동을 시작해주신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종단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본사 주지 스님들과 함께 협조해 1000평 정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종단과 교구본사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부장 보화 스님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장 스님들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으로
내성천 시찰하며 상황 파악
"종단도 땅 한평 사기 동참
교구본사 협의 1천평 마련"

이날 자승 스님은 지율 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텐트 주변 내성천 주변과 미림마을, 멱실마을, 우래교 등을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 상황을 살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에는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보화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종교인 과세' 2월 국회서 논의되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월 23일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지난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소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할 것이냐는 두고 종교단체 등과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해 정부가 종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조세소위는 '종교인소득'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해 기재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제 문제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과 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기준에는 우려를 표해 왔던 만큼 이번 국회 논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77호 INDEX

시방세계 5
청마의 해 만나는 한중일 馬판화
설맞이 템플스테이 '다채' 3·6
설 차례상 이렇게 차리세요
출판 23
나의 서원 나의 삶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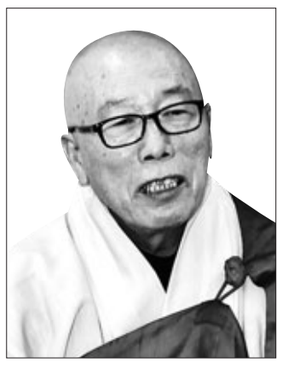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태고종 발전 위한 전문가 기구 만들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8대 운영기조 밝혀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 악성부채 해결 등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고종발전위원회’를 2월 10일경에 발족한다.

도산 스님은 “태고종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종단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사, 정치가, 학자 등 외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통해 태고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1월 22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승관내 2층 총무원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전위원회 구성 등 2014년도 신년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아울러 종단 운영의 8대 핵심기조도 밝혔다. 이는 △투명한 종무행정 운영 △지방교구종무원 역할 증대 △대사회 포교 및 복지활동 강화 △항구적인 교육제도 확립 △승풍진작과 위계 확립 △승려 노후복지문제 해결 △사찰재산권 보장 및 공유사찰 지정 △종단 재정 건전성 확립 등이다.

우선 태고종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 부친 것은 3월말까지로 예정된 승려분한신고다. 이에 대해 도산 스님은 “현재 우리 태고종에는 승려가 8000명, 산하 사찰이 3200곳, 신도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려분한신고를 통해 종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법계별로 나눠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까지 의무금을 부과해 종단 운영비를 마련할 것입니다.”라며 “의무금 제도는 현재 종단에서 여론을 수렴 중이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종도의 60% 이상이 호응을 하고 있어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산스님은 “신고를 마친 숫자가 얼마가 되건간에 3월말까지 정확히 마감하고 신고가 안된 스님들에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종법에 따라 승적을 말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태고종은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명이 동참하는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 수륙대재 봉행도 개최할 뜻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도산 스님은 지방교구에 종무 행정을 이양하는 것과 승려노후복지 대책 마련에

전문가 60명 참여 발전위
2월 10일 발족…현안 논의
3월까지 승려분한신고 실시
승풍진작, 재정 투명 추진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전라도 등 일부 지방 교구를 제외하면 현재 종무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교구별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려노후복지 대책 마련 역시 도산 스님은 “제주도에 태고복지원을 만들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총무원장이 되고 최근에 확인해 보니 제주도 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 법인 설립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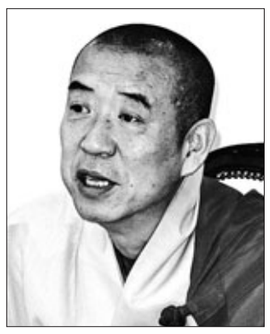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도산 스님은 “지난해 12월 선암사서 발표한 ‘태고청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한 달에 꼭 한 번이라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수행풍토를 쇄신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승가교육개혁 안착에 역량 집중”

조계종 교육원 7개 분야 사업 제시

2급 승가고시에 ‘설법’ 분야 개설
염불교육 강화… 대회 개최 예정



승가교육개혁은 지난 5년 간 조계종의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였다. 이제 5년차를 맞는 승가교육개혁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은 1월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현응 스님은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현응 스님은 “제 임기는 10월 말에 마무리 되지만 교육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올해에도 7가지 분야의 교육 개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교육에서 있어서는 지난해 ‘청소년, 단기출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의제(복식)이 제정된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청년출가학교’는 올해부터 신청 사찰과 단체에 위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30%에 이르는 행자 중도 포기자들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출가상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지난해 320명이 행자로 입문했지만 이 중 30%인 120명이 출가를 포기했다”면서 “출가상담사들이 교구본사별로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행자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을 해소해 중도 탈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모든 승가대학이 표준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본교육 부문은 안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를 정착화 하기 위한 지원들이 이뤄진다. 또한 한글염불교육을 활성화해 한글 의례를 아래에서부터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매년 ‘학인염불시연대회’(가칭)을 열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4급 승가고시에 ‘불교상용의례’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승가고시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한 하다. 당장 올해 3월 치르는 4급 승가고시에서는 일상수행 평가 점수가 반영되며 3급 이상 법계를 위한 승가고시에는 한국 사회에서 전법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2급 승가고시에는 수행의 한 축인 ‘설법’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수좌, 교학자, 전법 전문 스님 등으로 심사 · 면접 위원회를 구성해 수험자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은 논의를 거쳐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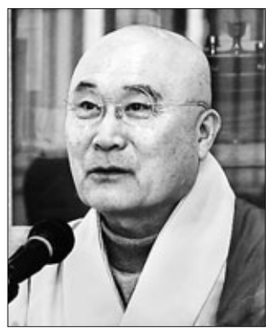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교육원은 △‘청소년 및 단기 출가용’ 교재 △역대 승가고시 기출문제 자료집 △불교영어 중급 1,2 및 임원 제작 △2013년도 교육원 통계자료집 △2014년도 불교 교학자 인물정보 등의 교재와 교육자료집 발간도 추진한다.

신중일 기자

“지역 중심 전법 토대 구축 노력”

조계종 포교원 불교 내실 다지는 포교종책 발표

수요자 중심 포교 정책 개발
지역신도회 활성화 역량 집중



조계종 포교원이 ‘지역전법 중심토대 구축’을 기치로 새해 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별 네트워 구축과 지역 전법자원 발굴 등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는 지역전법이란 포교원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별 간담회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는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임원진도 참석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은 “불교는 사회적으로 갈등해소와 국민화합의 조정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의 전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지역중심 전법토대 구축을 모색하고 함께 6까지 전략과제를 실현해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이 공개한 사업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별 전법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이다. 지역 유명인사와의 토크법회 등 지역활동가를 활용한 포교사업이 진행된다. 다양한 지역 포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구본사와 교구신도회, 지역의 불교계 수탁 · 운영 복지지설, 포교사단 지단, 지역 신행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포교원은 2014년 4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전법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보통 한 권역 당 20~30개 단체가 활동하는데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며 “포교 취약지구에서 지역 단체 역량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지난해 진행한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연구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고령화 시대에 맞춘 실버상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과 농어촌 포교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시대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모바일 및 심성프로그램에 주안을 둔데 이어 올해는 명상과 상담을 통해 사회 각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도 올해부터 주관해 종단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신도품계제도도 사찰신도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 성과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긴 목표를 두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올해 포교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 20여년의 포교 성과를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영역을 점검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정체성 확립… 한국불교 발전 방안 모색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기념관 건립 등 계획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한국불교의 정체성 재확립과 이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재)선학원은 1월 22일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신년 계획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 선학원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선학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불사다. 총64억 원이 투입되는 기념관은 대지 814.10㎡(246.27평)에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은 전통 목조 건축으로 지어지며 지하에는 현대적 구조로 지어진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사진〉은 기념관에 대해 “선학원이 태동한 자리에 세워지는 기념관은 선학원 설립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재단 행정 · 교육 · 복지의 중심이자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이뤄진다. 선학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100주년 기념 〈선학원사(禪學院史)〉이 대표적이다. 조선말기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불교의 역사를 총망라할 통사(通史) 개념의 〈선학원사〉는 근현대 불교사의 객관적 이해와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화 60년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도 눈길을 끈다. 1954년 8월 24일부터 25일, 9월 29일 열린 제1, 2차 전국비구승대회를 기념해 열리는 세미나는 정화 주체로서 정화 이념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정화 60년 학술세미나 등
‘뿌리 찾기’ 사업 잇달아
법인법은 반대 입장 고수

이와 함께 선학원은 지난해부터 조계종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법인법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법인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와 전국 분원장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 대화의 여지는 있지만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별도의 기초선원과 수계도량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독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6월 30일까지 등록을 안하면 조계종의 재제 조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당장 법인 분원들에 있는 후학들의 수계와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

중관유식 승가대학원 신입생

본원(本院)은 승가대학을 졸업한 학인스님들이 중관 · 유식을 바탕으로 보다 깊은 불교학(佛敎學) 연찬(硏鑽)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4년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원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 사 진 상주강사 : 고불총림 율주 혜권스님, 승가대학원장 원철스님, 승가대학원감 정헌스님
외래강사 : 법산스님(전,동국대불교대학원장), 진우스님(고불총림백양사주지),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총장대행) 외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 · 비구니
입학정원 10명(상주, 통학)
모집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승적증명서 ····· 1부
사진(반명함) ····· 2매
승려증 ····· 사본 1부
건강진단서 ····· 1부
문 의 처 전화 061)392-7502(종무소) 팩스 061)392-2081

중관유식 승가대학원장 원 철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古佛叢林 白羊寺
www.baekyangsa.or.kr



백양사 고불율원 신입생

고불총림 고불율원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하여 근대 만암, 서옹스님에 이르는 계율정신으로 율맥이 깃든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율주 동성혜권스님의 古經操心(고경조심), 小慾知足(소욕지족), 持戒淸淨(지계청정)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및 비구스님
모집인원 전문과정 0명, 연구과정 0명
모집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교 과 목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제출서류 입방원서(소정양식) ·····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 1부
사진(반명함) ····· 2매
승려증 ····· 사본 1부
건강진단서 ····· 1부
원서교부 · 접수 백양사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고불율원 율주 혜권 율원장 법장

국가 유물정보 공개 2017년까지 93%로 확대

문체부, '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발표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정보 거의 대부분이 일반에 공개되고 유물정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전국의 국공립 대학 및 사립 대학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물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추진계획을 1월 2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부 3.0' 정보공개 확대 정책에 맞게 국가유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현재 3.5% 수준인 국립박물관의 대국민 유물정보 공개율을 201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92.8% 수준으로 높여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고, 회화, 자기 중심의 유물정보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속사, 자연사 등을 망라하는 표준유물 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모든 국공립 대학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유물표준화위원회'를 상설화해 국가유물정보 관리표준(안)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표준안을 기초로 개별 박물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계 시민단체 '애국가 진본' 찾는다

문화재제자리찾기, 17일 운동 출범식

불교계 문화재 환수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1월17일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대학에서 '애국가 제자리찾기 100인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미국 에모리대에 보관된 윤치호의 자필 애국가 원본 환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치호가 1945년 자필로 애국가 가사를 적고 '1907년 윤치호 작'이라 명기한 이 친필본은 지난 1997년 유족의 기증으로 미국 에모리대에 보관중이다.

단체 대표인 혜문 스님은 "문헌자료를 보면 애국가 작사가가 윤치호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시된다"며 "애국가 원본은 국가 중요 기록물이므로 대한민국 자존심을 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인 위원회는 오는 30일 경 미국 에모리대를 방문, 애국가 원본을 열람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천년고찰서 설 보내며 '나' 돌아본다

문화사업단, 설맞이 템플스테이 일정 발표

합동차례, 전통놀이는 기본
트레킹 등 프로그램 '다채'

2014년 첫 연휴는 주말을 포함한 황금 연휴로 시작한다. 들뜬 마음으로 한해 세운 계획도 '작심삼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해 계획을 다잡을 시기다. 이번 설 연휴는 천년고찰에서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014년 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천년고찰에서 열리는 '설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이번 설 템플스테이는 합동차례와 전통놀이, 명상, 사찰문화체험, 트레킹 일정이 고루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더해준다.

대웅보전의 꽃살문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는 '청마(靑馬)야! 설날에 놀자'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천년고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법고, 운판, 목어, 범종 4개 사물관람은 물론 직접 타종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사찰식 떡국공양, 불화 그리기, 108배, 영화 '오세암' 감상 등 다채로운 산사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해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내소사의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에서 묵은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이번 설 템플스테이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지리산의 보물창고'로 불릴 만큼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구례 화엄사는 자연과 함께 휴식하는 '작심 4일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작심 4일 템플스테이'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3박 4일간 진행되며, 윷놀이와 합동차례, 떡국공양 등 사찰의 명절 풍속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둘레길 탐방과 연기암 등반, 지족 명상 등 지리산의 기운을 한껏 담아 건강한 심신으로 새해맞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기간 내내 함께하는 스님과의 대화와 화엄사 각황전, 석등, 사사자삼층석탑 등 아름다운 국보 문화재들은 산사 여행의 묘미를 더한다.

경주 골굴사의 '2014 설날 템플스테이'는 한국 선무도를 대표하는 사찰답게 다양한 수련체험으로 활기를 전한다.

'2014 설날 템플스테이'는 사찰식 만두빚기를 시작으로 합동차례, 민속놀이, 발우공양 등 산사의 명절 풍습을 만날 예정. 또 선무도 수련과 국궁체험, 선무도 공연관람 등 수행 무술을 통한 새로운 사찰 문화를 만날 수 있다. '2014 설날 템플스테이'는 1월 30일(목)부터 2월 2일(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영어 통역자가 함께 한다.

그 외에도 '효(孝)의 사찰'로 유명한 화성 용주사는 전통적인 산사 명절풍습을 만날 수 있는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불교식 설 문화인 통알 세배와 떡국 공양, 108배, 명상, 큰 스님과 함께 하는 차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화성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창건한 사찰로써, 템플스테이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융, 건릉을 함께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설맞이 템플스테이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근대 한국 불교의 큰 산이었던 경허 · 만공 두 스님의 선맥이 그대로 남아있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도 설 템플스테이를 연다. 전통적인 다례의식과 함께 사찰식 떡국 공양, 소원 풍등 날리기 등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4 설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사찰명	프로그램	기 간	연락처
내소사	사찰안내, 사물관람 및 타종체험 윷놀이, 불화그리기, 오세암 상영	1.30(목)~1.31(금)	063)583- 3035
화엄사	윷놀이, 합동차례, 만다라명상, 둘레길 탐방, 지족명상, 연기암 등반	1.30(목)~2.2(일)	061)782-7600
골굴사	사찰 만두 빚기, 민속놀이, 합동차례 선무도 수련, 국궁 체험, 선무도 공연	1.30(목)~2.2(일)	054)775-1689
용주사	통알세배, 스님과의 차담, 108배 명상	1.30(목)~1.31(금)	031)235-6886
수덕사	설 합동다례, 풍등 날리기, 해넘이	1.30(목)~2.1(토)	041)330-0173

"소통과 화합 수륙재 의미 되살릴 것"

동해 삼화사, 18일 수륙재
문화재 지정 기념법회 봉행
최문순 도지사 등에 감사패

(사)두타산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회장 원명)는 1월 18일 동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 지정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이이재 국회의원,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 등 600여 대중이 모여 지난해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발전을 기원했다.



삼화사는 1월 18일 동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행수륙대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 지정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삼화사 수륙대재의 문화재 지정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무원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보존회장 원명 스님(삼화사 주지)은 "삼화사 수륙재의 문화재 지정은 우리 모두의 염원과 동참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행수륙재 설행의 의미인 소통과 화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불교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조선 건국과정에서 희생당한 고려왕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당시 백성들과 소통, 화합하기 위해 태조 4년에 설행됐다. 삼화사는 의례서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강원도 유형문화재 160호)에 의거해 매년 3일간 전통방식으로 설행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장병 물품지원,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

정우 스님, 1월 22일 육해공군 불자장성들과 신년하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1월 22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비롯해 조남진 예비역불자회 회장, 원태호 前군불총 회장 등 불자장성들과 육해공군 선임군승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우 스님은 "장병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근 22만여 개의 핫팩을 전달했다"며 "원장 스님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위문품보내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군포교에 대한 교구장 스님의 원력이 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셔서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정우 스님은 올해 파송 예정인 비구니 군법사에 대해 7월 임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원래 비구니 스님 2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스님 1명이 그만두며 1명의 스님이 임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조남진 예비역불자회 회장 등 불자장성과 육해공군 선임군승은 1월 22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피해 할머니의 상처 마음에 새겨야"

정홍원 국무총리, 18일 나눔의 집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1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에는 나눔의 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노철래 국회의원,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이복실 여성가족부차관,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위안부 추모비에 헌화 · 분향한 후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을 만나 큰 절을 하며 일일이 건강상태를 묻기도 했다. 정 총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992년부터 20여 년간 1천 109회에 이르는 수요시위를 계속하는 것만 봐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구구절절한지 온 국민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에서 나온 사과와 대책으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도 일본이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신권 소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며 "이 할머니들의 소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할머니 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사진제공=나눔의 집)



일 주 문



〈대승기신론〉 고운사 특강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2월 17~21일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대승기신론' 특강을 진행한다. (054)833-2324



'작심 4일'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작심 4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고양 시민안전 기원법회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대오 스님은 1월 23일 고양경찰서 4층 고양마루에서 시민안전 기원 신년법회를 진행했다.



대구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25일까지 100일간 제26회 백고좌대설법회를 진행한다. (053)766-3747



겨울철건강음식 특강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2월 9일 진관사에서 겨울철건강음식배우기 1일 특강을 실시한다. (02)359-8410



대한불교진흥원 화요 열린강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 다보법당에서 2월 18일 고미숙 고전평론가 초청 '동의보감, 몸과 우주' 화요 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이전〉 도서출판 올리브그린

도서출판 올리브그린(대표 오종욱)은 사무실을 이전했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2길 49-4(운니동) 동원빌딩 4층 401호 (070)7574-8991. olivegreen_p@ naver.com

〈동국대 인사〉

승진 △남산학사 관장 신기훈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장 방중혁 △만해마을캠퍼스교육원 학사운영실장 이경식 △공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 행정지원팀장 김광희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윤주영

전보 △사업개발본부 건설관리팀장 김종기 △운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장 겸 연구진흥본부 회계팀장 박만규 △운영지원본부 구매팀장 정경섭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장 김성근 △법무대학원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 이성진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사운영실장 조경진 △교육대학원 ·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진환 △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바이오메디캠퍼스 운영지원팀장 신하균 △언론정보대학원 ·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윤동규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 주현석 △학사지원본부 교원인사기획팀장 강형석 △연구진흥본부 연구관리팀장 김태식 △교양교육원 교양교육팀장 김영훈

"종파 넘어서 지역포교 앞장설 것"

영천불교총연합회 회장 태관 스님



태고종 · 법화종 등 70개 사찰 연대

지역 밀착형 불교로 입지 강화 기치

불교 콘텐츠 확대, 문화축제 개최

"불심 경남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이제는 이곳에도 포교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영천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은 최근 영천불교총연합회(이하 영불련) 초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1월 10일 은해사 도선당에서 창립법회 후 정식 발족하게 된 영불련은 종파를 넘어서 지역 전법활동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불교 범연대 조직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 같은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천사암연합회가 지역포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기존에 있었던 영천사암연합회는 조계종 사찰만을 대상으로 한 지엽적 조직이었습니다. 협소한 지역에서 비슷한 행사를 거듭 반복하다 보니 한계가 생기더라구요. 초종파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해 영불련이 발족되었습니다."

영천 지역에 등록된 사찰은 174개. 태관 스님은 그 중 70 곳의 사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체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해 줄 것을 설득했다.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진각종, 미륵종 등다른 종단과는 교류가 없던 터라 내심 걱정도 했지만 흔쾌히 타종단 스님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스님은 은해사, 용화사 등이 참여한 영불련을 통해 지역 내 불교 입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불교관련행사의 콘텐츠를 폭넓고 풍부하게 가꿔 문화축제로 확장해감은 물론 지역 이슈사항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며 지역밀착형 포교를 해나갈 방침이다. 사찰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장학활동이나 봉사활동 등도 불교라는 브랜드를 입혀 시행하며 지역민들을 보듬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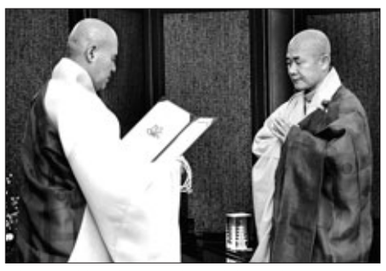
태관 스님은 "경상도 지역이 신심있는 곳이긴 하지만 영천시만 보더라도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회는 전멸했다 보아도 무방하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불교를 발전시켜서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영불련 발족을 계기로 영천 지역 내 불교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은 "팔공산과 은해사 지역에 테마파크와 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이 타종교에 의해 저지된 적이 있는 만큼 불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

연간 2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한 영불련은 실무직책을 다양한 종단의 스님들로 구성했다. 군소종단 스님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논의 주제로 오른다.

배현진 기자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 소장에 정안 스님



정안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 소장에 정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직원들이 신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불교문화재연구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배석한 임석규 · 이용윤 실장 등 직원들에게 "소장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안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장,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사무처장과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가평 아가타보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 미래 내다본다

1월 22일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남북철도, 대륙을 품다'로 주제 발표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박사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은 남북경제통합의 상징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한철도 개보수, 북한철도 현대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남북철도연결의 필요성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남북철도 관련 전문가초청 좌담회가 1월 22일 템플스테이 3층 보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성원용 교수(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러시아의 철도전략'을, 나희성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는 '금강산철도(철원-내금강)의 사업성'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원용 교수는 러시아의 철도전략과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를 설명하며 우리의 나갈 바를 제시했다. 성 교수는 "이제 러시아는 유럽을 겨냥하던 서부지역 자원개발과 운송수단으로서의 철도 개발에서 벗어나 중국 등을 겨냥한 극동지역으로 그 눈길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도 노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라는 섬을 뚫고 어떻게 남북 철도 운영을 계획하고 유라시아 시대에 편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자비의 쌀 전달식



현성 스님이 서대문구 어르신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도선사 조실)은 1월 20일 설을 앞두고 홍은2동 주민센터 등에서 자비의쌀 20kg 100포대를 서대문구 13개동 불우어르신 각 5명씩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현성 스님은 1월 31일 설 당일 안양교도소를 찾아 전 재소자 2500명에게 설 떡국 공양을 한다.

노덕현 기자

故 유한숙 어르신 49재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밀양송전탑 희생자 故 유한숙 어르신을 추모하며 49재를 봉행했다. 49재는 조계사 이세용 종무실장의 사회로 아래와 같이 추모영상 상영과 함께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추모사(미등스님 환경위원회 위원), 대책위 공동대표 추모사(김준환 신부)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족과 밀양 주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금강대, 지역 공무원 최다 배출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지방 대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지역인재추천(6 · 7급) 공무원 채용에 충남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추천제는 2013년도 기준 각 지역대학에서 1,000명 이하 3명, 2,000명이하 4명, 2,000명 이상 5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점수가 토익 700점 · 텝스 625점 ·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 G-TELP 65점(Level 2) · FLEX 625점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최근 4년 동안 매해 연속적인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천태종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전교생 기숙사 생활로 전임교수와 365일 24시간 맞춤형 밀착지도가 가능했던 것이 크다"며 "금강대 만의 소수정예 특성화 교육시스템을 더욱 발전 시켜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❶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❸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2월 20일

❹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한국 불암사판 〈석씨원류〉 중 싯다르타 태자 유성출가상의 한 부분



일본〈석씨원류〉 중 싯다르타 태자 유성출가상의 한 부분

청마의 해, 행복 전하는 馬 보러 오세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4월 30일까지 전시

'행복의 전령자, 판화로 보는 말' 주제 기획전
'말' 주제로 한 아시아 판화 100여 점, 한자리

청마의 해를 맞아 말(馬)을 주제로 한 아시아 판화 100여 점이 한자리에 펼쳐진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30일까지 '행복의 전령자 – 판화로 보는 아시아 말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전에서는 말을 아시아의 판각문화로 승화시킨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의 말 관련 목판 원판 40여점, 인출판화 30여점, 판화만 현존하는 자료, 서책 40여점 등 관련 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품 중에는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인 일직ㆍ월직사자와 아미타불이 양면으로 제작된 판화가 눈길을 끈다. 이 판화는 청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49재 등 불교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목판화로는 희귀 작품이다. 말 위에 앉아 근엄한 표정을 짓는 사자들의 모습과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아미타불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표현됐다. 이와 함께 염라대왕 판화도 함께 전시돼 그 의미를 전한다.

이 외에도 부처님 출가 일대기를 담은 팔상성도 중 '유성출가상' 을 표현한 목판화도 선보인다. 이 유성출가상은 한국과 일본의 판화를 함께 전시해 비교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불암사판 석씨원류〉(부처님 일대기) 판본으로 선비의 옷을 입은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에 대비해 일본의 경우 일본에도시대 〈석씨원류〉에 있는 유성출가상으로 여성스러운 복장을 한 왕자의 모습으로 표현돼 이채롭다.

이 밖에 정월 대보름 날 옥황상제가 복을 내려 준다는 풍속을 판화로 표현한 '천관사복' 을 비롯해 섣달 그믐날 조왕이 복을 준다는 풍속을 표현한 '선화복수' 목판과 삼국지에서 관우와 황충이 말에서 싸운 장면을 표현한 적토마 등 3점이 최초로 공개된다.

우리나라 작품으로 민간에서 사용하였던 '신마' 판화와 김유신장군의 묘, 진성여왕의 묘에 조각된 탁본 등도 함께 전시된다.

고판화박물관은 이번 전시 기간에 소원성취 풍마달기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풍마(風馬)는 티베트, 몽골인들이 깃발을 만들 때 그림 중앙에 넣는 말 문양으로, 말이 깃발을 든 사람의 소원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 소원성취를 돕는다는 풍습에서 유래됐다.

한선학 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청마의 기상을 닮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중일 '말' 주제 판화 무엇이 다른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말은 행복을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관인 옥황상제를 싣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거나 조왕신이 옥황상제로부터 상을 받은 것을 말에 실고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죽은 자에게는 일직사자 나 월직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서방정토로 인도하는 역할도 띄어 인도자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불교에서 말그림은 판화로 제작돼 사찰에서 길상의 부적으로 보급했다. 여기에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말을 타고 있는 보살상이나 신장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천도재 등에서도 열반도나 일직사자ㆍ월직사자의 모습을 찍어낸 부적들이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영향으로 불교판화에서도 세시풍속 등과 연관된 흔적이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일본불교 특유의 기복성향이 판화에서 반영돼 부적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도 일본사찰에서는 말 그림을 부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천마총의 천마도를 비롯한 길상의 상징으로 천마가 사용되었으나 불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진행되는 49재에서도 불화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티벳ㆍ몽골 등 티벳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기도행사에서 소원성취의 의미로 말문양인 '풍마'(風馬)를 사용하고 있다. 마을 입구 등에 곧고 긴 장대를 세우고 장대 끝에 불교경전 문구와 말 그림을 그린 긴 천을 다는 것이다. 이 것이 말 갈기와 흡사하다고 하여 풍마로 불린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의 민족들이 각기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며 말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국 청대에 제작된 말을탄 월직사자(저승사자). 49재 등 의식에 사용된 희귀작.



티벳 '풍마' 말 문양 판화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술·육류 대신 차·과일 올려 조상의 업 소멸 기원”

설맞이 불교식 차례 지내는 방법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다.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대부분 유교적 관례에 따라 고기, 생선, 술 등을 올리는 차례상을 차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불자들에게 불교식 차례 지내기를 권유하고 있다.

유교식 차례상과 불교식 차례상의 가장 큰 차이는 술과 육류 대신 차와 과일, 과자를 올린다는 점이다. ‘차례(茶禮)’ 라는 것은 ‘차(茶)를 올리는 의례’ 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오늘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술을 올리지 않고 간소했다고 한다. 유교식 제례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로하는 목적이라면, 불교의 제례는 조상의 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검소하고 절차도 간편한 불교식 차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육류, 생선 제외한 육법공양이 기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2011년에 발간한 〈불교 상제례 안내(재가신도를 위한 상례와 제례 지내는 법)〉에 따르면, 상차림은 간소하게 준비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계율에 따라 육류와 생선은 제외한다. 먼저 육법공양물인 향, 초, 꽃, 차, 과실, 밥을 올리고, 기본 상차림으로 국과 3색 나물, 3색 과실을 갖춘다. 나무와 과실은 계절에 적합한 것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떡 · 전 · 과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불교식 가정제사의 절차는 일반 제사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불교에서 행하는 시식(施食)의 의미를 수용한다. 의례 절차는 영가를 모시기, 제수 권하기, 불법 전하기, 축원 올리기, 영가에게 편지 보내기, 영가 보내기, 제수 나누기 등 7단계로 진행된다.

1~7단계로 진행, 조상의 업 소멸 기원

첫째 단계인 영가 모시기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 을 칭명하며 가피를 구하는 거불(擧佛)을 올린 뒤, 삼보의 위신력으로 영가를 청해 모시는 청혼(請魂) 단계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꿇어 앉은 뒤 ‘조상님이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영단에 왕림하시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라는 의식문을 염송하며 영가를 청하고 마지막에 합장반배 한다. 이어 모두 일어나 부처님과 영가를 향해 3배를 올린다.

2단계인 제수 권하기는 차와 음식을 올리는 ‘헌다’ 와 공양을 권하는 ‘헌식’ 으로 진행된다. 헌다에서는 차를 올리고 나면 변식진언(變食眞言) ‘나막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훔’ 을 3번 염송한다. 헌다를 마치면 다함께 앉아 영가에게 공양을 권하는 헌식소(獻食疏)를 다함께 염송한다. 헌식소를 염송한 후, 잠시 2~3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공양 드실 시간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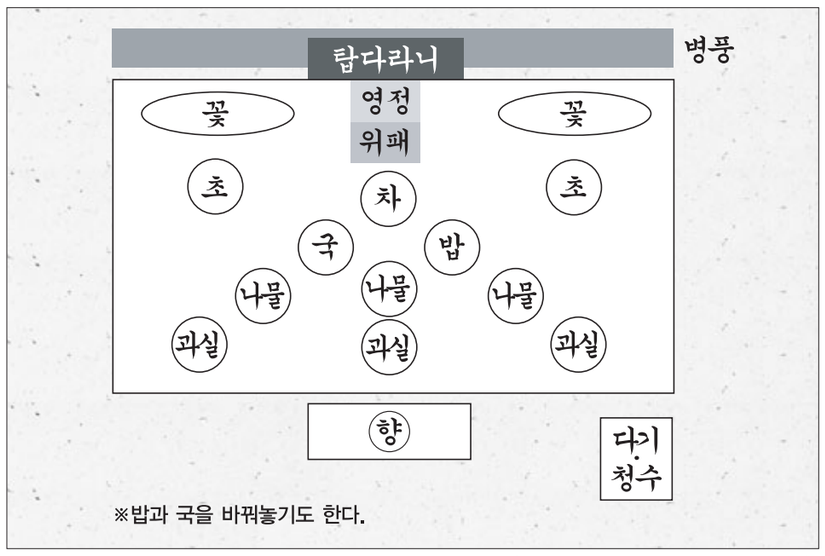
3단계 불법 전하기는 모두 합장하고 앉아 경전을 염송한다. 영가에게 전하는 경전은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경전이나, 〈금강경〉 〈아미타경〉 ‘법성게’ 등의 일부분을 정해 염송한다.

4단계 축원 올리기는 영가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는 단계로써 모두 합장하고 앉은 상태에서 제주가 축원문을 염송하게 된다.

5단계 편지 올리기는 가족 중 한 명이 영가에게 쓴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갖는다.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조상에 대한 마음과 추억을 일깨우게 돼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차례를 보다 의미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6단계 영가 보내기에서는 제주의 안내에 따라 모두 일어나서 3배로 봉송인사를 올린다. 3배 후 제주는 “조상님이시여!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 아 자리에 내려오셔서 법다운 공양 받고 법문 들으셨으니 이제 편안하게 잘 가십시오. 잘 가셨다가 다른 날 도량 세워 청하올 때 본래의 서원 잊지 말고 다시 오소서.(반배) 나무아미타불(10번).” 차례상의 음식을 거두고 제주는 밖으로 나가 나무아미타불 염불기도를 하면서 위패를 사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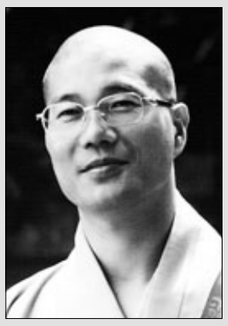
7단계 제수 나누기에서는 가족이 둘러 앉아 음복을 하며 영가를 기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 된다. 이나은 기자



※출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발간한 〈불교 상제례 안내(재가신도를 위한 상례와 제례 지내는 법)〉

“예부터 조상들 차례에 茶 올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차례상에 차(茶) 쓰기’ 운동 전개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사진〉은 차례를 올릴 때 차를 쓰지 않고 술을 쓰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1990년대부터 ‘차례상에 차(茶) 쓰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법현 스님에 의하면 차례(茶禮)는 흔히 다도(茶道)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충담 스님의 미륵부처님께 차올리기’ 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종교와 사상인 불교와 유교가 모두 다 차례를 아주 중시해 오고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특히 근래에 초의선사(草衣禪師)의 동다송(東茶頌)보다도 300여년 앞선 차시를 남겨 다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재공(寒齋公) 이목(李穆) 선생이 조상님께 지낸 제사 홀기(笏記)에서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撤羹奉茶)”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종교 · 사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제사와 차례에 차를 썼음이 증명됐다.

법현 스님은 “ ‘집집마다 의식이 다르다[家家禮]’ 는 이야기처럼 전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패 쓰는 것이나 상차리기는 자유롭게 하고 집안인 종교의 전통을 따르되 조상님을 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열린선원은 1월 31일 오전 11시 ‘설 맞이 합동차례 및 세알세배법회’ 를 봉행한다. 법현 스님은 핵가족화되고 가족관계가 단출해지면서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불교차례의식으로 합동차례를 지낸다.

겨울추위 잊게 한 아이들의 부처님 노래

국제포교사회 제7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개최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7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The 7th Jataka Story Telling Contest)’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예선을 거친 22개팀 24명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상의 영예는 봉은사 구도은 학생(초5, 양전초)이 차지했다.

총 70개팀, 79명이 참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역예선이 펼쳐졌다.

본선 심사를 맡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참가 어린이들의 영어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각 사찰의 후원으로 예년보다 풍성한 행사로 치러지는 등 인상깊었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제7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에 참가한 학생이 자타카를 암송하고 있다.

어·청지도사 선발고시

2월 22일 서울 · 부산서 시행
2월 5일까지 접수 마감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담당할 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과 부산 대한불교교사대학 강의장 2곳에서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불교청소년지도사 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시험은 불교상식 및 어린이청소년포교일반에 대한 필기와 면접, 실기 순으로 치러진다.

특히 실기시험에서는 목탁습의와 함께 어린이지도사 지원자에 한해 동화구연, 찬불동요, 법회진행 중 한 가지를 택해 실력을 점검한다.

접수마감은 2월 5일 오후 6시까지며, 합격자는 반드시 오는 3월 22일 열리는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www. buddhi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011-1903 이나은 기자

미혼모, 청소년 가장에 불교상담 지원

불교상담개발원 · 해피마중물
1월 16일 업무협약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도현 스님(가운데)과 해피마중물 여성 불자 5명(김진여심, 김현숙, 신지형, 윤정자, 최원희)은 1월 16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불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16일 불교상담개발원 회의실에서 지난 해 불교사회적경제붐업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한 해피마중물(대표 김현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개발원은 해피마중물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미혼모부), 청소년 가장,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상담과 자립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간 불교계에는 미혼모, 청소년 가장 등을 비롯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포교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새로운 상담영역을 개척하고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인력 양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피마중물은 20년 이상 사찰 자원봉사를 해오던 여성 불자 5명이 모여 미혼모와 가장, 경력단절 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피마중물을 만든 5인은 2013년 10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하 학습동아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부한 후, 불교적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뜻을 모았고 지난해 11월 26일 ‘불교사회적경제붐업 콘테스트’ 에서 동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나은 기자

2014학년도 정규 4년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 신입생 모집

동양학전공(명리풍수) 학생 모집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동양학부 동양학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명리학과 풍수학을 비롯한 동양의 예측학은 심오한 우주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인간의 선천성을 이해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학문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빛나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를 한층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글로벌사이버대학에 4년제 정규 대학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교육과목

1학년	명리학총론, 명리학설사, 맹파명리학, 격국용신론, 선천적성상담이론 풍수학총론, 풍수학설사, 육효학총론, 주역입문
2학년	명리궁합론, 명리직업적성론, 선천적성상담실습, 형기풍수총론 이기풍수총론, 현공풍수론, 부동산풍수론, 양택풍수론, 육임학총론 기문둔갑총론, 교양한문
3학년	명리육친통변론, 명리재물운예측, 선천지능연구, 명리포태법 명리십이신살론, 작명학총론, 명리적천수, 건축풍수, 구성기학
4학년	명리상담실습, 명리내정법, 고급선천적성상담실기, 철판신수연구 현공양택실습, 점포풍수론, 관상학총론, 택일실습

수월성교육

등하교를 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시간이 날 때 동영상 강의 수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공직자,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등 누구나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정규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자격 및 안내

학 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기간 2014년 1월 11일(토) ~ 2014년 2월 16일(일)
원서접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go.global.ac.kr
입학문의 1577-1786 동양학전공담당자 02-3014-5562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학전공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장학금 혜택

2014학년도 신입학생 홍익장학금 수여!
(입학년도 40% + 이후 2년간 30%)

사회복지학부 학생 모집

사회복지학과 041)529-2749
21세기 복지사회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전문리더 양성!
복지의 질적성숙에 기여할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지식과 현장능력을 갖출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제공!
취득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건강가정사 복지상담사

실버복지학과 041)529-2794
성공적인 노후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양성!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전문가!
라이프코칭을 통한 진정한 휴먼서비스 실현!
취득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2급 실버전문복지사 케어복지사 복지시설경영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LOBAL CYBER UNIVERSITY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성 우
◆ 개강일시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과 경북종무원이 통합하기에
2014년부터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나눔·문화활동 지원… 동체대비 이룰 것”

불교 주요 복지단체 신년사업 잇달아 발표

불교계 주요 복지단체와 기관들이 2014년 신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과 올해 20주년을 맞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비나눔에 앞장 설 것을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좀 더 고품격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올 한 해 힐링의 대가인 마가 스님, 정목 스님 등을 홍보대사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확보하고, 환자 치료비 지원액을 3억 원으로 늘리는 등 생명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월 20일 본부 사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과 자살예방사업, 치료비 지원 등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 발표에 앞서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한지 20년이 됐다”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이 온 국민의 기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에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100명 이상을 추천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이어가고, 다양한 불교계 기관 및 단체와 홍보 제휴 협약을 통해 공동 홍보에 나선다. 또한 불교계 각 종단과 교구본사 등에 지속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해 ‘스님 1000분 모시기’를 실천하며,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을 강원·충청권을 포함 지속적으로 전개해 2800명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밖에 본부는 지난 해 환자 치료비 지원액 2억 2천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늘려 BBS, BTN, EBS 등 방송과 업무 협약을 통해 연대사업을 펼치고 환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예방 사업은 웃음치료 및 명상강의 등 내담자 대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치유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는 9월 30일 불교역사박물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실시, 특별생방송을 통해 생명나눔 홍보에 나선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스님 1000분 모시기’의 시작으로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마가 스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마가 스님은 2005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수차례 본부와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고, 회원으로 주변에 장기기증의 참 뜻을 알리며 동참을 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기자간담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생명나눔… 마가·정목스님 홍보대사, 환자 치료비 3억원 증액

복지재단… 나눔전문가 양성·국제사회복지 실현에 주력

서울노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문화 사업 전개

종로노인… 노년기 어르신 평생학습 지원에 총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월 22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올해 ‘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성찰을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는 불교복지 △따뜻함과 참신함으로 사회에 감동을 전하는 불교복지 △자비나눔 동반성장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불교복지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불교복지 등 4가지를 주요 골자로 불국정토 실현에 앞장선다.

이와함께 복지재단은 대사회적인 봉사와 나눔을 통해 불교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사찰 신도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하고, 전국 불교자원봉사 대축제를 열어 전국의 불교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결집을 도모해 나간다.

최근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작한 자비나눔통장 활성화를 비롯해, 이웃종교와 연합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비나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라오스를 재단 국제구호사업의 전략현장으로 삼고 안과질환, 백혈병 치료, 모자보건사업 지원 등 라오스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5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불교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준비 △재단 CI개발 △20년사 발간 및 불교복지 박람회 등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원경 스님은 “불교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준비와 20년사 발간을 통해 불교복지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조명하고, 불교계 단체와 함께하는 불교복지박람회를 준비하겠다”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중심이 돼 불교계 단체와 함께 불교복지 미래상을 설계하고, 사회 각 구성원들과 함께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올해 핵심 사업의 주요 컨셉을 ‘시간 더하기 공간’으로 정했다. 센터는 “2013년 리모델링을 한 센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14년에는 어르신과 우리 모두가 역사와 시간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먼저 ‘서울근대문화기행’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다. 서울 인근에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모금과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을 펼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단체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 해온 근대문화유산을 알아보고 답사를 떠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리모델링으로 새로 생긴 탑골미술관과 탑골독립영화관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시간 둘레길’을 주제로 역사기념전을 진행하며, ‘탑골독립영화관 순회상영단’ 어르신이 대학이나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노인을 주제로 서울노인영화제에 출품됐던 작품을 상영하며 살아온 시간을 거슬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센터는 생활, 건강, 문화, 일자리, 자원봉사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간 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재취업 및 창의직업 전문교육부터 취업알선에 관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와 어르신과 그 가족의 심리·정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노년기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관은 어르신 특성화 도서관인 ‘별별별 어르신 도서관’을 건립해 노년의 평생학습장을 마련하고, 자기주도적 정보획득의 기회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설립된 감성문화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 어르신들의 예술문화역량을 강화시켜 활기찬 노인문화를 만들도록 돕는다.

이 밖에 신노인대회, 노인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복지관의 주역인 어르신들이 스스로 신노인임을 자각하고 복지관에 대한 소속·단합심을 향상해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복지관, 설맞이 나눔행사 열어

떡국나눔, 합동차례 등 실시



불교계 복지관들이 설날을 맞이해 떡국나눔, 합동차례 등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마련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불교계 복지관들이 설날을 맞이해 떡국나눔, 합동차례 등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은 1월 28일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따사로이 나눔 행사’를 실시,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립불광노인복지관(관장 윤남선)은 1월 23일 지역 어르신, 저소득 계층과 함께 ‘설맞이 떡국공양 및 사회교육 작품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진관사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을 모시고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실력을 뽐내는 작품발표회를 선보였다. 또한 150여 명의 지역 어르신 및 저소득계층 어르신들께 떡국과 과일 등을 제공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월 27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14 갑오년 설 명절맞이 합동차례’를 실시,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차례와 음복 등을 진행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은 1월 28일 복지관에서 복지관 사례관리대상자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난타, 민요 등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고, 설날 떡만두국을 대접했다. 이나은 기자

홍천군장애인복지관, 무료 영화관 마련

1월 21일 지역민에게 ‘7번방의 선물’ 상영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1월 21일 강원문화재단과 한국영상자료원의 후원으로 영화관이 없는 지역민들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화관’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복지관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상영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유관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홍천군 지역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매체를 제공해 정서지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본동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입소자 모집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노들데이케어센터(시설장 김종성)에서 입소자를 모집한다.

2012년 10월 개소한 노들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게 안심케어, 맞춤케어, 전문케어, 통합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했으며, 도심 속 자연친화적이고 한강조망을 함께하는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이다. 주야간으로 식사, 간호, 물리치료,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되며 정원은 17명이다.

이용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심신 허약 및 장애, 경증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주·야간 보호서비스가 가능하다.

(070)7163-0907~08 이나은 기자

진로·적성·상담 안내

인재양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C.A.C 분석서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힐링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대안교육 전문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방생

◈공 연 내 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덕분입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한마디

포항 일월문화아카데미 특강
성담 스님(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은 서로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단, 오로지 나만 바꾸면 된다고도 했다.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끊었다 이었다 하던 스님이 법문 내내 강조한 것은, ‘덕분입니다’ 한마디였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나만 잘하면 그만?

불교의 연기란 말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얼른 감이 안 잡히는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서로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기에 우리는 중중무진을 줄인 말로 인과, 연기를 씁니다.

우주만유 일체의 사물이 서로 무한한 관계를 가지고 얽히고 설켜 일체화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인 중중무진(重重無盡)은 거듭거듭 인연이 다함없이 서로 의존해서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깊이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위의 도움을 잘 받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본인이 잘하면 그만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무게를 두는 단어를 ‘나’ 에서 ‘주변’ 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썩 좋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나만 노력한 것이니까요.

나부터 잘돼야 한다는 말은 내 방식대로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의 도움을 못 받는 것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당신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 일은 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부터 잘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자라고 원을 세우지만 이렇게 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대신 ‘너부터 잘돼라’ 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그치질 않겠죠. 이것을 놓치고 있기에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는 것입니다.

이타행이야말로 바른 노력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야 말로 바른 노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해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반찬 좀 더 가져다 달라는 손님의 말에 당장 이익생각이 나서 아까워한다면 그 식당이 제대로 잘 될 리 있겠습니까. 실전에서 적용되는 중중무진연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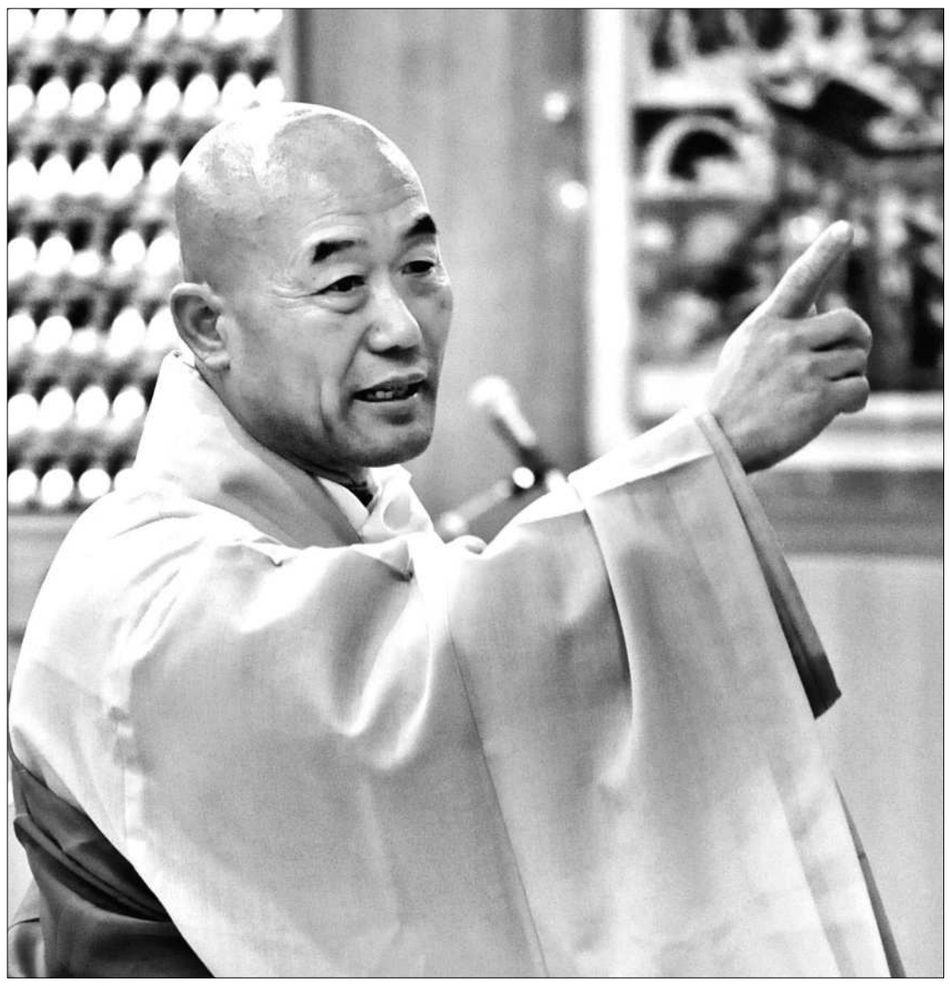
무언가 경영을 할 때도 돈없고 힘없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저가격, 최고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쉽습니다. 첫째, ‘너부터 잘되어야 한다’ 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열매가 씨라는 것만 아십시오. 여러분이 수확하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심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다면 상대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들고 대우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섯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입니다. ‘덕분입니다.’ 한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에 이것만 안다면 성공하기도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대방을 존중하면 된다는 단순한 법칙만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방법이 맞아야 합니다.

> 세상 움직이려면
> 나만 노력해서는 안 되
> 주위 도움 받을 수 있는
> 내가 되도록 주변 살펴야
>
> ‘내가 잘돼야’ 대신
> 너부터 잘돼란 마음으로
> 내 방식 대신 네 방식 대로



성담 스님은 … 봉선사 운경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고 고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운산 토굴에서 수행했고 해인사승가대를 수료했다. 1993년 효심사를 창건하고 BBS라디오와 불교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저서로는 〈행복119〉 〈풋과일이 떫은맛을 내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 〈내일은 없다〉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성공습관〉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부자연습〉 〈성담스님의 미리하는 인생공부〉 등이 있다.

말 속에 담긴 중중무진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緣起)는 연기(煙氣)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연기(演技)만 잘 하면 됩니다. 늘 기쁜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니까 내가 기쁜척을 하면 기쁜 것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척, 못난척도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한척, 잘난척을 너무 잘 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초에 운세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기가 좋아지면 운이 살아나는 게 이치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붙어다니 듯이요. ‘올해 운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지를 물어야죠.

운명(運命)이란 말도 중중무진입니다. 운과 명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명을 알고 싶으면 운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운을 보려면 기(氣)를 보면 됩니다. 기는 마음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기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중무진연기입니다. 마음역시 믿음과 한 세트입니다. 마음은 기와 운과 명을 움직이는 보배인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 역시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는 만큼 마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인 만큼 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운이 살아나고 다시 명도 길어집니다.

천하명당자리도 내 마음을 잘못 쓰면 기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쓰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나와서 기가 살아나는 거에요. 아주 쉽죠. 이것을 알고 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선택하는 대로 엔돌핀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일체가 마음작용으로 창조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중중무진연기란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잘돼라고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곧 타인이 행복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의 시비분별을 지워야합니다. 시비분별을 하지 않으면 멍한 상태가 되겠지만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차츰차츰 업이 소멸되어 맑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밝아지겠죠. 멍청, 청명, 명쾌가 중중무진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계속 따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에요. 출렁출렁한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나면, 고요해지면서 송사리도 보이고 하겠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가지 장점만 보세요.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지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나머진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아닌 게 나라고 배웠잖습니까. 그럼 이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전체를 쉽게 콩팥, 심장, 간 쓸개 이렇게 본다면 상대방은 콩팥이고 나는 심장이 됩니다. 둘은 같을 수도 없고 같으면 더더욱 안 되요. 내 마음에 들게 콩팥이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콩팥은 콩팥 나름대로의 기능을 해야 하고 심장은 심장 나름대로 할 일을 하겠죠.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얽혀 살아가면서 분별을 안 하기는 어렵죠. 분별하되, 한가지 좋은 점만 보고 지내면 됩니다.

분별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분별을 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줬을 때 잘 쓰라는 것이고, 칼을 쥐었을 때 맛있는 요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별없음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루어나갈 때는 좋은 점 하나를 보고 사골 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으면 우리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풋과일에서 떫은 맛이 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고 풋과일에 딱 맞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죠.

나만 행복하면 자타가 일시에 행복해집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365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방식대로 숨쉬고 밥먹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친구 어느 누구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태어나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기에 화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만 아신다면, 인생의 여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사회에서 마주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서로 의존해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기에 남이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알면 됩니다. 생각도 연기같이 사라지기에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상대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의 주변 인물들은 수없는 세월 동안 끝없이 만난 이들입니다. 중중무진연기의 실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한 생 두 생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옆 사람에게 잘해둬야 합니다. 다음 생에 만날 때는 연체이자까지 받든지 주든지 할 거에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십시오.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4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2월 8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50명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0명 ▶ 통신반 : 30명
1년차 과목 | ① 불교개론 ② 불교문화와 포교(불교미술 다도) ③ 선불교 ④ 근본불교 ⑤ 반야사상(반야심경 금강경) ⑥ 유식불교와 명상
교 수 진 | 법산 스님(학장), 최종석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 스님, 박희준 교수, 김호귀 교수, 활안 스님, 최봉수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 스님
▶ 불교다도학과(2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교과목 한국 차문화, 유럽차문화, 일본차문화, 중국차문화,티-테이블세팅, 차의미학, 제다심평
▶ 모집인원 20명
▶ 불교미술학과(3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교과목 사불기본, 불화기본, 단청기본, 신중초, 보살초, 여래초, 영산회상도, 정토변상도, 수월관음도, 개별작품지도
▶ 모집인원 20명
▶ 선·명상학과(2년) 3월 6일(목) 오후 7시
▶ 교과목 1학기: 선불교, 간화선 | 2학기: 염불선, 정토선 | 3학기: 초기불교, 청정도론 | 4학기: 티벳명상, 라림
▶ 모집인원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1월 2일부터 ■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 을 획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부사관,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인도 나란다대학터〉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새해 눈길 끄는 불교계 문화재 사업은?

경판 · 사지 · 금석문 · 벽화 등 다양…불교문화 중요성 알릴 기회

지난해 석굴암과 대장경 훼손 등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불교계가 새해 다양한 사찰문화재 관련 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끈다.

전국 사찰 경판 조사 시작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3월부터 목판 분야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를 시작한다. 3개년 사업 중 첫해인 올해에는 인천,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 50개 사찰의 1만 79점이 조사된다. 이번 조사사업에서는 해인사 대장경판 외 최대 규모인 송광사 화엄전 등이 포함됐다. 2015년에는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지역 사찰 24곳, 2016년에는 서울 · 대구 · 경북 지역 사찰 36곳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판 소장처로 알려진 곳은 110여 사찰로 2만 7350여점에 달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각 사찰이 소장하는 경판별 판본을 분류하고 간행시기 및 각수 등 기록도 함께 조사한다. 디지털 촬영을 함께 진행해 지역, 사찰, 판본, 시대별 통계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와 함께 10월 경 2010년부터 진행 중인 폐사지 조사사업 중 충남 · 충북 · 대전지역의 사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3월 경 소장문화재 현황 보고서를 내놓으며 2013년 시작한 전국 폐사지 시 · 발굴 사업 2년차 사업에 들어간다.

금석문 탁본 자료 수집 본격 실시

불교중앙박물관은 올해 전국에 산재한 금석문을 탁본을 떠 원형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 문화재청의 용역을 받아 시작한 금석문 자료 집대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금석문 일체를 탁본으로 남기는 것으로 조선 세종, 일본 강점기 이후 처음이다. 1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문화재위원인 흥선스님(前 불교중앙박물관장)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목록화 조사가 완료됐으며, 올해에는 경상북도의 금석문들에 대한 탁본, 사진, 영상 촬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단서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는 사지조사사업. 연구소는 매년 조사결과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사찰 벽화 조사사업 회향

성보문화재연구원이 2006년부터 진행해온 사찰 벽화 조사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회향된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올해까지 총 160개 사찰건축물에서 벽화 5200여점을 조사해 63점의 벽화가 보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건물 일부로 여겨온 벽화를 중요 문화재로 인식하게 된 성과를 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2014년 야외 의식용 불화인 괘불과 관련된 기록, 유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괘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거대한 크기로 인해 심층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여러 불화 유형 중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괘불의 총체적인 면모를 본격적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00년 전 사찰 모습 담은 국보급 암각화 훼손 위기

경주 표암(瓢巖) 마애암각화 방치에 학계 "당국 관심을"

화백회의로 신라 건국 의결된 장소
경덕왕 후비 만월 부인이 사찰 암각
불교 조각사 · 금석학 연구 자료

통일신라 사찰 모습이 기록된 국보급 마애암각화가 방치돼 풍화로 인한 심각한 훼손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한다.

표암 마애암각화는 전체 크기 가로 1.5m, 세로 1m로, 높이 2.3m, 가로 2m 바위에 음각(갈아내기 기법)으로 새겨져 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절의 입구인 산문(山門), 당간지주(幢竿支柱), 명문 12자 '天寶二年(?)月夫今(令)子上世也(?)', 삼층 목탑, 불전(佛殿), 승상(僧像)이 차례로 새겨져 있다.

표암은 화백회의를 통해 신라 건국이 의결된 역사적 장소로 경주 이씨 혈맥의 근원이다. 표암이란 '박바위' '밝은바위'를 뜻하는데, 신라 6촌 가운데 알천 양산촌의 시조 이알평이 이 바위에 내려와 세상을 밝게 하였다 하여 표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경주 이씨 문중 중 표암 승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현불 스님은 "2011년 발견 이후 수차례 학술대회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주목했지만 방치된 상태"라며 "표면 풍화로 인해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재 고려대 교수는 "명문을 풀이해보면 천보 2년(743년) 경덕왕의 후비인 만월부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부처님께 기원하며 새긴 것"이라며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암각화가 불당과 탑이 있는 사찰에서 만월부인이 당번을 봉안하면서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담은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암각 중 불번(佛幡)은 불교 주요행사 때 당간지주에 내건 깃발로 암각화로는 국내 최초로 발견된 것"이라며 "불교 조각사와 사회사, 금석학 연구의 자료로 평가받는 만큼 보존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표암 마애암각화. 국내 유일한 불번 암각이 있는 희귀 암각화다.

홍광표 교수는 "표암 암각화는 통일신라시대 사찰 경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며 "탑과 금당이 사찰의 중심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비등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탑의 중요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암각화에 중요하게 부각돼있는 불번은 중요행사에 사찰에 게양해 불보살의 위신력을 보이는 장엄물이지만 오늘날 그 존재가 잊혀져 왔다"며 "표암 암각화가 발견되고 나서 사실상 우리나라 사찰에 불번이 실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 관장은 "특히 사찰에서 중요한 행사 때 당간지주에 내걸었던 깃발인 불번이 국내 최초로 발견돼 국보급 자료로 평가된다"며 "관련 당국이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다시 세상에 모습 드러낸 '직지'


1월 22일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직지복원판들.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2011년부터 진행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이 1월 22일 청주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에서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복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복원을 진행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임인호 금속활자장과 황정하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직지 금속활자판은 하권 30장~39장과 프랑스에도 남아있지 않은 하권 1장, 목판본만 있는 상권 1장~6장(39장까지는 미복원) 등이다.

금속활자판으로 찍어낸 직지 인쇄본도 함께 공개됐다. 황정하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금속활자본 진본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직지까지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고인쇄박물관은 2015년까지 복원하여 상 · 하권을 모두 엮어 한 권으로 인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혜문 스님,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주장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1월 20일 일본에서 도난돼 국내에 반입된 신라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혜문 스님은 "부석사 불상과 달리 약탈에 대한 증거가 없고, 도난 당한 사실이 분명한 동조여래입상은 반환해야 한다. 불상 때문에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다른 문화재 환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조여래입상'은


동조여래입상

부석사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한국에 반입됐으나 부석사 불상과 달리 원 소장처의 기록이 있지 않다. 현재 '불상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석사 불상과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3월 3일부터 총 16주간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전용 강의실에서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역경인력 양성 및 불교 연구자의 한문 해독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한문아카데미에선 월요일에 '원각경'(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화요일에 '초서'(양진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수요일에 '조론'(박해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목요일에 '고문진보'(이상현/ 한국고전번역원), 금요일에 1학년 '논어 · 대학'(공근식/ 한국고전번역원), 2학년 '맹자 · 중용'(최병준/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등 강좌가 실시된다. 수강료는 60만원(대학 및 대학원생 42만원)이며, 접수기간은 2월 6일까지이다. (02)6713-5154

노덕현 기자

원불교, 불교와 원불교 정체성 살핀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은 2월 7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불교와 원불교'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 '불교사상과 원불교 사상과의 관계', 제2부 '불교의 주요 경론과 원불교사상과의 관계'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유식, 화엄, 선, 정토, 밀교 사상과 원불교가, 2부에서는 '불교요경 성립과 불교와의 관계', 유마경, 금강경, 법화경과 원불교사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042)869-6840

노덕현 기자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2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4년 2월 19일(음력 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일산, 귀암, 경암, 덕우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 343-2267~8700



(사단법인) 영 남 범 음 범 패 연 구 보 존 회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올바른 불교관 정립이 시급하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 광주불교 열린대화마당서 강조

16일 '한국불교 현실과 방향' 강연
50여 불자 참여. 불교계 변화 주문
"실천하는 재가불교 모습 필요"

"한국불교의 미래는 올바른 불타관을 정립하고, 청년 · 실천 · 중생 · 현재불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광주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대표 정선. 대광사 주지)는 1월 16일 광주 선덕사에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초청해 '한국불교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성택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미래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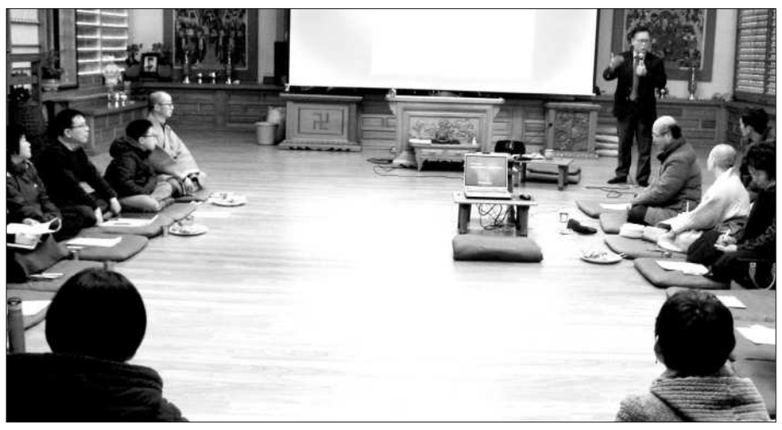
조성택 교수는 "불교사의 다양한 전통들은 진리의 당체인 불설을 역사적 시공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노력의 과정이자 산물이다"라며 "불교의 역사는 전통에 안주함 없이 늘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고, 변화하는 종교적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붓다 본래의 메시지를 역사속에서 직접적으로 실현해온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집단적 위기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한데서 오는 자존감의 상처가 있다"며, "또한 새로운 종교환경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처님 본래의 메시지를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과 무기력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성택 교수는 또한 한국불자들에 대한 현실도 지적했다. "한국불교의 관념과 전통에 매몰된 상황이다"고 지적한 조성택 교수는 한국불자들에 대해 "몽매하거나 지나치게 똑똑한 한국의 불자들"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는 관념으로서의 불교가 만연돼 '관중' 이 되어버린 재가불자들의 상황을 역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새로운 실험과 모색이 필요하며, 신대승불교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사찰' 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불교를 사유하는 것, '출가' 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불교를 사유하는 것, '석가모니 붓다' 라는 과거를 중심으로 불교를 사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불교를 구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교수는 끝으로 "보살불교에서 청년불교로, 좌불상에서 입불상으로, 적정의 불교에서 실천의 불교로, 무쟁의 평화에서 화쟁의 불교로, 석가의 불교에서 중생의 불교로, 과거의 불교에서 현재의 불교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1월 16일 광주 선덕사에서 열린 열린대화마당에는 50여 불자들이 참여해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성택 교수와 불교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 스님, 원묵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NGO연대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향후 1년 4차례 열린대화마당을 개최해 한국불교와 지역불교의 새로운 대안들을 고민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람느끼는 신행으로 불교세 규합"

전북포교대상 수상한 강준희 불자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경책으로 알겠습니다."

1월 11일 전북사암승가회 신년하례법회에서 전북포교대상을 수상한 강준희 씨는 밝게 웃으며 담담히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준희 씨가 사는 전북 진안은 인구가 2만명에 불과할 정도인 산간오지다. 불교세 또한 마이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찰운영이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강준희 씨는 현재 진안 고림사 신도회 총무를 맡아 10년 전 부터는 고림사 성목 스님과 부처님오신날 연등 판매 수익금으로 성지순례를 시행하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림사 성지순례는 지난해 16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불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주지 스님이 마음을 내고 신도들이 후원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BBS 한국청소년연맹 운영위원으로 청소년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포교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강준희 씨는 인재불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씨는 "장기적으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과 힘을 모아 무료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희 씨는 지역불자들을 규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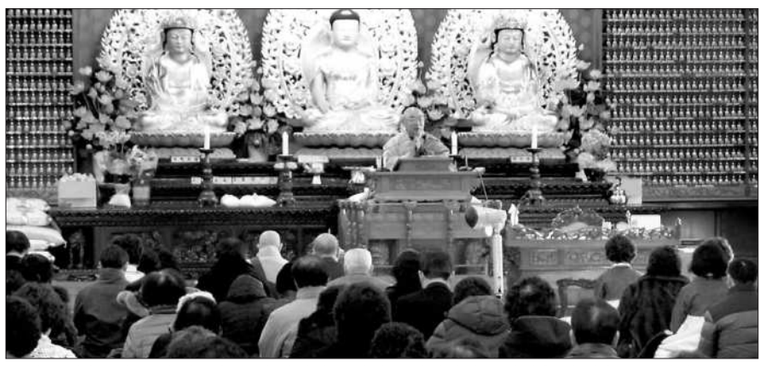
강 씨는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가불자들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이를 뒷받침 해야한다"며 "지역 불자들을 규합해 정기적인 교류를 갖는 한편,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는 자발적인 신도회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끝으로 "이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북지역에 불교세가 융성하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종석스님 초청법회

1월 19일, 300여명 모여 '탐진치' 버리기 서원


종석 스님은 1월 19일 법문을 통해 탐진치를 여의고 생각마다 보리심을 낼 것을 주문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성우스님)는 1월 19일 4층 큰 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前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 종석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종석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생은 자기 장엄이며 부처님에 대한 발원과 일념, 정신력이 바로 나를 만든다"며 "탐진치를 여의고 불법승에 귀의하여 생각 생각마다 보리심을 내면 지금있는 바로 이곳이 극락세계"라고 불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은 "갑오년 새해에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신행활동과 불법수호에 노고가 많은 지역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신행활동과 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불자들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는 일요법회 중 한 차례 전북불교신도회의 주관으로 특별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또 매주 화엄불교대학 강의는 물론 일요법회, 어린이 법회 등 요일마다 다양한 법회가 열리는 지역불자들의 신행생활의 중심이 되는 전법도량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활불교동구協, 독거노인 위한 떡국 전달

떡국떡 50세대분 광주동 구청에… "따뜻한 설 되길"



생활불교동구협의회는 1월 21일 광주 동구청을 찾아 떡국떡 50세대분과 쌀 20포대를 전달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불교계의 온정이 전해지고 있다. 사)생활불교동구협의회(대표 대현)은 1월 21일 광주 동구청에 지역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떡국떡 50세대분과 쌀 2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마련된 자비의 떡국은 대표 대현 스님, 봉사단장 묘덕 스님(해원정사)을 비롯해 회원들이 마련한 음식으로 동구청을 통해 지역 차상위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동구지역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곳으로 특히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이 외롭게 설을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노희용 동구청장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에서 지역의 힘든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내달라"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대현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묘덕 스님을 비롯해 동구지역 회원사찰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실상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봉행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는 1월 19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식 및 약사전 중수 회향법회' 를 봉행했다.

지난 2010년 노후된 실상사 약사전의 연목 및 기와의 보수필요성 제기한 이래 4년여에 걸쳐 약사전의 전면해체 보수와 함께 철조 여래좌상의 원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전각내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발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사전에 계신 철불의 부식으로 인한 훼손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철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진행해 이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2013년 3월에는 한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철조여래좌상의 수인이 복장에서 발견돼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불교계 에너지절약 실천 나선다

광주지역 불교계 사찰과 복지시설에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광주광역시와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며, 탄소은행 가입 · 실천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설치비 75%의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 종교시설의 자가용 발전에 대해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월 중 협약식을 체결된 후 광주시는 2월 중으로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2월 모집중
◆개강일시 : 2014년 2월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화제의 신간
힘의 / 원천 / 빠르게 / 배우는
법화경 핵심사상
(법문자료집)

묘법연화경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전이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석가세존의 자비 원력은 우리를 우주의 대 광명으로 끌어들인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법화경은 7권 28품이 전부 69,384자로 구성된 구마라즙 한역본이다.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부처님 그 자체라 이름하며, 이 법화경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아플수도 없는 마음의 애환, 아픔, 슬픔과 고독을 대변해주는 생명의 빛이며, 경제, 사회, 군사, 정치, 종교를 창조한다.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법화경 종요서에서 극찬 하였고, 인도에 용수보살 같은 분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의 보배로운 경이라 극찬 하였다. 그런대 실제로는 법화경의 "핵심적인 사상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이론과 실천이 기름과 찬물과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법화경의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법화경의 모두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법화경핵심사상"에서 법화경 28품의 핵심 요지를 명쾌하게 드러내어 법문 자료와 독송 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집필 하였다.

송월스님 편저 / 신국판 양장본 / 값 15,000원 / 260쪽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세웅스님 역저 / 신국판 / 456쪽 /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나눔으로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 '훈훈'

부산지역 불교단체 이웃과 함께 명절 맞이

설을 맞아 부산지역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설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28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새해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서용교 국회의원, 이종철 남구청장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300명이 참석해 흥겨운 노래자랑과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 전달식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도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 생필품과 청소년들의 희망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 400세대를 방문 훈훈한 이웃사랑도 펼쳐진다. 해운대 대광명사(주지 목종) 사무량회 봉사단은



부산 불교계는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설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영도나눔복지관 설나눔 행사 장면.

용호복지관-희망장학금 전달

보현회-소년소녀가장 교복 마련

두송복지관-독거노인에 음식 전달

설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 조손가정 91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떡국, 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온정을 함께했다. 사무량회는 매월 2회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삼광사(주지 무원) 힐링광장 실버지원단(단장 김영자)은 1월 21일 부산진구 일대 독거노인 20가구에 김치 5kg, 쌀 10kg을 각각 전달했다. 설 이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도 펼치며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는 1월 13일부터~27일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설맞이 소년소녀가장 교복마련을 위한 떡국 판매행사를 실시했다. 판매기금 전액은 불교계 종립학교인 부산 해동중학교,금정중학교, 밀양 홍제중학교 소년소녀가장 25명을 선정하여 360여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은 설을 맞아 지역 저소득층 가정 130세대에 각각 백미 10키로씩을 전달하고, 설날 독거노인 50세대에게 연휴 4일동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과 제수음식을 각각 전달했다.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손운헌)는 설을 맞아 1월30일 금정구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무료급식과 설맞이 양말나눔 활동을 펼친다.

영도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은 지역 저소득노인들에게 제수용품 50가구, 명절선물세트 50가구, 쌀10kg 24가구, 쌀3kg 35가구에 총 159가구, 명절연휴에 먹을 도시락을 총144명에게 전달하고 자비의 온정을 함께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40명 학생에게 총 3천만원 지원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1월 17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9회 연등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40명 학생들에게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사장 법등 스님(군위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영남지역 고교생 20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 2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노동일 전 경북대학교총장은 "지난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있게 해준 그 놈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사색하여 미래를 열여가자. 항상 큰스님의 사랑과 기대를 잊지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사장 법등 스님은 "여러분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21세기의 주역으로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당당히, 희망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연등장학재단은 현재 8억원과 임야 8만2천여평을 출자해 설립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424명에게 총 3억 4천여만원의장학금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대 세계선센터 비로자나불 점안식

정목 스님 힐링콘서트 개최, 독일 본대학과 협약·일본 진출도

선수행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2013년 10월 일반대학 내 전국 최초로 선센터를 개원한 동명대 세계선센터(센터장 수진, 동명대 석좌교수)가 비로자나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 세계선센터는 1월22일 비로자나부처님 점안법회를 개최하고 세계선센타의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 설동근 총장, 불교문화학과 장재진 교수를 비롯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장 수진 스님은 "점안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세계선센타는 명상치유는 물론 심리치유 수료증 수여,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어 스님은 "4월에는 독일 본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 학술교류는 물론 한국불교의 선사상을 보급하고 상반기 중 일본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세계화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은 "세계선센터는 물질적 발달에 맞춰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고 연구하는 인성교육의 상아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명대 세계선센터 비로자나불 점안식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는 3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다. MBSR 명상치유과정과 수진 스님의 선과 힐링 과정이 학부생들을 위한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인성교육과 학점, 자격증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일반인들을 위한 12주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되며 선다, 선요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세계선센터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3월 18일 산학관4층 대강당에서 정목스님을 초청하여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SBS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국민적 호응과 대중성을 얻고 있는 정목 스님을 통해 세계선센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성교육과 선수행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영도구사암련, 기관장 초청 조찬법회

불교활성화 위해 2월 구연합신도회 창립



영도구사암연합회는 1월 20일 신년 조찬법회를 열고 신도회 창립을 선언했다.

영도구사암연합회(회장 호법, 발원사 주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기관장들과 함께 신년조찬법회를 개최했다. 영도구사암연합회는 1월 20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지역발전과 국태민안을 위한 지역기관장 신년조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영도구사암연합회장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김무성 국회의원, 어윤태구청장, 이흥우 영도경찰서장, 이상호 시의원, 황보승희 시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함께했다.

회장 호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그늘진 곳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하시는 불교계에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영도구 사암연합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생, 일반인 대상 템플스테이와 군부대 법회 지원과 후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기관장 신년조찬법회는 올해로 4회째로 개최됐다. 특히, 부산지역 구연합회 활성화에 탄력을 받아 오는 2월 25일 영도발원사에서 영도구연합신도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운사 제 7회 장학금전달식 및 문화체험

소년소녀가장 40명 KBS 방송국 견학도

조계종 16교구 본사 의성고운사(주지 호성)는 안동 KBS 방송국과 공동으로 제 7회 소년소녀가장 중 · 고등학생 장학금전달식과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장학금은 총 40명의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전달됐다.

고운사는 "경북 북부 지역 발전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각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제7회 소년소녀가장 중 · 고등학생 장학금전달식을 갖고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도농간 문화를 교류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고운사에서 사찰체험을 1박한 후 서울 KBS 방송국 견학과 열린음악회 공연관람 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고운사 제7회 장학금전달식 장면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중 · 고생들에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법왕사 백고좌법회 입재…도법 스님 초청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100일동안 1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시작했다. 법왕사는 1월 16일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초청 백고좌 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신라 진평왕 때 시작된 백고좌 법회는 억불정책이 시행된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어졌으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이 지난 1994년부터 다시 계승하면서 영남의 대표적인 대중법회로 자리잡고 있다.

법왕사는 "100회의 강좌를 3번에 나누어 실시한다. 16일부터 시작한 강좌는 총


도법 스님이 새해 첫 법회를 열었다.

26회까지 실시하며, 27회는 5월 13일부터, 28회는 9월 24일부터 법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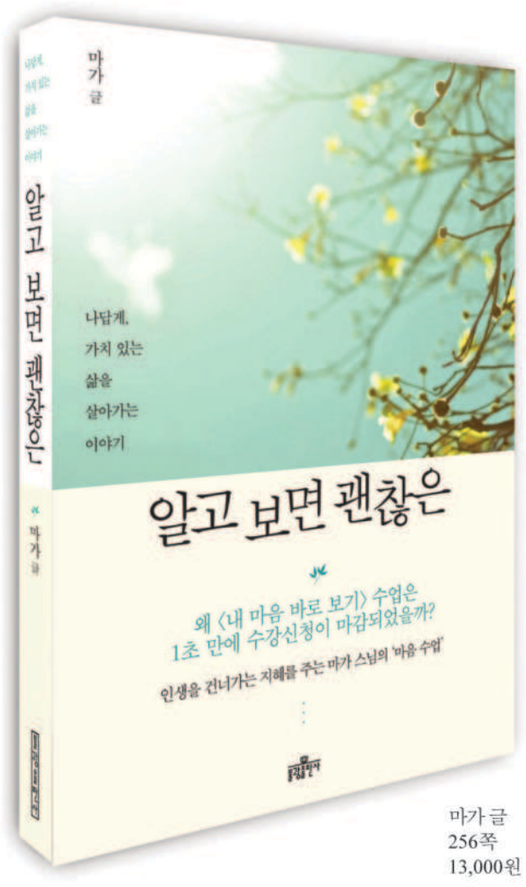
손문철 대구지사장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KBS 아침마당을 따듯한 미소로 물들인
마가 스님의 '인생을 건너가는 마음 수업'

가슴 시린 출가부터 중앙대 최고 인기 강사가 되기까지의 감동 스토리 전격 출간!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함께 넘어졌다 함께 일어나는 갈대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가 사람 덕분에 일어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도 분명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많이 아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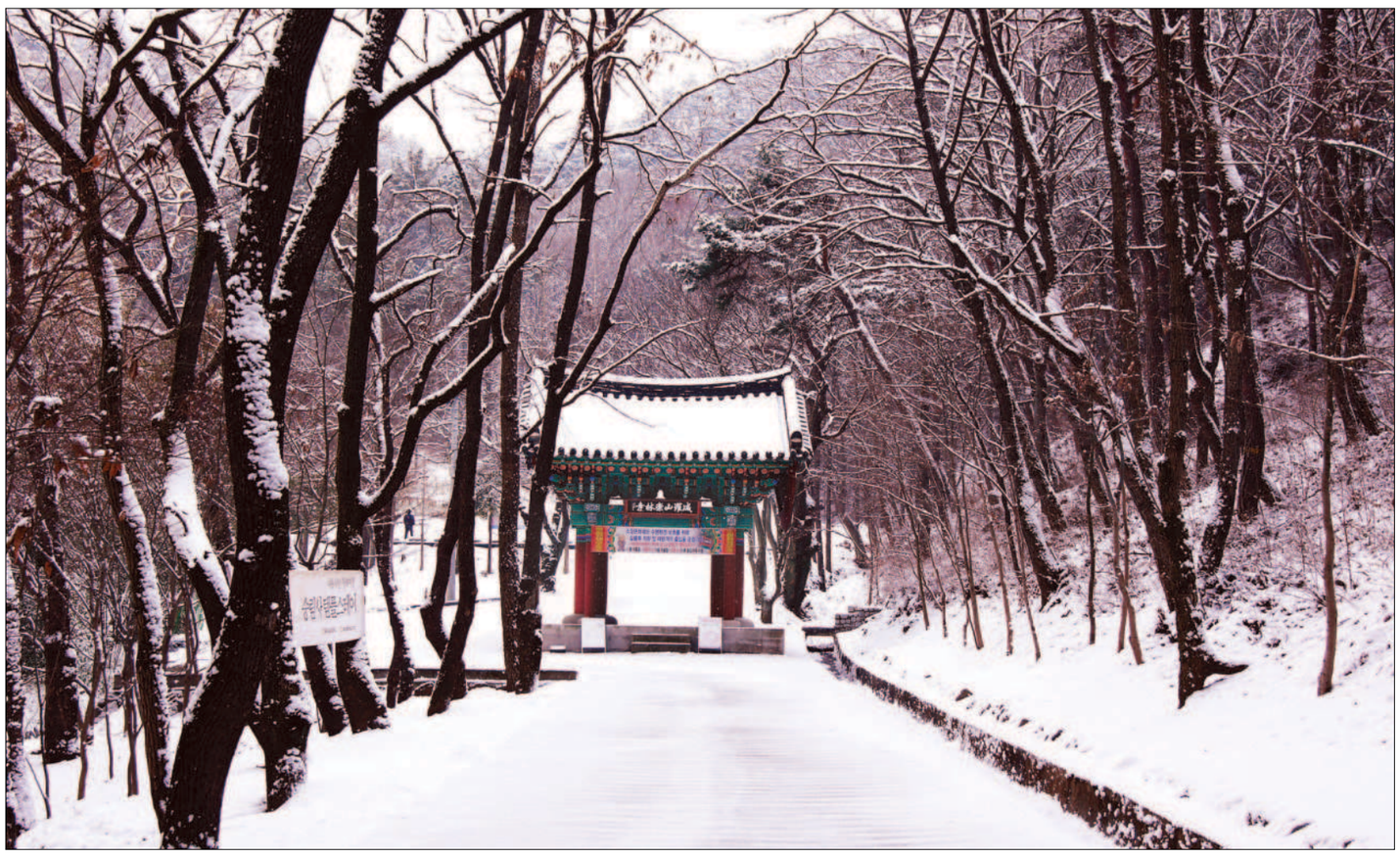
알고 보면 괜찮은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 집중 조명한 화제의 책!

마가 글
256쪽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눈꽃 핀 명상과 치유의 도량… 지친 삶에 쉼표



일주문 들어가는 길에 열병하듯 서있는 벚나무, 은사시나무, 굴참나무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백설은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겨울 정취를 한껏 더 돋워준다.

눈길이 아름다운 산사 - ③ 익산 숭림사

눈덮인 익산 함라산 숭림사를 찾아 가는 길은 마치 오래전에 떠난 고향집을 다시 찾아 가는 듯 설레임과 편안한 마음이 든다. 해탈교 건너 700m 남짓 양옆으로 도열한 듯 서있는 벚나무, 은사시 나무, 굴참나무 사이를 걷노라면 눈꽃나무 사이로 숭림사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제일 먼저 일주문이 보이고 눈모자를 쓰고 고개숙인 대나무들이 순례객을 반겨준다. 들어가는 입구의 눈길이 참 곱다. 고즈넉한 절 숭림사의 매력이다.

숭림사 절이름이 참 재밌다. 달마대사가 중국 숭산 소림사서 9년간 면벽수행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숭산(崇山)의 숭(崇)과 소림사(少林寺)의 림 (林)자를 따서 숭림사라 했다고 한다.

숭림사는 신라 경덕왕(742~764)때 진표율사에 의해서 창건됐다. '익산지' 에 의하면 고려 충목왕 원년(1345년)인 을유년에 행여(行如)선사가 중건했다는 기록도 있다. 숭림사에 보관중인 명문기와 주변에 전해지는 전설 등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최소 고려 1345년에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익산구지(益山舊誌)는 숭림사 보광전을 고려 충목왕 원년(1345년)에 행여선사가 선종(禪宗)사찰로 창건하고 기와를 조성했다는 명문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숭림사가 위치한 웅포는 과거에 서해바다서 금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육지와 바닷길을 연결하는 경제적, 군사적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래서 예로부터 드넓은 호남평야를 침탈하려는 왜구들의 침략이 그치지 않던 곳이다. 삼국시대 때는 당나라 소정방이 이곳 금강을 통해 백제 수도인 공주와 부여로 향하는 진격로로 활용했다. 또한 고려 때는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 왜구 침략을 물리친 진포대첩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 침략에 맞서 싸운 뇌묵 처영대사가 의승병을 이곳 숭림사에 집결시켰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숭림사는 항상 왜구들의 집중공격 대상이었다.

달마대사 수행처 숭산 소림사서 이름 유래
임진 · 정유재란 당시 의승병 지휘소 역할
보광전 속 '또 하나의 닫 집' …조각미 화려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숭림사는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전각들이 모두 소실됐으나 보광전만은 화를 면했다고 한다. 그 이후 숭림사는 10년 만인 광해군 5년(1613)에서야 겨우 우화루(雨花樓)를 중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남아 있는 숭림사 전각으로는 주전각인 보광전외에 우화루 · 정혜원 · 영원전 · 나한전 · 나한전 · 적묵당 · 안심당 등이 있다. 우화루는 보광전으로 진입하는 정문으로, 숭림사의 중심 전면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집으로 〈우화루중수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석덕 스님이 창건한 후 1819, 1855, 1964, 1992년에 각각 중건됐다. 삼면의 벽에는 숭림사 역사를 알 수 있는 숭림사법당중수기를 비롯해 12기의 현판이 걸려 있다. 그 외에도 정교한 조각미가 잘 어우러져 정감을 주는 목어(木漁)와 길이 3.56m, 높이 70㎝인 목구시 하나가 있다

이외에도 숭림사에는 성보 문화재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광전 석가보니불 좌상(전북유형문화재 188호)과 영원전 지방보살 및 권속(전북유형문화재 189호), 나한전 16나한상(전북유형문화재 219호), 청동은입인동문향로(전북유형문화재 67호)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절 한켠에는 유구한 역사를 후세에 알려주는 고승 부도들도 숭림사를 지켜주고 있다.

익산 숭림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쪽 벽화위 화려한 닫집이 돋보이는 보광전 내부

주지 스님이 추천하는 이것만은 클릭

"보광전 닫집 아름다움 만끽하길"



주지 지광 스님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은 불자들에게 보광전 안쪽의 닫집과 진채로 그려진 벽화만은 꼭 보고 갈 것을 추천한다.

"보통 관람객들이 부처님께 참배만 하고 돌아 나오는데 고개를 들어 한번 올려다 보세요. 닫집과 용조각, 진채로 그려진 벽화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보는 이들마다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조각기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배지붕 형식의 보광전(보물 825호) 내부에는 용과 구름, 극락조가 조각 된 아름다운 닫집이 있다. 건물 안쪽은 보 끝에 용머리를 조각해 놓았고, 기둥 윗부분에는 연꽃, 용의 몸, 극락조가 화려한 모양으로 장식돼 있다. 화려하지 않고 단아한 외부 장식과는 달리, 보광전 내부 장식은 화려함이 돋보인다.

"목조각 예술의 극치를 상징하는 닫집은 연꽃과 구름 용 등이 서로가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 퇴색한 단청 색이 오히려 닫집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켜 주지요. 특히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를 감상해 보세요. 다른 절에서 느낄 수 없는 벽화의 진수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숭림사 '방하착 템플스테이' 인기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지정 4년째를 맞고 있는 숭림사 방하착 템플스테이는 3년간 4,00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방학중 열리는 청소년 인성교육템플스테이는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참가학생을 제한해야 할 정도다. 또 원광대에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 템플스테이와 동남아 출신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여성 대상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불교전통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최장수 마을로 유명한 송천마을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와 예로부터 용왕제로 유명한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는 지역축제와 효과적으로 연계한 템플스테이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063)862-6396

여행수첩

〈주변 볼거리〉

¡ **미륵사지 석탑** / 백제 무왕대 건립된 한국 최초의 석탑으로 현존하고 있는 국내 최고,최대이며, 석조건축술 역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해체과정에서-금제사리호와 연주, 유리구슬류등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금제사리호는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의 백미로 꼽힌다. 3월 31일까지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전이 열리고 있다.

¡ **최북단 녹차 자생지** / 대한민국에서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있다. 해마다 가을이면 국제 차문화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 **웅포곰개나루** / 서해낙조 5경지 가운데 한 곳이다. 오래전부터 방생지로 유망한 용궁사터이다. 덕양정에 올라 내려다 보는 금강은 마치 곰이 새끼를 품은 듯하고, 금강 하류지역으로 겨울 철새의 군무와 어우러져 해가 강물로 가라앉는 모습은 장관을 연출한다. 곰개나루에서 유람선이 운행된다. (대인 8천원 소인 5천원)

¡ **신성리 갈대밭** / 서천군과 군산시가 만나는 금강 하구에 펼쳐져 있는 갈대밭으로, 너비 200m, 길이 1.5km, 면적 10만여 평이 넘을 정도로 규모다. 옛날 곰개나루터(진포)라고 불렀던 곳으로, 한국의 4대 갈대밭으로 꼽히는 동시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갈대 7선에 속한다. 각종 교육기관의 자연학습장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교통편〉

대중교통 / 익산시내에서는 함열을 거쳐 숭림사 앞을 지나는 42, 47, 36, 35-1번 시내버스가 약 3시간 간격으로 있다. 숭림사 가는 길은 웅포행 버스를 이용해 숭림사 앞에 하차하거나, 웅포파출소서 내려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어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승용차편 /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군산 IC에서 724번 지방도를 따라 나포로 진입하는 길이 빠르고 찾기도 쉽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IC에서 좌회전하여 724번 지방도를 따라 나포로 진입하는 길이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IC에서 좌회전하여 23번 강경방면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그 곳에서 다시 711번 용안방면 지방도로 진입하면 숭림사 표지판이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우회전하여 722번 익산 · 금마 미륵사지를 거쳐 724번 도로를 따라 오면 된다.

아미타부처님께서 남섬부주 대한민국 현지사 대전분원에 나투시다!!

현지사 대전분원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주하는 미타성전으로서 모든 염불행자를 극락정토로 이끌어가는 정토의 관문입니다.



어느날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억종광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쭈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가정이 편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리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아미타부처님 재일행사 : 매월 음력 5일. 오전 9시 30분
영산불교 현지사 대전분원 전화 042)525-5325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팩스 042)525-5035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왜 불교인가

대현 김주영 저 (672쪽, 가격 20,000원)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장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진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여있는 역작이다.

* 현지사에서 구입하시거나 운주사 및 교보 문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탑의 진화

③ 사리의 분배와 근본8탑

'사리팔분' … 불탑조성의 시작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한 후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는 8등분 되어 여덟 지역에 각각 사리탑으로 조성되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차지하려고 주변 여덟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의 기미가 보였고, 이를 8등분하여 각국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사리, 또는 사리8분이라고 한다.

결국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하여 여덟 지역에서 사리탑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 각국으로 전파되어 지속적인 불탑 건립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행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후에 다비식이 끝나자 많은 사리가 나왔다. 이 사리에 대하여 8국의 왕이 군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하였다. 전쟁 직전에 향성 바라문은 여러 대중들에게 그 같은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님을 말하고, 부처님이 사리를 남긴 이유는 널리 이익 되게 하고자 하였으니 서로 화합해서 사리를 분배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향성 바라문은 부처님의 윗 어금니를 따로 집어 아사세왕에게 봉안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리를 팔등분하여 각국에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사진1〉**

이때의 8국은 구시국 · 파파국 · 차나국 · 라마가국 · 비류제국 · 가유나위국 · 비사리국 · 마갈국을 말한다. 이 때 향성 바라문은 사리를 담은 병을 얻어 자기 집에 병탑을 조성하고, 필발촌 사람들은 다비하고 남은 재를 얻어 회탑을 조성하였다."〈大正藏 1〉, p.29, 하)고 전하며, 부처님 생시의 생시발탑을 포함하여 열한 개의 탑이 조성되었다고 〈유행경〉에는 기록되어있다.

이 외에도 사리팔분에 대하여는 많은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바, 아함부의 〈유행경〉과 다른 이역본으로 간주되는 〈불반니원경〉, 〈대반열반경〉, 〈반니원경〉의 한역 경전과, 〈디가니카야〉 등이 있으며, 본연부의 경전에는 〈대승비분타리경〉, 〈불소행찬〉, 〈불본행경〉, 〈잡비유경〉 등에 설해지고, 화엄부 경전에는 〈대방광불화엄경〉에 사리8분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열반부에 속하는 경전에도 〈대반열반경후분〉, 〈마하마야경〉, 〈보살종두술천강신모태설광보경〉,〈연화면경〉등에 보이며, 대집부에는 〈대방등대집경〉, 〈관허공장보살경〉에 사리팔분에 대한 경설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내용의 차이를 도식하면 **〈표〉**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사리를 분배한 중재자의 지위는 대부분의 '아함부' 경전에 바라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불반니원경〉에는 '여덟 왕이 사리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불탑을 조성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제석천이 범지로 화현' 했다.(大正藏1, p.175, 하)고 하여 중재자의 지위를 한층 높여 사리팔분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중재자의 이름도 〈유행경〉에는 '향성(香姓)', 〈반니원경〉에는 '모궐(毛蹶)', 〈불반니원경〉에는 '둔굴(屯屈)', 〈대반열반경〉과 〈디가니카야〉에는 '도로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근본8탑 외에 〈대반열반경〉과 〈디가니카야〉에는 '숯탑' 과 '재탑' 을 더하여 최초 10탑이 조성되었다고 기록된 반면에 〈유행경〉에는 최초 사리를 담았던 병탑, 숯탑, 털탑의 11탑이, 〈불반니원경〉에는 병탑과 숯탑, 재탑을 합쳐 11탑이 조성되었다고 설한다.

이처럼 사리를 두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당시 국가 간에 초미의 관심을 끌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당시 석가모니부처님은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는 점과, 정교 분리의 분위기 속에서 수행의 완성자를 존경하여 이상화했던 그 당시 종교문화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사리팔분에 대하여는 전하는 경전마다 내용상 차이가 많이 있지만 불탑조성의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리팔분에 의하여 처음 조성된 8개의 불탑을 근본8탑이라고 한다.

근본8탑 가운데 현재 분명하다고 전해지는 것은 두 개 뿐이다. 피프라와의 불탑과 바이살리의 릿차비 불탑이다.

피프라와 불탑은 1898년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부근 피프라와(Piprahwa) 지방에서 그 당시 땅의 소유주였던 영국인 윌리엄 클랙스턴 펩페(W.C Peppe)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이 파프라와 불탑은 현재 높이가 약 9미터이고 둘레가 약 39미터에 달하는 벽돌로 쌓은 층급식 원형탑이다.**〈사진2〉**

처음 발굴 할 때 대리석으로 만든 돌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꽃병 3개와 많은 보석들과 함께 5개의 사리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사리기에 브라흐미 문자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사진3〉** 그

〈사진1〉



석가모니부처님 열반 후 부처님의 사리는 8개 나라로 나누어 전해졌다. 그리고 각 나라에 서사리를 모신 불탑을 세웠다. '사리팔분' 이라 한다. 사리팔분을 묘사한 벽화.

〈사진2〉



근본8탑 중 현존하는 것은 2기뿐이다. 그 중 하나인 파프라와 불탑.

〈사진3〉



파프라와 불탑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사리기.

〈사진4〉



파프라와 불탑 2차 발굴 당시 출토된 동석 사리기.

〈사진5〉



현존하는 근본8탑 2기 중 하나인 릿차비 불탑의 기단부.

사리팔분에 의한 근본 8탑 조성

숯탑과 재탑 더해 10탑 조성설

병탑 포함한 11탑 조성설

사리팔분(쟁탈)은 부처님 위상 반증

당시 정 · 교분리 속 종교문화의 영향

근본8탑 중 파프리와 불탑과

바이살리의 릿차비 불탑 2기만 현존

〈사진6〉



릿차비 불탑 기단부를 보호하기 위해 양철지붕을 만들어 놓았다.

〈표〉사리8분의 경전 내용 비교

구분	유행경		반니원경		디가니카야		불반니 원경	대반 열반경
	국가	종족	국가	종족	국가	종족	국가	종족
1	파파국	말라민중	파순국	화씨	빠와	말라	주변8	주변8
2	차라국	발리민중	가락국	구린	웨타디빠	바라문		
3	라마가국	구리민중	유형국	만리	라마가마	꼴리야	나라	나라
4	비류제국	파라문중	신주국	범지	알라깝바	불리		
5	가비라위국	석종민중	적택국	석씨	까팔라왓투	사꺄		
6	비사리국	이차민중	유야국	이차	바이샬리	릿차비		
7	마갈국	아사세왕	마갈국	아사세왕	마가다	아자타 삿투왕		
8	구시성	구시왕			꾸시나라	말라		
중재	향성		모궐		도나		둔굴	도로나
탑수	11탑		11탑		10탑		11탑	10탑
비고	병탑, 숯탑, 생시털탑		숯탑, 재탑, 항아리탑		*		병탑,숯탑,재탑	숯탑, 재탑

내용을 판독한 결과 '깨달은 성자의 유골을 모신 이 사리함은 석가모니의 형제자매와 그 처자들의 소유에 속한다.' 라는 뜻의 내용 있었다. 이것으로 위에서 말한 사리8분설에 입각한 석가족이 세운 근본8탑 중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1970년대에 들어와 사리기의 진위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원래 소유자인 펩페의 후손들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1971년 인도의 고고학자인 K.M 스리바스타에 의하여 이 탑은 재차 발굴조사 되었는데, 동석으로 된 사리기가 출토되었다.**〈사진4〉** 이 사리기 안에서는 석가족의 유골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뼈가 발견되어 근본 8탑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마경을 설하신 곳으로 잘 알려진 바이샬리에는 유명한 불탑 2기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쇼카 대왕이 조성하였다는 아난다 스투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이샬리국의 릿차비 종족이 세운 사리팔분에 의한 근본팔탑이다.

이 릿차비 불탑은 레릭 불탑이라고도 부르는데, 1957~8년 아르데카르 박사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이 때 높이 5.2cm, 지름 4.9cm의 작은 사리병과 많은 유물이 출토 되었다. 사리병에는 '부처님의 사리' 라는 기록은 없었지만 출토 상황과 불탑의 기단부 구조**〈사진5〉**로 보아 석가모니 열반 직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리병은 인도 파트나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현재는 기단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양철로 둥근 지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사진6〉** 하지만, 안내문에 의하면 원래 이 탑은 기원전 5세기 마우리야 왕조 시대에는 높이 약 8m의 진흙으로 만든 작은 탑이었던 것을 슝가왕조와 쿠샨왕조를 지나면서 4번에 걸쳐 벽돌로 증축하여 12m 높이로 수리하였다고 전한다.



글 · 우인보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13cm)

연화만월등 (30cm)▶
판매가 200,000원 (100개)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 색상 : 주황,빨강,노랑,분홍,초록
할인가 13,000원 (12개이상)
정 가 15,000원
• 1BOX : 6개 • 등지름 : 35㎝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 6,000원
※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30,000원
판매가 10.5cm 40,000원

▼10.5cm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 색 상 : 진분홍, 연분홍, 빨강, 하늘색, 노랑색, 흰색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6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6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A형(100개) 170,000원
• 비닐만월등B형(100개) 16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8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90,000원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250원/@3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옆잎
6,000원/ 7,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사회 변혁의 의지, 깨달음의 열망으로 변화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② 출가 · 오도처 백담사와 오세암



백담사 만해기념관 전경. 백담사는 만해 스님의 출가 사찰로 이곳에서 많은 저서와 문학작품을 저술했으며, 수행자로서 정진한 곳이다.



1997년 백담사 만해기념관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만해 스님의 오도처인 오세암 전경.

1890년대 조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1895년에는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동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세력 강화를 획책한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한 나라의 왕비를 시해하고도 관련자 48명은 본국으로 소환돼 무죄 방면됐다. 결국 을미사변은 항일의병활동의 원인과 아관파천(俄館播遷)의 계기가 됐으며, 한국은 러시아의 보호국과 같은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유천(만해 스님 아명)은 길을 잃고 있었다. 왕후의 시해 사건으로 전국에서는 의병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본인도 홍주 의병에 참가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는 청일 전쟁이 발발했고, 나라가 망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더 이상 유천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한학(漢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남달리 모험심과 개혁의지가 강한 유천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볼 수 없었다. 결국 그런 소문이 흘러나오는 한양을 향해 유천은 발걸음을 옮겼다. 무작정 집을 나와 한양으로 가던 중 오랜 노독과 굶주림에 지쳐 수원 어느 주막에 들어 하룻밤을 보냈다. 주막에서 주린 배를 채우고 누워 유천은 곰곰이 생각했다.

"빈손에 한학의 소양밖에 없는 내가 무슨 힘으로 나라 일을 도우며 큰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양에만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가."

유천의 고민은 곧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화두로 바뀌었고, 서울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속리산 법주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설악산에 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백담사로 향하게 된다.

만해 스님의 출가 시기에 대해서는 19세와 27세 등으로 나뉜다. 이중 기록상 확인되는 정확한 출가 시기는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이를 차제하더라도 유천이 출가하는 데에는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물음이 작용했고, 이는 10대 때부터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실제 만해 스님이 1930년 〈삼천리〉에 기고한 '나는 왜 중이 되었나'를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다.

영영일야(營營日夜)하다가 죽으면 인생의 무엇이 남나. 명예냐, 부귀냐? 그것이 모두 아쉬운 것으로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모두가 일체 공(空)이 되지 않느냐. 무색하고 무형한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내가 글을 읽고 무엇 때문에 의식(衣食)을 입자고 이 애를 쓰는가 하는 생각으로 오륙일 밥을 아니먹고 고로(苦勞)하던 일이 있었다. 이에 나는 나의 전정(前程)을 위해 실력을 양성하겠다는 것과 또 인생 그것에 대한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는 불 같은 마음으로 한양 가던 길을 구부리어 사찰을 찾아 속리사로 갔다가 다시 더 깊은 심산유곡의 대찰을 찾아간다고 강원도 오대산의 월정사까지 가서 그곳 동냥중, 즉 탁발승이 되어 불도를 닦기 시작했다.

도인을 찾아 심산유곡의 산사를 찾아 유천이 당도한 곳은 설악산 백담사였다. 백담사에서 자리를 잡은 유천은 탁발승으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1905년 1월 26일 만해 스님은 당시 백담사 주지 연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으며, 전영제 스님에게 수계를 받았다. 법명은 용운(龍雲)이었고, 법호는 만해(萬海)였다. 이후 만해 스님은 백담사 이한암 스님에게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 등의 경전을 배웠다.

불법의 진리에 흠뻑 빠져든 스님은 1907년 강원도 건봉사에서 첫 수선안거를 마쳤으며, 계획한 세계 여행이 실패한 이후에는 안변 석왕사 등을 전전하며 수행을 하다 이듬해에는 유점사에서 서월화 스님에게서 〈화엄경〉을 수학한다.

만해 스님은 선 · 교에 모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출가한지 꼭 4년만 인 1909년 7월에 강원도 표훈사 불교 강사로 재직하면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1913년에는 대찰(大刹)이었던 양산 통도사의 강사에 취임했다. 교학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불교강구회(佛敎講究會)' 회장을 36세에 역임하고 〈불교대전〉을 편찬한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18세부터 전국 유랑하다가
1905년 백담사서 공식 출가
1917년 오세암서 '大悟覺醒'

禪 · 敎에 밝아… 대중불교 지향
"어느 곳에서도 참선할 수 있다"
깨달은 후엔 생활선 운동 강조

수좌로서도 만해 스님은 꾸준한 정진을 놓지 않았다. 건봉사에서 첫 수선안거 이후 스님은 지속적인 참선 수행을 해왔으며, 10년이 되던 1917년 12월 3일 밤10시 경 오세암에서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스님은 이 같은 오도송을 남긴다.

'男兒到處是故鄕(사나이 가는 곳마다 바로 고향인 것을)/幾人長在客愁中(몇 사람이나 나그네 시름 속에 오래 젖어 있었나)/ 一聲喝破三千界(한 소리 크게 질러 삼천세계 깨뜨리니)/ 雪裡桃花片片紅(눈 속에도 복사꽃이 펄펄 날린다)'

견성한 이듬해인 1918년 만해 스님은 서울로 올라와 월간지 〈유심(唯心)〉을 창간해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된다. 문학인으로서 창작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럼에도 만해 스님은 선 수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 〈삼천리〉의 기획기사인 '당대처사 방문'의 만해 스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 시기 스님은 사찰에서 나와 심우장에 기거하면서 비승비속의 삶을 살 때이다.

'불당(佛堂)같은 심우장에 칩거하는 것은 답답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해 스님은 "틈만 있으면 정좌하고 속념(俗念)에 물러나 참선하는 것이 매일 중요한 일과"라면서 "조용하고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몇 십 분이고 몇 시간이고 하게 된다. 그러나 아침 일찍 세수한 다음 저녁밥이 지난 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같이 참선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만해 스님은 불교의 수행법인 참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는 스님이 만년에 기술한 '조선불교의 개혁안'이나 '선과 인생' 등의 저술들을 통해 스님의 참선관을 엿볼 수 있다.

불교의 대상은 물론 일체 중생이다. 이것이 불교의 이상이므로 불교는 일체 중생의 불교요, 산간에 있는 사찰의 불교가 아니며, 계행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승려만의 불교가 아니다.〈중략〉 '산문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 가 현금 조선불교의 '슬로건' 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참선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필요한 일이다. 선은 전인격의 범주가 되는 최고의 취미요 지상의 예술이다. 선은 마음을 닦는 즉 정신수양의 대명사이다.

〈증보 한용운 전집2(1979, 신구문화사)에서 발췌〉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만해 스님은 '대중불교'와 '생활 속의 참선'을 강조한 것이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한용운의 대중불교?생활선과 구제주의?입니입수' 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산중 불교가 아니라 도회지로 나와야 하는 불교, 전 중생 및 대중을 위주로 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게 만해 스님의 지론"이라며 "이런 입론에서 스님은 선 수행을 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당연히 구세주의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 관점에서 본 그의 삶은 대중불교, 입니입수하는 구제주의의 실천의 다름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그가 지적한 깨달음 이후에는 반드시 대중불교로 나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현실을 여의지 않고, 번뇌 중에 보리를 얻고 그를 실천해야 한다는 대중불교의 실천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출가지인 설악산 백담사와 오도처인 오세암은 만해 스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 불교를 접하고 수계를 받았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혼란한 세상으로 나아가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지금도 백담사를 찾으면 스님의 흉상과 시비, 기념관을 통해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접할 수 있다.

개혁가이면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 민족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만해 스님의 가장 깊은 심상에는 '불법(佛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해 스님이 제시한 '대중불교'와 '생활 속의 참선'이라는 두 가지 화두는 지금도 유의미한 것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학기중 특강예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내 부처를 찾지 못하면 나를 몰라

철야정진법문 ③

이거 딱 알아버리면은 내라 하는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 말이여. 이 자리 알면 여러분 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니 이번 설법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견성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사실 귀찮을지도 모르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멱살을 잡더라도 말이지 견성을 못하면 십년이라도 이 문 밖에 못 나갑니다. 견성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성품 없다는 거 이거 과학적 아니에요? 귀에 성품 없다는 거, 지혜 없다는 거 과학적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콩팥을 갖다가 이리 저리 옮기고 눈알 같은 것도 빼서 다른 사람 주대요. 만약 그것이 자체의 지혜가 있어 보소. 그 놈의 눈깔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가서 그대로 있겠는가. 난리 날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그 콩팥이 자체의 지혜가 있다면 난리 납니다. 나는 내 주인 찾아간다 이래 하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뭣을 알라 합니까? 차라리 삼승도리를 믿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첩니다. 다른 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구한다면은 사도 중의 사돕니다. 부처도 이 자립니다. 보살도 이 자립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이 좀 지나쳤습니다만 앞으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습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틀리지는 않거든요. 틀리지는 않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데 실감이 안 나는데, 하하하. 여러분들이 실감이 가나 안 가나 좌우간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까 싶습니다. 아는 분은 물론 압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서울에 숯을 한 댓 가마니 준비해서 불 피워야 되겠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숯 값이나 조금씩 다 내도록 그리 하도록 합시다. 시간 됐는가? 딱딱딱(죽비 치는 소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절을 하네.

백봉 선시집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런 책을 쓰라면 못 쓸 거예요. 책이 한 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내 소견에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택했습니다. 책이니 뭣이니 그만 두고 부처님도 그만 두고 나도 그만 두고 팔만장경이니 뭣이니 전부 그만 두고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인간이란 뭣고, 이거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건 뭣인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이건 내 일이거든요. 좌우간 여러분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알아야 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수천만 명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수만 명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 왜 없어요? 내가 있고 니가 있는데 부처님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부처님을 아는 도리가 있어요. 이 도리를 지나지 안 하면 절대 부처님 못 만납니다. 이 도리를 지나면 그대로 부처님 만날라면 마음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도리고? 내 부처를 찾을

> **죽어도 내가 죽고**
> **살아도 내가 사는 걸**
> **알아야 됩니다**
> **별 도리가 없습니다**

줄 알아야 남의 부처를 찾습니다. 내 부처를 알아. 알면 남의 부처를 알아. 관세음보살도 알게 되고 문수보살도 알게 되고 석가모니불도 알게 되고 다 알아. 연등불도 알게 되고 아미타불도 만나게 되고. 바로 내 부처를 딱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는 건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참말로 얘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가 영 달라집니다. 아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런 말 했는데 이거 어찌 거짓말인가요? 이것이 남의 일인가요? 죽는 것, 남의 일인가요? 나는 것, 남의 일인가요? 또 우리가 부처님을 안다, 부처님을 존경한다 말이죠. 내가 존경하지 남이 존경하나요?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 말이지. 내가 믿지 않는 거지 남이 믿지 않는가요? 결국은 내가 주장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내 조계사에서도 한 말이, ..불교니 이런 말이 있는데 전부 이타적으로 쏠려버려. 부처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없어요? 내가 있는데 부처님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내 부처를 내가 찾아. 내 부처를 내가 찾아서 아는 동시에 남의 부처도 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내 부처를 찾아야 비로소 남의 부처도 알게 된다. 이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부처 모르고는 남의 부처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보살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보살이 있어도 몰라. 우선 내 부처를 찾지 못하면 나를 몰라.

어쨌든지 나를 모른대야 말 다 한 거 아니라요? 부처님을 알든 모르든 그건 별 문제로 하고 내 자신을 모른대야 그 이상 뭐라고 말할 거여? 그러나 요새는 아는 도리가 있어. 이전에는 참 연구 많이 해서 그야말로 각성을 해야 지구 둥근 줄을 알게 되고 이것이 헛거란 걸 알았어. 그런데 요새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뭣이다, 이걸 알아야 남의 부처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자 할 것 같으면 내 부처를 안 찾을래야 안 찾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찾긴 찾아. 찾긴 찾는데 여러분들이 부처인 줄 모를 따름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고? 아까 말하기를 내가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눈이 보는 것 아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여. 눈에 비치긴 비쳐. 거울 역할을 해요. 그러나 거울에는 내 얼굴이 비치지만 거울 자체는 날 모르거든. 자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참말로 문제 아닌데 자꾸 딴 데 찾아다닌다 말이지. 무슨 소리를 들어. 들었어. 그렇지만 귀 자체가 듣는 건 아니거든. 귀 자체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날 건드려. 건드는 줄 알아. 허나 이 살덩어리는 모르요. 지혜가 없거든. 왜 내가 이런 말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요새 의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의사들에게 물으면 당장 압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왜 부처님을 존경하고 떠받드나

4-2. 귀경례

불이란 이를 설명하는 소리다. 항상 그 자체가 커다란 지혜의 광명을 발하면서 어디까지나 평등하고 아무 삿된 것이 없이 순결하고 자유자재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무데서고 영향을 받지 않는 행동 그 자체를 각이라고 한다. 각은 자기가 알고, 남에게 알도록 하고, 안 것을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아무런 망녕된 생각이 없으므로 그 생각이 정당하고 광대(廣大)하여 저 허공과 같고 지혜의 광명은 우주의 어느 곳에라도 안 가는 곳 없이 두루 다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이익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는 환원(還源)의 뜻에서 소귀일심(所歸一心)이라고 한 마음에 돌아가는 바이며,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성스런 생각에 돌아간다는 소리다. 자기의 지성스런 생각에 돌아간다고 할진대 그 지성스런 생각이란 것이 다름 아니라 밝고 바르고 사이좋은 것이 불법승(佛法僧)의 참된 뜻인즉 바로 거기 삼보(三寶)에 돌아간 것이 된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대문이다. 우리의 생각의 바탕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원바탕인 즉은 광명, 정대, 화합한 그 자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를 오직 한 마음, 유일심(唯一心)이라 부르고 그 자리를 안 것을 유일심관(唯一心觀)이라고 한다.

지심귀명례하고 나서 삼계대사(三界大師), 사생자부(四生慈父), 대은교주(大恩教主)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바의 덕을 나타낸 말이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절할 것인가? 지금 그 장소를 정하는 바이다.

바로 그 자리가 삼계대사며 사생자부며 대은교주라는 것이다. 대은(大恩)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인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불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지덕(智德)과 단덕(斷德)과 은덕(恩德)을 들 수 있다. 지덕은 부처님이 모든 지혜(智慧), 반야(般若), 지식(知識), 위즈덤을 다 구비했다는 것.

단덕(斷德)이란 일체의 번뇌(煩惱), 망상(妄想), 세속(俗世)의 인연(因緣)을 끊는 용단(勇斷)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자기가 구도(求道)하는 데 있어서는 처자(妻子), 권속(眷屬), 왕위(王位)등 일체를 내어던지고 심지어 목숨조차도 아까워



일제강점기 효당 스님이 주석하던 다솔사. 민족정신의 산실이기도 했다.

하지 않는 용기를 지니시었던 분이다.

그러나 지덕(智德)이라면 그런 것은 철학자(哲學者)라도 가질 수 있고, 단덕(斷德)은 대장부(大丈夫)라면 갖출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두 가지의 덕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류의 대지도자(大指導者)가 될 수는 없다.

은덕(恩德)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부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석가모

>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 **큰 은혜를 베푸셨다**
> **모든 번뇌 · 망상**
> **온갖 죄악에 싸여 있는**
>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
>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니불(釋迦牟尼佛)은 거금(距今) 2천5백년 전의 어른이며 또 그는 인도 사람으로서 우리와는 피도 다를뿐더러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도 우리가 왜 떠받드는 것일까? 그것은 이 분이 그의 온갖 정력(精力)과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만인류(萬人類)를 위해서 베푸셨다는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격하기 때문이다.

은혜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어서는 안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이다. 똥가루 서말을 먹으면서 길러낸다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베푸시어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진 자리에는 자신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에 우리를 눕히시며 길러낸 그 은혜를 생각해 볼라치면 구비 구비 뼈에 사무치고 심정이 뭉클하게 울리어 오는 것이 있으리라.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감격이 따르게 마련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크다. 어리석고, 못생기고, 철없는 짓을 하고, 모든 번뇌, 망상, 온갖 죄악에 싸여 있는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석가(釋迦)는 족성(族姓)이고 성(姓)은 고오담마(Godumma) 모니(牟尼)는 성자(聖者)라는 말이다.

그리고 다시 불(佛)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색(色)이 무애(無碍)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다. 색이 즉 빛이 무애하다는 말은 스스로 깨치고 남을 깨치도록 한 그 색신이 참으로 묘하다는 것.

둘째는 각행(覺行)이 자재궁만(自在窮滿)하다는 것. 이것은 앞에 말한 바 있지만, 탄색용승(歎色用勝)이라고 하여 그 색의 용(用)이 형식적이거나 관념적(觀念的)인 데에 빠지지 않고 실사회(實社會)의 현실적인 그 공용(功用)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 이렇듯 색의 용(用)이 아주 수승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 어떠한 일에 맞붙더라도 이기지 않는 적이 없다. 언제나 늘 이긴다. 이렇듯 색덕(色德)을 읊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 **법당엠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셋트 추가 무료보시**
-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모든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이 될 것입니다!!
(보시품으로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 • •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 • •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성능
지 향 성 : 단일 지향성
주파수특성 : 50-14.000Hz
대 응 강 도 : -35±1dB
출력 임피던스 : 500옴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발 송 : 입금 후 주소를 Fax나 문자로 주시면 3일 이내에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주문처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TEL 02)2697-9976 / FAX 02)2601-8284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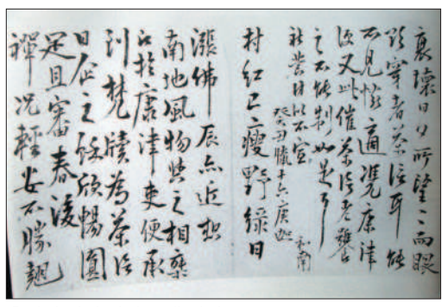
“지혜를 멀리까지 주십시오”

추사는 초의가 보낸 차포를 받고 한껏 들떠 있었다. 초파일이 가까워진다고 하였으니 초의가 보낸 차는 새로 만든 것인가 보다. 이 편지는 그가 병완(病阮)이란 호를 쓴 것으로 보아 과천 시절에 보낸 것이라 짐작된다. 날로 쇠잔해지지만 차는 그를 웃음 짓게 한 물품이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촌마을의 붉은 빛은 이미 시들해졌고, 들에는 푸름은 날로 성해갑니다. 초파일이 또 가까워지는데, 남녘의 풍물은 서로 더불어 특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강진의 아전 편에 그의 편지를 받으니 차와 편지는 날마다 기다리던 것이라서 기쁘고 흡족합니다. 또 살펴보니 봄 이후 수행하는 자리가 가볍고 편안하다니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늙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떨지요.

여기 날로 쇠잔해지는 사람이 본다면 돌의 정수와 소나무의 기골과 같고 다름이 없을 듯합니다. 속세의 주변의 변화를 겪지 않도록 지혜를 멀리까지 떠 부어 주십시오. 나의 상황은 털끝만큼도 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묵은 나무와 돌에 의지하여 원통함을 안고 궁벽한 산에 있으니 출세간에 사는 사람은 다만 슬프고 민망할 뿐입니다. 차포는 눈을 뜨이게 합니다. 요즘은 오로지 이것(차)에 의지해 지냅니다. 멀리서 온 이 차포꾸러미가 웃음 짓게 하는 것이니 반듯이 이근원통(耳根圓通)에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이 침침하여 이만 줄입니다. 16일 병완

(村紅已瘦 野綠日漲 佛辰亦近 想南地風物 與之相槩 卽於康津吏便 承到梵牘 爲茶信日企之餘 欣


추사가 과천 시절 보낸 편지

초의의 차포 선물에 한껏 들떠
“날마다 기다리던 것이라 흡족”

暢圓足 且審春後 禪況輕安 不勝翹喜 以邇來皺白果何如 以此日以衰朽者觀之 似無異同石髓松骨 不當作世諦邊遷流變 知遙遙 ❸注 俗狀毫無可聞 依舊木石抱寃窮山 使出世間者 適足悲憫而已 茶包眼開 近日專以是依賴 荷此遠副 可笑處 必不入於耳根圓通 第此一告之 眼花不式 旣望 病阮)

이 편지는 봄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때에 보낸 듯하다. 그가 ‘들에는 푸름은 날로 성해’ 간다는 것이 그렇고, ‘초파일이 또 가까워지는데’ 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강진에서 온 아전 편에 초의의 편지와 차를 받았다. 따라서 초의의 편지는 추사의 말처럼 ‘날마다 기다리던 것이라서 기쁘고 흡족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갑인 이들이 더욱 쇠락해져가는 모습은 ‘날로 쇠잔해지는 사람이 본다면 돌의 정수와 소나무의 기골과 같고 다름이 없을 듯’ 하다는 곳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이렇듯 늙어가지만 초의 수행이 평안하고 가벼워졌다는 소식엔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 었던 추사였다.

진정 우정은 그런 것이다. 늘 마주하여말할 수 없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은 지척에 있는 듯했다. 그래서 멀리서 온 편지는 더욱 가슴 가득 감동이 일었으리라. 이런 마음을 전하고, 전해 받았던 벗이기에 차를 만든 초의는 강진의 아전이 상경한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새로 만든 차는 자신을 잊지 못하는 벗, 추사에게 제일 먼저 보냈을 것이다. 더구나 만년의 추사는 불교의 연구와 차에 의지해 쓸쓸한 세월을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에게 차는 근심을 없애는 망우초(忘憂草)였던가.

그의 눈을 밝게 뜨게 하는 차포는 멀리 대흥사에서 초의가 보낸 햇차였다. 속세의 속절없는 변화는 이익에 밝은 사람들의 변화이고, 또 다른 한 편은 흘러가는 세월일 게다. 멀리서 온 차포만이 추사를 ‘웃음 짓게 하는 것’ 이라서 아마도 이근원통(耳根圓通)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은 관세음께서 중생들은 이근(耳根: 귀뿌리)이 총명하므로, 청각의 언어를 통해 이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차만을 좋아하는 자신은 수행의 진리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니 그의 차벽(茶癖)은 이처럼 깊었던 듯하다. 추사의 산뜻한 이 위트는 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품위이고, 격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세계속에 한국불교 꽃 피우자” 영어로 법회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포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포교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에게 묻고 어른들이 원하는 건 어른들에게 물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상대를 위해 나를 낮추고 끊임없이 비우고 사는 것이 포교이며 수행입니다.”

1월 20일 눈 내리는 겨울 아침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을 만났다. 지난해 하반기 본지에서 전법일기를 연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님의 포교 이야기와 수행 이야기를 들어봤다.

수좌의 꿈을 안고 백흥암으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외국인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스님에게 출가를 권유했던 원명 스님과 무진 스님 모두 국제포교의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라 지금 자우 스님이 국제포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스님은 출가 당시에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좌스님으로 살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가족들의 만류로 첫 번째 출가에 실패(?)하고 스님이 두 번째로 출가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다큐 영화 ‘길 위에서’ 로 유명해진 비구니 선방 백흥암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선원장 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백흥암은 최근 다큐 영화로 유명해졌지만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행자 생활이 고되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노동하고 수행하며 치열하게 사는 곳이 백흥암이며 이곳에서 행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행자 시절에 가장 큰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

“당시 백흥암은 3년 행자 생활을 해야 강원을 보내줬어요. 그때 스님으로 살아야 할 모든 걸 다 배운 거 같아요. 행자 생활은 용광로와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세의 습을 녹이고 비워 내는 시간이죠. 정말 완전하게 녹여내지 않으면 자기 수행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백흥암에서의 행자 생활은 수행자로서 살아야 할 가장 기초적 덕목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이후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에서 강원을 마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승가대 강사 제안을 받지만 거절하고 석남사 대원사 약수암 백흥암 등을 돌며 안거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형들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와 영어학원을 다니고 사서삼경을 공부하며 국제포교사를 품수한 후 스리랑카로 유학을 떠난다.

이후 원명 스님의 제안으로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 소임을 2년간 맡는 등 해외 포교도 경험하게 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이후 백흥암 대성암 등의 선방에서 안거에 들며 다시 수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어느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한다. 병원에 가니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안거 중에 나와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암이라고 하니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수술 전에 짐을 정리하니 제 짐이 두 박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박스를 바라보니 수행자로 살아온 내 삶이 너무 단출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마를 극복하고 포교의 길로

스님은 수술 후 잠시 쉴 곳을 마련해 들어간 곳이 현재의 비로자나국제선원이다. 스님은 그리고 이곳에 포교의 길을 결심했다. “부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를 생각했어요. 도심 속에 있으니 또 이곳 사람들의 아픔과 번뇌 고민이 느껴졌어요. 산속에서의 참선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도심포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접하고 출가를 해서 들어온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이나 한국에서 출가를 발원하는 외국인 스님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 없잖아요. 이곳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스님은 수술을 계기로 2006년 비로자나국제선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도심 속 포교를 시작한다. 결국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국제포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스리랑카 유학시절 3~4살 때부터 아이들이 절에서 글자도 배우고 인터내셔널 담마스쿨 과정으로 영어공부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던 스님은 이와 함께 어린이 영어 포교도 시작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어린이 영어 포교였다.

“청소년부는 국제청소년포상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봉사 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진학에도 도움이 되

원명 · 무진 스님 권유로
영천 백흥암으로 출가
안거 중 갑상선암 진단
병마 이겨내면서
도심속 국제포교 발원
비로자나국제선원 개원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외국인 참선 프로그램 등
영어 접목한 법회로
대중들에게 호응 얻어
“포교공동체 설립이 목표”

니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면서 발표력도 기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죠. 어린이들은 담마스쿨과 선원의 자체 교재 등으로 영어 법회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법당에서 형 누나들과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니 영어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돼요.”

특히 스님이 진행하는 영어 캠프는 아이들이 여름이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다. 매년 70~80여 명이 참여하는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가족여행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스님의 여름 캠프다.

이렇게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영어를 배운 어린이들은 자타카 암송대회 등에 나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6년 연속해서 받아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에 나가 외국인 어린이 손님을 맞아 불교를 설명해주는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2004 인도네시아 해인사 포교원 어린이들과 함께


불교문화한마당에 참여한 비로자나국제선원



충남 공주 마곡사서 진행한 어린이영어담마캠프


스리랑카 영어담마스쿨 지도



자우 스님은 … 1992년 영운 스님을 은사로 백흥암에서 출가 1999년 동학사승가대를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2003년 스리랑카 캘라니아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받았고 파라마담마사 영어담마스쿨 교사로 활동했다. 2003~2005년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맡았으며 2006년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국제포교를 펼치고 있다. 현재 LMB싱어즈 지도법사, 조계사 청년회와 7051전차부대 백호대대 법사로도 활동중이며 동학사승가대 불교영어 강사를 맡고 있다. 2013년 제 25회 조계종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우러져 놀이하며 영어를 공부하니 흥미도 가지고 경쟁심도 가져요. 이런 환경속에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쑥쑥 늘어나죠.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캠프가 끝나고 나면 재정상으로는 적자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받았을 행복을 생각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아이들이 훗날 불교의 재목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하면 더 큰 보람을 느끼죠."

세계 속에 꽃피는 한국 불교

스님은 우리 불교가 좀더 세련되고 현대화 되고 국제화되기를 서원한다. 그래서 국제포교는 다방면에서 우리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스님의 지론이다. 매주 일요일 외국인들을 위한 참선 법회를 여는 것도 이런 뜻이 반영된 것이다.

"제 목표는 서구사회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승가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한국불교를 세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국제 포교는 미국 등 서구에서 한국 불교를 접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출가를 원하는 이들에게도 길을 안내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원력이 발현이 되어 출가를 시킨 이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스님이 '길 위에서' 의 주인공으로 미국 유학생활 중 교수 임용을 앞두고 출가한 상욱스님과, 현재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중인 인도네시아계 미국인 진담 스님이다.

"사실 외국 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국에서 출가를 하는 길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출가를 했다고 해도 우리 수행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심을 했다고 해도 승가공동체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먼저 걸어온 길을 후배들에게 안내해주고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를 설명해주다 보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스님은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의 개교 당시 초대 학감을 역임했다. 국제불교학교는 조계종이 운영하는 비구니 스님 영어전문교육기관으로 스님은 이곳에서 초창기 커리큘럼을 짜고 제반적인 과정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기도 했다. "6개월 정도 종단 일을 맡아 하면서 종단이 아직도 국제 포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제포교는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예요. 영어는 기본이고 우리의 불교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종단이 국제포교를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세계속에서 꽃피기 위해서는 탄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 국제포교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수행지도법이나 연구법 등을 늘 연구하죠. 가장 큰 문제는 종단 차원에서 공식화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조계종의 근본은 지키면서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종단과 스님들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님은 국제포교와 어린이 포교를 발원한 스님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연구할 수 있는 포교 공동체도 꿈꾼다. "사실 포교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저희 선원의 공간이 확보된다면 스님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고 포교를 고민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포교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늘 마음의 평화 평정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고 포교한다고 말하는 자우 스님. 그래서 산속에서도 도심속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님의 모습은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밝은 힘이 느껴졌다. 늘 도전을 정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스님은 국제포교의 새로운 길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기울이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영어참선 법회 후 외국인들과의 차담



2013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장면

전법일기

불자들 신바람에 저절로 꾸려가는 군법당

필자는 남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다. 공군 군종법사를 복무한 뒤 다시 육군 군종법사로 입대한 것이다. 오늘은 공군 시절의 포교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한다.

공군에 관한 선입견 하나는 공군이 비행기만 타는 줄 안다는 것이다. 사실 전투기를 타고 적군을 제압하는 임무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가 바로 적기(敵機)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지상무기 운용이다. 이른바 '방공포' 운용으로 방공포병여단은 다양한 방공무기들을 운용해 대한민국의 후방 영공을 방어하고 있다.

2008년 대구의 제1방공포병여단 감천사에 근무할 때다. 처음으로 군종법사로 부임한 곳이기에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먼저 병사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기에 병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딱딱한 법회방식을 피했다. 법당이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 앞에서 웃고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법당 밴드부였다.

밴드명은 시대의 아이콘 보아(BOA)로 지어졌다. BOA는 'Buddhist of AirDefense' 의 약자로 법회에서 찬불가와 의식곡을 기타와 드럼, 키보드로 연주했다. 찬불가를 록(Rock) 음악 풍으로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당시 부대 내 660기 장병들이 주축이 됐는데 밴드부가 활성화되자 법당에 오는 병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밴드부에 가입하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때는 대구 중앙로에 나가 찬불가 반주 및 공연을 했다.

법당에 출입하는 장병들이 조금씩 늘어나자 기존 신도회들은 절로 신바람이 났다. 매월 한 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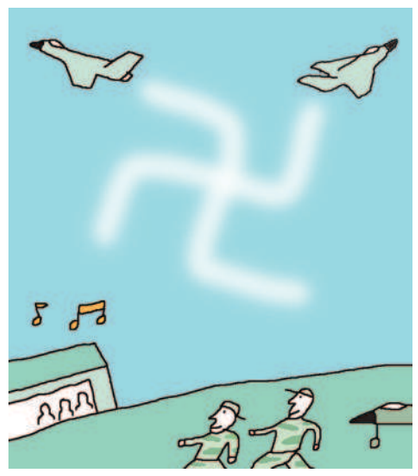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 번씩 찬불가와 유행가를 함께 부르는 '합창법회' 를 열었는데 신도회가 주축으로 나서줘 큰 힘이 됐다. 이어 동지를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제1회 감천 한마음축제' 도 열었는데 교리 퀴즈대회인 '감천종을 울려라' 와 윷놀이 대회 등 군장병, 군법당 신도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됐다.

이런 노력이 쌓이자 당시 법회 인원이 예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다. 법회 참가자가 6~70명에서 120명을 웃돌았다.

여기서 더 나가 군법사가 없더라도 포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법당을 만들고자 했다. 자칭 타칭 포교사양성소였다.

먼저 금강회, 관음회 할 것 없이 신도들에게 포교사 고시를 권장했다. 흥겨운 법회 이후에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감천사 법당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한 포교사만 11명에 달했고, 영어가 능통한 국제포교사도 2명이나 배출했다. 서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신도회가 더 화합하는 장점도 발견했다. 신도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법은 그대로 이어졌다. 나중에는 서로 포교사 고시를 권장하며 공부준비를 돕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은 최전방 철책 부대로 예하 군법당이 많기에 포교사 한분 한분이 소중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더욱 열심히 포교사 양성에 발 벗고 나설 걸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군법당은 법사 스님들이 1~2년마다 한 번씩 법당을 옮긴다. 하지만 신도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신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법당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서 종교생활을 해보지 않은 병사들에게 군법당은 낯선 곳일 수 있다. 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끄는 것은 작은 관심(觀心)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임지 감천사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불교에 대해, 법당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스님들은 이런 관심을 이어주는 작은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장병과 가족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전국의 군법당으로 발걸음하길 기도하며 오늘도 부처님 전 정성스레 향을 올린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인도, '구걸의 그릇' 반환 첫 걸음





'구걸의 그릇'으로 불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립박물관 소장. 화강암 재질. 너비 1.75m. 높이 4m. 두께 18㎝. 무게 400㎏. 문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랫동안 주석했던 바이샬리를 떠나며 주민들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진다. 그릇 표면 전체에 연꽃의 꽃잎이 섬세하고 조밀하게 조각되어 있고, 그릇 상단 테두리에 코란 내용이 6행으로 덧새겨져 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소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는
붓다가 인도 주민에 선물한 것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반출 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비크샤파트라(bhikshapatra, 구걸의 그릇)'로 부르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가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원래 있었던 인도 바이샬리(Vaishali)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인도TV(India TV)〉는 1월 14일(현지시각) 인도고고학 조사위원회(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이하 ASI)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ASI 측이 이달 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3명의 고고학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전하고, "이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일명 '구걸의 그릇'을 정밀 조사하고, 원래 있었던 바이샬리로 이운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8월 바이샬리의 프라세드 싱(Prasad Singh) 총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구걸의 그릇'이 원래 있었던 곳인 바이샬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단초가 됐다.

ASI 측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바이샬리를 떠나기 직전 이곳 주민들에게 '구걸의 그릇'을 선물했다. 이후 인도가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구걸의 그릇'은 바이샬리에서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 칸다하르(Kandahar)로 옮겨졌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한창일 때인 1980년 카불로 다시 옮겨져 지금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됐다.

B.R. 마니(Mani, ASI 조사팀 감독관) 박사는 "3~9세기 이곳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순례기나 여행기에도 '구걸의 그릇'이 등장하고, 19세기 페샤와르와 칸다하르 일대에 머물렀던 영국군 장교의 사진첩에서도 '구걸의 그릇'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2001년 탈레반 반군이 불교 유물을 파괴할 때, '구걸의 그릇'도 파괴 대상이었으나, 그릇의 상단에 6행으로 코란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절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짙은 회색 빛깔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구걸의 그릇'은 너비 약 1.75m, 높이 약 4m, 두께 18㎝, 무게 400㎏으로 그 규모가 대단하고, 그릇의 표면에는 연꽃의 꽃잎이 섬세하고 조밀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여기에 이슬람 제국의 지배기에 여기저기 옮겨지면서 그릇 상단 테두리에 6행으로 코란 내용이 덧새겨져 이채롭기까지 한다. 이는 이슬람 제국의 지배기에 불교를 훼손했던 역사적인 상처이지만, 2001년을 전후해 아프가니스탄 내 불교 유물이 파괴되고 훼손될 때에도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한편 인도TV는 "인도 정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대불의 파괴를 기점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불교 유물에 대한 보존에 관심을 보였다"며 '구걸의 그릇'에 대한 인도 정부의 반환 행보의 배경을 설명하고, "ASI의 카불 조사팀은 인도 문화부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았고, 두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카불 국립박물관 등과의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측은 "우리는 이 유물 이름을 'bhikshapatra(구걸의 그릇)'으로 명명했다"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사원 경내 초입에 놓인 돌구유처럼, '구걸의 그릇' 역시 고대 불교 사원의 입구에 봉안되어 불자들의 보시 물품을 담았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ASI 측이 파견한 조사팀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에 피어나는 '캄보디아 연꽃'

50여 세대 캄보디안 불교공동체, 사원 개원 희망 키워



미국 오하이오 주 우드카운티에 소재한 볼링 그린에 거주하는 캄보디안 불자들이 예불하는 모습.

미국 오하이오 주의 우드카운티에 소재한 볼링 그린(Bowling Green)에서 '캄보디아의 연꽃'이 피어나고 있다.

〈데일리 뉴스(Daily News)〉지는 1월 19일(현지시각) "캄보디아 이민 2세인 프레이버거(Thyda Freiberger), 킴벌리 비터링(Kimberly Bitterling) 두 자매가 볼링 그린 최조의 캄보디아 불교 사원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프레이버거와 비터링은 보링 그린 내 50여 세대의 캄보디안 가정을 기반으로 '아흐람 메인자이(Ahram MeinJai)'라는 캄보디안 불교공동체를 결성하고, 최근 사원 부지 확보에 이어 건축 기금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캄보디안 사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비터링은 "사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일구며 살았던 캄보디아의 마을 풍경을 부모님에게서 들을 때마다, 우리 두 자매는 '볼링 그림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 뉴스〉지에 따르면 볼링 그린의 캄보디안 불자들이 예불을 올리기 위해 사원을 가기 위해서는 세 시간 남짓 운전해 내슈빌로 이동해야 한다. 인근에 미얀마 불교사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얀마인과는 언어 소통이 불가능해 캄보디안 불자 대부분 미얀마 사원을 몇 차례 방문하고는 등을 돌리는 실정이다.

이는 프레이버거와 비터링 두 자매가 캄보디아 불교 사원을 짓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캄보디안 불교공동체 아흐람 메인자이(Ahram MeinJai)는 지난 2012년 볼링 그린 지역에 약 5에이커(약 20,200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 '아흐람 메인자이'라는 푯말을 세우고, 캄보디안계 토르(Tor) 스님을 증명법사로 초빙했다.

그러나 예불이나 소모임은 각 가정의 거실에서 봉행하고 있다. 프레이버거는 "아직까지 설계 및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내슈빌, 매피스, 테네시, 신시내티, 클리블랜드 등의 도시를 순회하며 캄보디안 불교 사원 건축 기금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링 그린의 캄보디안 불자들의 모금 캠페인에는 캄보디아-태국계 가수 제인 사이자이(Saijai)도 정기적인 자선공연을 진행하며 참여하고 있다.

토르 스님은 "아흐람 메인자이 불교사원의 건축은 볼링 그린 지역에서의 캄보디안 불교공동체의 시원이자 캄보디아의 불교전통이 세대를 이어갈 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데일리 뉴스〉지는 "젊은 세대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는 비터링의 말을 인용, "그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길 바라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자신에게 맞는 스승 · 도반 찾아드려요"

美 플로리다서 '마인드 바꾸는 날' 행사 열려



미국 플로리다주 밈스에 위치한 화이트 샌드 불교센터에서 열리는 '마인드를 바꾸는 날(Change Your Mind Day)' 행사는 종파를 초월한 불교도들의 만남의 장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마인드를 바꾸는 날(Change Your Mind Day)' 행사가 플로리다에서 1월 25일 열렸다. 이 행사는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과 불교도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전통은 1993년 트라이싸이클(Tricycle)이란 불교계 잡지가 흩어져있는 불교단체의 모임을 기획하면서 시작됐다.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사상과 수행법을 알려주기 위해 불교 단체가 모여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무료로 명상법을 가르쳐준 것이 시초인 셈이다.

종파를 넘어선 범연대 불교조직 볼루시아 불교 단체의 모리스 세이코 설리번은 "소도시일 수록 이러한 요구가 증가한다"며 "미국 플로리다주 볼루시아카운티에 있는 드랜드(De Land)에서 행사를 열었을 당시 150명이나 모였다"고 말했다.

이번 해는 미국 플로리다주 티투스빌 지역 밈스(Mims)에 위치한 화이트 샌드 불교센터(White Sands Buddhist Center)에서 열렸다. 베트남식 불교 수행을 표방하는 곳이지만 이날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종파 관계자들이 불교 수행과 명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10시부터 4시까지 열린 이 날 행사는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설리번씨는 행사의 의의에 대해 "부처님은 45년간 설법하시며 가르침을 주셨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따른다. 행사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승과 도반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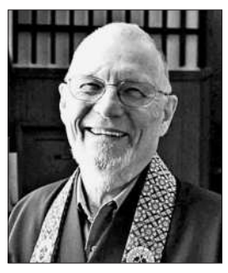
불교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중 하나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불교 인구는 2백만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뉴스 저널지에 따르면 불교가 믿음보다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해 기존 신앙을 저버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뉴스 저널지의 보도를 보면 매국 내 불교 인구는 이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추정된다. 설리번씨도 "기독교인이면서 불교 수행을 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로 개종한 목사, 종교간 소통 이끈다

캐나다 울리히 법사, '위니펙 종교 모임'으로 종교간 대화 주최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주도 위니펙에서 '종교간 대화를 실천하는 노령의 법사' 하면 어김없이 프리드리히 울리히(Fredrich Ulrich · 80)〈사진〉 법사가 꼽힌다고 지역 매체 〈위니펙 자유 언론(Winnipeg Free Press)〉가 14일 전했다.

울리히 법사가 지역 명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74세까지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다 불교로 개종, '위니펙 종교 모임'을 결성해 종교간 소통에 남다른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감리교 목사로 설교하고, TV 출연했다"는 울리히 법하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니펙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들 종교 모두 소통하고 화하는 것을 항상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펙 자유 언론〉은 울리히 법사의 말을 인용, "종교간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사유와 가치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그것을 맑게 하는 것에서 종교간 소통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며 울리히 법사의 말을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2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수련기간 2014년 2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시간씩 (14시~16시 반 혹은 18시~20시 반) 3개월간 선착순 10명, 회비 30만원 (10만원 * 3개월). 수료증 수여.

수련내용 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실습 영성의 중심 기둥 세우기 실습 등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법칙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3년여 만에 출간한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화제의 신간

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호응을 일으키며 재판



붓다 수업

웰빙, 힐링, 뉴에이지, 영성, 치유, 명상, 시크릿, 마인드풀니스 등의 원천인 붓다!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붓다 수업-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를 출간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붓다 시대, 이제 붓다 수업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진리를 표방하는 단체며 가르침이 많아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 '힐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의 원천'인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놓았다.

■ 법상 스님 지음 | 신국판 372쪽 | 15,000원

무아(無我)와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당신은 실재하는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로 이끄는 신개념 불교교리서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스님 지음 | 신국판 304쪽 | 13,500원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을 담보로 '거래' 해서는 안 된다" 콕콕 정곡을 찌르듯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 있는 저자의 경책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무지와 탐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Tel. 02)732-2403~4 민족사

올바른 종교생활을 위한 촌철살인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천국을 탐(貪)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 김진태 지음 | 신국판 184쪽 | 12,000원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를 걱정하는 시대. 위험하고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종교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촌철살인. 불교계를 정화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호법신장 김진태 교수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책의 향기가 있다면 이런 글이 아닐까? 절제된 문장에 담겨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자의 깊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붓다와 예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한마디를 하셨을 것 같다. "선재 선재(善哉 善哉)로다!"라고.

– 동화사 연수국장 혜문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

도서출판 동승동 Tel. 02)732-2403~4

도덕경과 선

삶이 행복해지는 공부, 노자와 선이 만나다!



불교경전과 선사들의 일화, 동양 고전을 넘나들며 펼쳐내는 비움의 철학!

도가와 불가, 유가를 아우르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통합적 안목!
마음의 근본 원리와 작동에 대한 동양적 사유의 성찰!

김가원 저/신국판/464쪽/18,000원

경전 속 식물들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전법, 열반에 이르는 동안 부처님과 함께한 식물 이야기!

경전에는 왜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는가?
경전에 등장하는 식물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꽃과 나무들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마음을 밝히는 붓다의 식물 108가지



눈을 즐겁게 해주는 108종 세밀화 수록

민태영 저/신국판/전면컬러/384쪽/18,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공연Review

파가니니 자동판매기 권혁주' … 소름 돋는 매혹적 선율 선사

제11회 JK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JK챔버오케스트라는 1월 19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가족콘서트 '영화를 만난 클래식'을 열었다. (사진제공=석명용)

내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를 처음 본 것은 2008년 귀국 독주회장이었다. 그때 그의 레퍼토리는 고도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요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이었다. 당시만해도 권혁주는 신예였지만 그의 수상경력 한 줄이 나를 연주회장으로 이끌었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쿨 1위 입상이었다.

1954년 파가니니의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처음 열린 이 콩쿨은 2004년까지 50회를 치르는 동안 그 권위를 인정받아 입상자들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 발돋움하는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가니니 자동판매기' 란 별명에 걸맞게 권혁주는 이날 보란 듯이 활을 켰다. 계속되는 트릴, 2~3음이 한꺼번에 연주되는 더블 스톱(중음주법), 휘파람소리 같은 하모닉스, 지판을 짚으면서 동시에 줄을 튕기는 왼손 피치카토 등 현악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연주 기법을 보여주며, 바이올린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선율이 관객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날이 볼때마다 발전하는 그를 보면서 앞으로 '비르투오소(음악적 기교가 뛰어난 연주자)' 가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다.

2004년 러시아 유학시절부터 몇차례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전곡을 연주해 음악계를 놀라게 했던 이력의 소유자답게 이날 음악회에서는 팬 서비스로 관객이 신청한 4번과 19번까지 덤으로 선사해 환호를 받았다.

당당하고 정돈된 연주는 잘 훈련된 명마의 준수함을 떠올리게 했고 쉴세 없이 긁어대는 그의 활이 발산하는 폭발적 에너지는 거장의 힘과 정열이 함께 하는 듯했다. 탄탄한 활의 테크닉과 반듯하고 힘찬 보잉은 그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 같았다. 왼손 비브라토를 주로 사용해 떨림으로 관능적 소리를 만들어 귀를 현혹시키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는 오른손의 반듯한 활 쓰기로 긴장과 이완의 음색을 선사한다. 그래서 당장의 매혹은 못느끼지만 활의 힘이 관객을 서서히 그의 음악 속으로 빨아 들인다. 아무튼 권혁주는 활을 가볍게 튕기는 기법인 스피카토와 저음역에서 일관된 반주 패턴을 유지하면서 고음역 선율을 연주하는 고난이도 기술로 관객을 충분히 매료시켰다. 다소 영화속 클래식이라는 모험적이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선정했음에도 이날 음악회가 절대 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권혁주가 있어서였다.

이날 음악회에서 또하나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엔리오 모리꼬네의 명 영화음악 중 하나인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를 연주할 때였다. 평소 오보에에 익숙했던 이 곡을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들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긴장과 감동을 전해 받았다는 것이다. '넬라 판타지아' 를 현악기로 들으니 조금 덜 차분해지는 맛은 있었지만, 가브리엘이 연주했던 영화 속 장중함은 그대로 느껴졌다.

파가니니 곡 즉석 연주 '신선'
소외된 이웃대상 표 7백여만원 보시
친근한 영화속 클래식 14곡 공연

피아니스트 김성연의 〈엘미라마디간〉 주제곡인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 21번 2악장과 카운트테너 이재희 헨델의 '리날도중 울게 하소서' , 소프라노 임세라의 '잔니 스키키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은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해주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혈액암협회, 보리수아래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7백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후원하는 훈훈한 보시행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뮤지컬로 만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분'

눈물 바다된 '꽃신' 배우 오디션 현장

"위안소로 끌려가서 60년을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 위안소는 사람 살 곳이 못돼. 도살장 같은 곳이야. 집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했지. 이제는 할머니들이 다 죽어 가니 이 문제를 해명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죽어도 이 문제는 해명이 됐으면 좋겠어."

뮤지컬 꽃신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할머니의 말씀에 오디션 현장에 참여한 배우며 심사위원들 모두 눈물을 글썽인다.

역사마저 침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다룬 국내 최초 뮤지컬 〈꽃신〉이 공개 오디션이 진행됐다. 1월 20일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소 다목적홀에서 열린 배우 선발 1차 오디션 현장은 역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알리고자 하는 배우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 · 박옥선 할머니(90)와 나눔의 집(원장 원행) 안신권 소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안신권 소장은 "뮤지컬 〈꽃신〉의 배우 오디션 공고 조회 수가 1만 4천 건이 넘을 정도로 뮤지컬 배우들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재능기부로 뜻을 같이 하려는 360명이 지원했다. 오디션을 통해 주연을 포함한 20여 명의 배우들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 강효성 씨가 예술감독 겸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섰고 옥경선 작가와 최지혜 작곡가가 대본과 음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작비를 마련할 예정이며, 재능기부로 절약된 제작비는 관람료를 낮추고 소외계층의 공연초청 등에 사용된다.





역사마저 침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다룬 국내 최초 뮤지컬 〈꽃신〉공개 오디션이 1월 20일 대학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참여해 지난날을 아픔을 털어놓자 심사위원들과 배우들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나눔의 집 할머니 심사위원 참여
오디션 참가 배우들에 심정 토로
뮤지컬 배우 강효성 씨 등 재능기부
하반기 초연, 전국 공연도 계획



뮤지컬 '꽃신' 포스터

주인공 순옥 역을 맡아 재능기부를 펼칠 배우 강효성 씨는 오디션 내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강 씨는 이번 오디션으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알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얘기 들으니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눈물이 마르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또 역사 문제를 넘어 한 여자로서의 할머니가 느껴졌어요. 행복을 누릴 권리도 없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온 할머니의 삶이 남 일 같이 느껴지지 않네요."

뮤지컬 〈꽃신〉은 결혼을 앞둔 열일곱살 순옥의 이야기다. 자신이 짝사랑하던 윤재와 결혼을 앞두고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수난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세상과 섞이지 못한다. 그러던 중 순옥이 사랑했던 윤재는 그녀에게 꽃신을 주며 청혼을 하는데…

뮤지컬〈꽃신〉은 별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나눔의 집' 과 함께 올 하반기 전국 공연을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2차 오디션은 2014년 2월 8일 진행된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생존 할머니는 56명이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87.2세다. 역사의 산 증인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뮤지컬 꽃신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려나가는 또다른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420-29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 건축물 펜화로 만나다

김영택 〈펜화, 한국 건축의 혼을 담다〉 출간

"제가 펜화에 담고 싶어 하는 우리건축의 아름다움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아의 아름다움' 이며, 세계의 건축이 추구해야 될 '자연이 우선하는 건축' 입니다."

펜화가 김영택 씨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기록펜화' 의 대가 김영택 화백이 한국 전통 건축물을 그린 펜화 91점을 모은 〈펜화, 한국 건축의 혼을 담다〉(서울셀렉션)를 출간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 거의 30년간 건축 문화재를 펜화로 담아내고 있는 김영택 화백은 세밀화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잇다.

그동안 김 화백의 그림들이 신문과 잡지 연재를 통해, 그리고 에세이와 아동서를 통해 소개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많은 수의 작품이 한 권에 수록되어 도록 형태로 출간되기는 처음이다.

김영택 화백은 0.05mm의 가는 펜을 이용해 작품 당 50~80만 번의 펜 터치를 가해 그림을 완성한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그려낸 건축물, 성벽, 기왓장, 소나무, 바위 등의 세밀한 모습은 사진처럼 정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명암은 작가가 혼신을 쏟아낸 결과다.



펜화가 김영택 씨가 91점의 전통 건축물을 담은 도록을 발간했다. 작품은 금강산 보덕암.

특히, 이번 도록에서는 금강산 보덕암과 신계사, 미륵사지 석탑, 미황사 대웅보전 등 불교 문화유산을 펜화로 만날 수 있다. '김영택 원근법' 을 이용한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734-9565 정혜숙 기자



문화人

"노래하며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불자가수 라마(요술당나귀 리더)


불자 가수 라마는 노래 부르며 봉사하는 삶으로 항상 즐겁다. 사진=박재완 기자

1월 21일 인터뷰를 위해 조계사 인근으로 나온 불자 가수 라마는 붉은색 점프에 긴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다. 도식화된 세상의 틀에서 벗어난듯 보이는 표정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캄보디아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 날개달기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캄보디아 뽕노초등학교 봉사를 다녀온 것이다. 라마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교가와 찬불가도 만들어주는 봉사를 했다. 녹음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녹음도 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다 보니 불교적인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 때도 불교적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작년에는 캄보디아 이왕우동 초등학교 교가를 만들어주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노래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 뿌듯했죠. 역시 노래는 남는구나 했어요."

라마는 노래하며 봉사하는 가수다. 그는 봉사를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에 잘 쓰이는 일을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노래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라마는 그곳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고 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우물도 없는 오지마을 아이들이 항상 밝게 웃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물론 최소한의 의료와 교육을 지원받을 필요성은 있지만 아이들은 그곳에서의 삶 그 자체로 행복해보였어요."

라마는 최근 '모발나눔콘서트(이하 모나콘)' 1주년 기념콘서트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우연히 병원공연을 갔다가 소아암어린이들을 돕고 싶어 시작했다는 이 콘서트는 이름 그대로 소아암 환우들에게 특수가발을 전해주는 공연이다. 개그맨 오종철 씨와 매달 홍대 블루라이트홀에서 200석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해왔고 구랍 23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1주년 기념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1200석이 꽉 차면서 성황을 이룬 것이다.

캄보디아 국제구호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교가 '작곡' 봉사
소아암환우돕기 공연 매월 열어
하반기경 새 음반 발매 예정

"1년 동안의 공연으로 모은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7000만원을 기부했어요. 아이들에게 70개의 가발을 보냈죠. 좋은 일을 하고자 뜻을 모으니 공연제작을 도와주는 분들이 생겼죠. 저희는 공연에만 신경을 써요. 또 공연이 끝나면서 100만원을 개인 후원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공감을 샀죠."

그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의무감을 갖지는 않는다. "제 삶 안에서 보람된 일을 찾고자 시작한 일이죠. 봉사라는 생각보다 제가 지금 잘할 수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올해 라마는 음악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 풍등,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바 있는 그는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음악으로 대중과 만나고자 한다. "마음속에는 이제 음악적으로 성과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도 늘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부르며 녹음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새 음반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라마는 또 하나의 새해 계획을 덧붙인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뜬금없이 웬 요리냐고 물으니 냉장고 비우기 캠페인을 해보고 싶단다. "캄보디아에서 느낀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과 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냉장고를 믿고 너무 많은 음식재료를 사고 다 먹지 못해 버리게 돼요. 냉장고 덕분에 너무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냉장고가 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요리하며 비우기 이런 콘셉으로 캠페인도 펼치고 노래도 불러보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소아암 어린이에게 특수가발을 전해주는 모발나눔 콘서트 장면.


캄보디아 봉사활동. 초등학교에 교가를 만들어 주고왔다.

역력한 흰구름 뉘에게 줄 수 있으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⑤ 서거정과 수종사 (上)




운길산 수종사에서 조망되는 양수리의 풍경

세조와 나한도량의 인연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水鍾寺)는 조선 세조(世祖)에 의해 중창된 절이다.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조의 중창과 관련한 설화는 흥미롭다.

세조가 오대산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양수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런데 두물머리의 야경을 즐기는데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세조가 신하들에게 살펴보라 했다. 다음날 신하들은 운길산에 올라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폐사가 있었다. 거기 바위벽에 18나한이 줄지어 앉아 있고,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종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조는 감동하여 절을 중창하게 하고 이름을 수종사라 하였고, 수종사는 나한기도 도량으로 이름이 나게 되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合水)되는 양수리가 한 눈에 내려다보는 시원한 조망은 언제나 일품이다. 양수리가 보이는 쪽으로 통유리를 달아 훤하게 꾸민 다실(茶室) 삼정헌(三鼎軒)도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다산 정약용, 초의 선사, 추사 김정희가 함께 수종사에 모여 차 맛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고 삼정헌에서 차를 마신다면 그 향기는 더 은은할 것이다. 삼정헌은 '시(詩) 선(禪) 차(茶)가 곧 하나로 통하는 다실' 이라는 뜻으로 봉선사 조실 월운(月雲)스님이 명명했다고 한다.

"동방제일의 사찰 경치"

최근 문화재청이 운길산 수종사 일원을 '명승' 으로 지정한다고 입법예고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종사 일원의 명승 지정. 이미 500년 전에 살았던 선비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수종사에 올라 "동방 사찰 가운데 제일의 경치"라 격찬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의 명승 지정은 그렇게 떠들 일도 아닐 성 싶다.

수종사를 중창한 세조가 매우 아끼던 신하였던 서거정. 그가 45년간의 공직생활 가운데 대제학을 지낸 시간이 23년이다. 무엇보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경국대전〉 등 조선을 대표하는 국가주도 저술들의 편찬을 주도했고 〈동인시화〉 〈역대연표〉 등의 개인 저술과 시문집 〈사가집〉을 남겼다. 그가 쓴 시문(詩文)은 무려 1만여 편에 이른다는데 전하는 것이 6000여 편이다.

그런 서거정이 수종사의 풍경을 '동방제일' 로 격찬했듯, 오늘날의 풍경도 '명승' 이상의 승경이다.

추래운물이처처(秋來雲物易悽悽)
숙우련조수박제(宿雨連朝水拍堤)
하계연진무지피(下界煙塵無地避)
상방루각여천제(上方樓閣與天齊)
백운력력수감증(白雲歷歷誰堪贈)
황엽비비로욕미(黃葉飛飛路欲迷)
아의왕참동원화(我擬往參東院話)
막교명월괴금제(莫敎明月怪禽啼)

가을이라 오만 풍경이 처량해지기 쉬운데
밤새도록 비까지 와서 물이 못 둑을 쳐대네.
속세의 연기 먼지는 피할 길이 없건만
상방의 누각은 하늘과 가지런하여라.
백운은 역력하건만 뉘에게 줄 수 있으랴
단풍잎은 흩날려 가는 길은 헷갈리겠지.
내가 가서 동원의 담화에 참여하려 하노니
밝은 달밤에 괴이한 새가 울지 못하게 하소.

–서거정 '수종사' 〈사가집〉 보유편 3권

당대 최고의 문장가요 시인으로 꼽히는 서거정이 스스로 '동방제일' 의 경치라 격찬한 수종사에서 시 몇 수를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다고 많은 시를 남긴 것은 아니다. 그의 문집 〈사가집〉에는 수종사와 관련된 시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서거정의 문집에는 사찰의 풍경을 읊거나 승려들과 담화와 안부를 주고받은 시들이 상당히 많이 전한다. 이름난 사찰이라면 그의 시 한 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성종실록〉에 1448년(성종 19) 12월 24일자로 기록된 서거정 졸기(卒記)에는 "서거정은 온량간정(溫良簡正 온화하고 무던하며 간소하고 바름)하고 모든 글을 널리 보았고 겸하여 풍수(風水)와 성명(星命)의 학설에도 능통하였으며 석씨(釋氏)의 글을 좋아 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아마 관학을 주도한 선비로서의 체면을 높이기 위해 불서(佛書)를 읽지 않았음을 짐짓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불교에 매우 해박한 선비였고 스님들과의 교류도 막역했다.

앞에 보인 시에서 서거정은 수종사의 풍경을 읊으면서도 불교의 지향(指向)을 높은 안목에서 공감하고 있다. 수련에서 가을날 비 온 뒤의 수종사 풍경을 묘사한 서거정은 함련에서 '먼지' 를 피할 길 없는 속세의 삶과 '하늘과 가지런한 상방' 을 대비시켜 풍경 이상의 가치, 초월적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산사를 묘사하고 있다. 상방은 주지승이 거주하는 내실이란 의미지만 절을 뜻한다.

이어지는 대목 또한 높은 도력을 상징하는 '흰 구름' 과 속진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단풍' 을 대비시켜 불가의 이상향을 말하고 있다. '흰 구름' 은 깨달음 내지는 깨달은 자의 자유로운 삶을 상징한다. 중국 남제(南齊)에 도홍경(陶弘景)이라는 은사(隱士)가 있었다. 그의 시 가운데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갯마루에 흰 구름이 많다네. 그저 혼자 즐길 수는 있지만 그대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다네' (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는 구절이 있다. 서거정은 이 시에서 '흰구름' 을 차용해 수종사 혹은 불가의 초월적인 경지를 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미련에서 서거정은 스스로 '동원(東院)의 담화' 에 참여하려 한다고 심경을 밝힌다. 동원은 당나라의 고승 조주(趙州) 선사가 거처한 관음원의 다른 이름이다. '끽다거' 화두로 유명한 조주선사는 중국 선종의 큰 산맥이다. 그래서 관음원의 별칭인 동원이란 말은 '고승의 처소' 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서거정은 수종사의 풍경 속에서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달밤에 새가 울어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다소곳하면서도 날카로운 기상을 보이는 시라 하겠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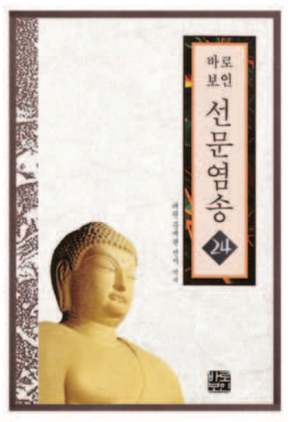

적하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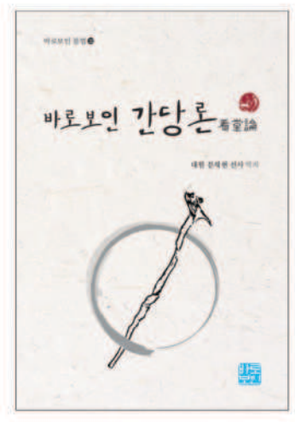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5 ~ 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붓다수업	법상	민족사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8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9	붓다 한 말씀	이미령	불광출판사
10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영문판 한국불교사전)	해원David A. Mason	운주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조계종 주제 논문 한 권에



조계종사 연구논집
한일불교학생교류회 기획
현해·신규탁·김상영 편집
중도 펴냄
3만원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상임대표 현해 스님)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 · 종통 · 종조에 관한 논문을 엄선해 엮은 〈조계종사 연구논집〉을 펴냈다.

현해 스님과 신규탁 연세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편집을 맡은 이 연구논집은 17편의 논문을 실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장에는 '조계종 성립사 및 법통설' 과 관련한 연구논문 여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성립사와 관계된 연구이며, 일부는 조계종 법통과 관련한 연구논문이다.

제2장에는 '조계종 종조' 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계종 종조 도의의 생애와 사상 등을 연구한 여섯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3장에는 '현대 조계종' 과 관련한 연구논문이 수록되어있데, 여기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조계종 성립사 및 법통설' 과 관련한 내용 중 김영수 전 원광대 교수의 '조계선종에 취하야' 는 조계종사 연구의 효시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조계종의 종명과 종지를 나름대로 살펴본 이후, '각론' 이라는 제목 아래 구산선문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각 산문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산선문의 틀 속에서 각 산문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학술 논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익진 전 동국대 교수의 '신라 하대의 선 전래' 는 불교사상사적 관점에서 신라 하대 선종이 지니고 있는 제반 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김영태 전 동국대 교수의 '구산선문 형성과 조계종의 전개' 는 구산선문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고려 말 조계종 역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조계종명을 쓰게 된 시기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김영태 교수의 또 다른 논문 '조선 선가의 법통을 밝힘' 은 태고법통설을 담고 있는 여러 문헌을 자세하게 살펴본 이후 그 문제점을 언급한 내용과 태고법통 확정의 역사적 연유를 살펴본 내용, 그리고 서산 스스로가 인식한 법통과 그의 가풍을 살펴보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의 '조선시대 선문법통설에 대한 고찰' 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선불교 법통설의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논문이다.

허흥식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중세 조계종의 기원과 법통' 은 '조계종의 기원과 종조' , '법통에 관한 여러 견해' , '태고와 나옹의 계승자' , '법통의 변천과 새로운 시론' 등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 '조계종 종조' 와 관련한 내용 중 전 조계종 종정 한암 스님의 '해동초조에 대하야' 는 비록 정식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이 글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록했는데, 이 글은 훗날 도의를 조계종 종조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기획
조계종 종지 · 종조 주제 논문 17편

김두진 전 국민대 교수의 '도의의 남종선 도입과 그 사상' 은 도의의 행적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으며, 도의의 주석 도량인 진전사의 개창이라든가 남종선 도입 전반과 관계된 내용을 서술하였다.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의 '도의선사의 생애와 선사상' 은 도의의 생애를 살펴본 이후, 도의의 선사상을 '무위임운(無爲任運)' 의 관점에서 정리했으며, 아울러 도의의 수증론(修證論)을 상세하게 논구했다.

정동락 영남대 강사의 '원적 도의의 생애와 선사상' 은 도의의 생애를 출가, 입당유학, 귀국 후의 활동 등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도의의 생애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이 논문이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 은 도의가 조계종의 종조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조영록 전 동국대 교수의 '도의의 재당 구법행정에 관한 연구' 는 〈조당집〉에 전하는 도의의 입당 구법 여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 논문이다.

제3장 '현대 조계종' 과 관련한 내용 중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조선불교조계종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는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의 성립 배경, 조계종의 종명과 종조, 종지와 종풍, 종단 구조 등을 검토하여 조계종의 출범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분석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명 변화와 종조 · 법통 인식' 은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의 탄생을 한국불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였으며, 김영수, 권상로, 이재열 등이 적극 나섰던 이 시기 종조, 법통 논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중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김상영 교수의 또 다른 논문 '정화운동 시대의 종조 갈등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 는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이른바 정화운동 시기의 종조 갈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비구 측-보조파, 대처 측-태고파' 라는 표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한 때 비구 측이 내세우고자 했던 정화의 명분과 보조 지눌을 종조로 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했다.

김용태 동국대 HK교수의 '조계종 종통의 역사적 이해' 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종명 변천과 종조와 관련된 제반 논의, 조계종의 종지에 대해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한암 선사의 승가오칙과 조계종의 신행' 은 근현대 조계종의 정체성에 주목한 논문으로, 특히 한암 중원 선사의 불교관을 중심으로 작금의 조계종 현실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을 편집한 신규탁 교수는 "이 책에 수록된 17편의 논문은 편집자들의 임의성에 의해 선별된 것이며, 결코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책에 실린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향후 올바른 조계종사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자**

완전한 땅은 없다

〈명당〉



한국풍수인물사
최창조 지음
민음사 펴냄
3만5천원

"풍수 이론은 명당의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다. 그러나 그런 곳이 많이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당과 나의 명당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지리관(地理觀)이 있다. 책은 우리의 지리관인 '풍수' 의 맥을 짚어주는 책이다. 그동안 새로운 풍수를 주창하며 한국 풍수사를 다시 써온 저자가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서 자생 풍수의 역사를 다시 짚어준다. 역사 기록에 최초로 등장한 탈해왕과 선덕여왕에서부터 자생 풍수의 비조인 도선 국사와 조선 건국의 주역 무학 대사, 그리고 동학 삼걸과 실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이들을 통해 우리 풍수에는 묏자리 잡기에 연연하는 음택풍수만이 아닌, 치유와 비보(裨補)로서의 자생 풍수가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밝힌다. 그간 신비로운 비학(秘學) 혹은 이기적인 술법으로만 오해되어 온 풍수, 하지만 우리의 전통 풍수는 땅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사람의 지리학' 이자 환경과 소통하려는 고유의 과학이었음을 사료와 답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풍수는 우리의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사상인가. 묏자리를 잘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은 우리의 사상인가. 책은 동기감응설이 동진시대의 인물인 곽박의 〈금낭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복(發福)만을 기원하는 이기적인 술법 풍수, 음택풍수(陰宅風水)가 풍수의 전부이자 우리 고유의 사상인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덕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술법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풍수를 수천 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해 온 고유의 방식으로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출간의 취지다.

책은 신라시대 무렵 당나라를 통해 들어온 중국 풍수가 우리 풍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음택풍수가 아닌 우리 고유의 '자생 풍수' 가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자생 풍수는 대동적(大同的) 풍수라고 말한다.


자생풍수의 비조 도선 국사


조선 건국의 주역 무학 대사

자생풍수의 비조 도선 등 인물 통해
우리의 지리관 '풍수' 의 맥 조명

발복의 '음택풍수' 아닌 치유와 비보
자연 대하는 우리 고유 방식, 과학
'좋은 땅 찾기' 아닌 '좋은 땅 만들기'
타 지리관과 다른 우리의 세계관

자생 풍수의 초기 흔적은 석탈해가 초승달 모양의 집터를 기만으로 빼앗은 일이나, 선덕여왕이 여근곡에 숨어 있던 백제 군사들을 알아맞힌 얘기 등이 실려 있는 삼국유사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자생 풍수는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지리산에서 어떤 이인(異人)을 만나 풍수를 배우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도선의 자생 풍수는 바로 비보(裨補-모자라는 것을 도와서 채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중궁의 풍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좋은 땅 찾기' 의 풍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고쳐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의 풍수로, 이기적인 음택풍수가 아닌 조화로운 생활을 중시하는 양택풍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의 지리학' 임을 밝힌다. 이러한 현실성은 부조리한 현재에 대한 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도선의 풍수는 고려까지 이어져 각종 국역(國域) 비보 풍수를 낳고, 묘청 등에 의해 개벽 사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 건국의 주역인 무학대사에 이르러 현실 정치로 표현되었으며, 광화문 앞 해치나 숭례문의 세로쓰기 현판 등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비록 유교를 숭상한 조선의 기록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무학의 풍수 정신은 다시 최호원, 홍경애와 전봉준 등의 동학삼걸로가지 이어진다. 책은 이처럼 인간 중심의 현실성과 땅에 대한 사랑이 만나는 곳에 언제나 자생 풍수의 정신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는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발달한 지리 관념과는 다른, 온전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온 우리가 발전시킨 고유한 세계관임을 역설한다.

그럼 왜 지금 또 다시 풍수인가.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땅이 어머니의 품속이라면, 병든 곳은 고치고 가꾸어 가면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책은 풍수가 맹목적인 자연보존 주장이나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서양의 환경 결정론을 바로잡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지적한다. 자생 풍수는 '완전한 땅은 없다.' 는 명징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상생 조화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데 그 미덕이 있다.

이제 우리 풍수는 촌로들의 묏자리 잡기 술법에서 벗어나, 현대 지리학의 카테나(catena, 토양의 공간 연관성) 개념을 몇 백 년 전에 선취한 고유의 지리학이자 여러 학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문학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중국식 풍수가 아닌 우리만의 '자생 풍수' 는 그 특수함 속에 인간과 자연에 관한 보편적 진리를 담은 독특한 사고 체계이다. 책은 자생 풍수의 현대적 변용의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출간됐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법거량 해설
한국 禪의 중흥조인 경허대사와 수월 · 만공 · 혜월 · 한암 · 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❶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엮음 | 46판 | 218쪽 | 11,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❷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엮음 | 46판 |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❸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 엮음 엮음 | 46판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을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❹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엮음 | 46판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특허청 실용신안 제 28054호
옥외촛불대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4

봉사와 헌신의 삶… 이 시대의 보살·신행의 길잡이



각성 스님 각현 스님 광우 스님 명성 스님 성운 스님 성일 스님 운문 스님 월운 스님 일면 스님 정우 스님 지원 스님 혜총 스님 김광하



김원수 남상민 목정배 맹난자 박정자 반영규 선진규 송석구 이동한 주영운 최영철 한갑진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책에 나와 있는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은 2012년 현대불교신문사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나의 서원 나의 신행' 에 연재된 스님과 재가불자 25명의 인터뷰를 묶은 것이다. 이 기획은 제 20회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불교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불교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나의 서원 나의 삶〉은 이렇듯 불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할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이끌고 있는 성운 스님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원을 참으로 많이 세웠고 그때마다 절실하게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서원과 정진은 항상 현재진행형임을 삶으로 보여주었다. 40년 동안 어린이 포교의 기수 역할을 해 온 성일 스님(화성 신흥사)은 10년씩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30년 두문불출 기도 정진을 25년째 하고 있다. 스님의 서원은 부처님 교화공원 대작 불사였다.

구룡사 등 20여 포교당을 창건한 도심포교의 개척자인 정우 스님은 '나눔' 이 서원이다. 스님은 배려와 사랑을 지니고 친절한 미소를 머금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니고 가꿔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나의서원 나의 삶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우리출판사 펴냄
1만2천원

경전 한글화 등 역경불사의 산증인인 前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생각하는 서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원을 가졌다면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서원이라면, 그것을 철저한 화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할때만이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맞춤형 포교의 대부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찾아가는 포교와 감동과 환희를 불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서원"이라고 밝혔다. 부산 불교복지의 지평을 연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이제 수행과 포교는 세상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 백화점, 영화관, 사찰음식점, 대규모 법당 등을 갖춘 불교타운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불교는 서원 세우고 실천하는 종교
불교계 명사 25인 서원과 신행
"함께 행복합시다" 현재진행형

서원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잇는 전유물이 아니었다. 봉사단체 작은손길의 김광하 대표는, "봉사 활동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에요. 자비심을 놓지 않고 겸손을 지키며, 보시를 통해 만날 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서원인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었다. 27년간 108배 수행을 한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며 앞으로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보현행원으로 살아가기 운동' 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었던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은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수행정신이라 생각했다."며 불서 저술과 법보시에 매진하는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은 관응 스님에게 받은 불명을 너무나 거룩하게 평생동안 실천해 온 인물이다. 그의 법명은 바로 행원(行願)이다. 원을 세우고 잘 실천해서 바른 길로 가라는 의미인데, 미수를 넘긴 주 이사장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 나눔 불사를 원으로 세우고 실천해 왔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25명의 명사들은 자신의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에 평생 집중하고 매진하며, 이를 실천에 옮긴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부와 명예가 있건 없건 간에 삶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다. 그것은 분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원의 힘인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놓거나 새롭게 태어나야 깨달음에 도달

알아차림의 기적

아남 툽텐 지음 | 이창엽 지음 | 담앤북스 펴냄
1만2천원



우리에게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날까? 저자는 우리의 의식을 뒤집어서 느닷없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우리의 의식이 지어내는 모든 것을 즉시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개념' 과 '관념' 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 망상과 슬픔, 분노, 미움, 외로움, 불안, 시기심, 경쟁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실 행복과 고통, 깨달음과 속박 등은 우리의 의식이 하는 화려한 놀이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 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들을 없앨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 집착, 착각, 강박이 일으키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두 놓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순간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서 경이로움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사원에서 여러 스승들에게 수행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주로 서구인들을 상대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연유여서 그런지 저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 와 '수행' 을 아주 쉬운 일상의 것으로 바꿔놓고 있다. 그것도 바로 '일상의 삶' 에서의 깨달음이다. 저자는 삶을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애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느라 매일 온갖 번뇌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의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자 티베트 수행자들에게 지도받아
수행의 최고 비결은 바로 '자비심'

우리는 누구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삶이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삶을 통제하려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생각은 정말 비현실적이며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 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주장은 깨달음에 대한 '흥미' 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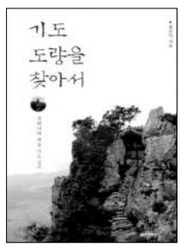
마지막 부분에서 유달리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다. 티베트 불교가 유독 자비심을 강조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수행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자비심이라고까지 정의한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희망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 줄 때 깨달음은 '세상 속' 에서 제 기능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한국 대표하는 기도 성지 총망라

기도 도량을 찾아서

황찬익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6천원



이 책은 1991년 이후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포교원과 봉은사 등에서 기획 차장과 종무실장, 문화사업단장의 소임을 거치면서 불교에 대한 안목을 넓힌 저자가 전국의 수많은 사찰 중 대표적 기도 도량 26곳을 찾아 소개한 것이다. 그곳에 깃든 불보살들의 재미난 이야기와 사찰 기도에 얽힌 유래를 들려준다. 물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절 가운데 기도처가 아닌 절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왕이면 오랜 세월 조상들의 발걸음과 기도 원력이 켜켜이 쌓인 영험한 절을 간다면 신심더 더 고취되고 기도도 여법해 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잘 알려진 3대 관음기도처, 3대 지장기도처, 3대 독성기도처 및 5대 적멸보궁을 함께 묶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의 기도성지를 처음으로 한데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자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보살은 오히려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다. 보살 외에도 약사, 아미타, 미륵 같은 현세나 내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부처님도 매우 친근한 기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산신이나 칠성, 독성 같은 민족 신앙과의 습합을 통해 기도의 대상이 된 분들이 기도영험은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영남범음범패 제3기 학인모집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4년 2월 24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천연식초학교 개강

일 시 : 2014년 2월 8일(토) 오후 2시
장 소 : 종로 5가 한국효소협회 본원
문 의 : ☎ 02)762-4688, 010-3763-1101

다음카페 "한국효소협회"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천연식초학교 : 주중반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발효효소과정 : 일요반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약용식물과정 :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발효천연화장품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5층
사)한국효소협회
(종로 5가역 3번출구 150m선치과 5층)

스님 신발 및 불자용 신발

스님, 불자여러분 신발 고르기 힘드셨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의 거품은 빼고, 우수한 품질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15년 신발 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발이 편안합니다.
법복과 더욱 어울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연출 할 것입니다.


<여명>

※ 제품의 사이즈 교환, A/S까지 가능합니다.


<자비>


<온누리>

판매가격 : ₩35,000원
(※ 5만원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61-01-040795-8 (예금주 : 박선영)
♣ 판매문의 : 경도상사 051)338-5408 / 018-556-8911

붓다의 물리학
1. 사대근본물질 ㊦ (地·水)

‘지수화풍’ 공부는 깨달음 체험의 조건





지수화풍은 고유한 성품 지닌
궁극적 실재인 물성
사대는 함께 일어나는 서로의 조건

몸을 단지 성품으로 볼 수 있으면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 뿌리뽑혀

땅의 성품인 견고성과 물의 성품
모두 무상하고 자아 없어

물성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무리지어서 일어난다. 이러한 각각의 무리들은 여러 가지 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대(四大, 마하-부따루빠)’라고 하는 네 종류의 큰 물성이 있다. 이것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든 바깥에 있는 물질이든지 간에, 모든 물질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난다. 사대 이외의 물성은 이 네 가지 물성에 의존하며 그것들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사대는 다음과 같은 물성들이다.

지대(地大): 땅의 성품 즉 견고성
수대(水大): 물의 성품 즉 응집성
화대(火大): 불의 성품 즉 열성
풍대(風大): 바람의 성품 즉 이동성

여기서 말하는 지, 수, 화, 풍은 관습적인 언어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며 다양한 철학체계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사상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논장에서는 그것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지닌 특정한 궁극적 실재인 물성을 의미한다.

지대(빠타위다투)는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특성을 가진다(땅의 성품은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으로 인식된다). 접촉할 때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것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굳이 그 물질에 ‘지대’란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의 성품으로 지속되는 실체가 없고 어떤 ‘자아’도 없다. 단단함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즉시 사라져 버린다. 물질은 업, 마음, 온도, 영양분 등 네 가지 요인들 중 하나에 생성될 조건이 갖추어지는 한 생기고 유지된다. 지금 지각되는 단단함은 방금 전에 일어난 단단함과 다르다.

우리는 만져서 방석이나 의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접촉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단단함이나 부드러움이다. 우리는 전에 경험한 기억에 의해 방석이나 의자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방석’이나 ‘의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실재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생각할 수 있는 개념 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과 우리 주위의 바깥 사물들이 다양한 물질들의 구성체라고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울 수도 있다. 물질들이 추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실재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물질의 정의를 ‘청정도론’이나 ‘앗타살리니’ 등의 주석서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이런 정의에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 역할, 드러남, 가까운 원인 등이 언급되어 있다. ‘청정도론(11,93)’에서는 땅의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대는 단단함의 특징을 가지며 토대의 역할을 하고 받아들임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실재는 다른 실재와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땅의 성품인 견고성은 단단함(혹은 부드러움)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불의 성품은 열을 특성으로 한다. 그것들이 생길 때 그러한 특성이 체험될 수 있다. 물질은 다른 물질들 또는 마음과 연관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땅의 성품은 토대, 즉 하나의 그룹으로 함께 일어나는 다른 물질들을 위해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땅의 성품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 냄새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토대로 견고함[지대]이 필요하다. 그것은 눈을 통해서 체험하는 색도 마찬가지다. 색은 지지하는 지대의 견고함이 필요하며 홀로 일어날 수 없다. 색과 함께 일어나는 지대의 실재인 견고성은 보이지 않으며 색만 보이게 된다. 드러남이란 실재가 항상 나타나는 방식이다. 땅의 성품은 받아들임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더불어 일어나는 다른 물질들의 토대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받아들인다. 가까운 원인에 관해서는 ‘청정도론’(14, 35)에 따르면 사대의 각 성품들은 나머지 세 가지 성품들을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 사대는 함께 일어나며 서로서로의 조건이 된다.

처음에는 실재들에 대한 정의가 복잡해보이지만, 실재를 탐구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실재들에 역할을 하는 방식과 실재가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실재를 공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직접적 깨달음을 계발하는 기반이 된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맛지마 1, 28)에서 사리뿟따는 사대에 관해서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땅의 성품입니까? 땅의 성품은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습니다. 몸 안의 땅의 성품은 어떠한 것입니까? 몸 안에 있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에 속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속하건 간에 거칠고 단단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근막, 지라, 폐, 창자, 장간막, 위속의 음식(영어원본에는 stomach(위장)으로 되어 있으나 청정도론과 한글본 맛지마(대림 역)에 의하면 ‘위속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으로 되어 있다. 열거된 것에 뇌를 추가해서 땅 성품이 우세한 몸의 부분 20가지이다), 대변, 또는 그 외에 무엇이든 간에 거칠고 단단한 것은 안에 있는 (땅의 성품)….”

몸을 단지 성품으로 볼 수 있다면,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뿌리 뽑힐 수 있다. 땅의 성품인 견고성은 몸의 안의 것이거나 또는 몸의 밖의 것이다. 견고성은 또한 우리가 산이나 바위라고 부르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에 다 존재한다. 사리뿟따는 비구들에게 땅의 성품의 무상함을 이렇게 일깨워주었다.

“존경하는 도반들이여, 몸밖에 있는 땅 성품이 교란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에 몸밖에 있는 땅 성품이 사라집니다. 오래 된 이 바깥세상의 땅 성품의 무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벗들이여, 그것이 쉽게 파괴되고, 썩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갈애에서 유래된 이 짧은 수명의 몸뚱아리를 ‘나’ 또는 ‘나의 것’ 또는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땅 성품의 무상함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서 스스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매순간 물질들은 생기고 사라지며 지속되지 않는다.

물 성품(아뽀다뚜), 즉 응집성에 관하여 ‘청정도론’(11,93)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대는 흘러내림이 특징이며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서로 결합시킴으로 나타난다.”

물 성품인 응집성은 몸의 감촉을 통해서는 경험되지 않는다. 우리가 물을 접촉할 때 몸의 감촉을 통해서 땅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들은 지각할 수 있지만 물 성품은 지각하지 못한다. 어떤 종류의 물질이 생기든지 생길 때, 물 성품은 함께 생긴다. 그것은 동반하는 다른 물성들을 응집시켜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앗타살리니’(2, 2권, 3장, 335)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 성품 때문에 철 등과 같은 것들이 함께 덩어리로 묶여서 단단해진다. 심하게 묶여있기에 단단하다. 돌, 산, 야자의 씨, 코끼리의 엄니, 황소의 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 성품인 응집성은 이 모든 것을 결합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결합하기 때문에 단단하다.”

위에서 인용한 경에 사리뿟다가 승려들에게 안의 수대(물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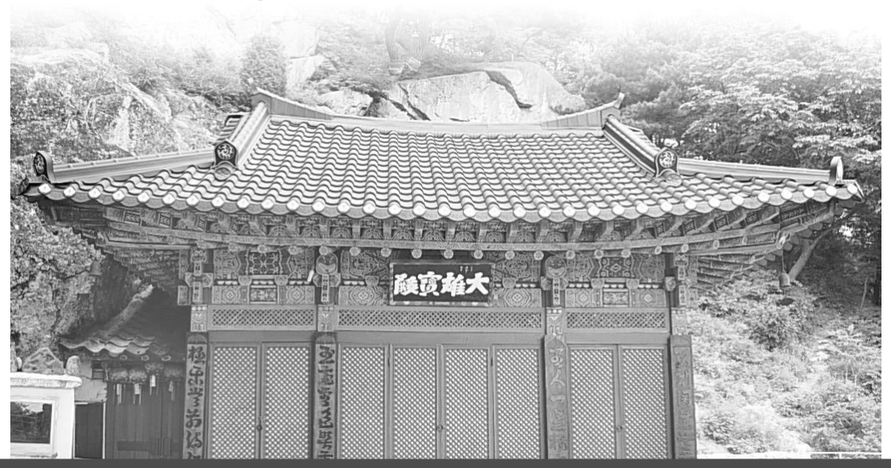
“…몸 안에 있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에 속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속하건 간에 액체나 흘러내리는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굳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액, 소변(물 성품이 우세한 12가지 몸의 부분이다. 이 중 고름, 소변은 오직 온도에서 생긴 것이고, 땀, 눈물, 침, 콧물은 온도와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나머지는 네 가지 원인에서 생긴 것이다.-청정도론 2, 94 참조) 또는 그 외의 액체나 흘러내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안에 있는 (물 성품)….”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삼킬 때 내 몸의 액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아가 아닌 오직 물 성품일 뿐이다. 사리뿟따는 승려들에게 바깥에 있는 물 성품이 흔들려 마을과 도시와 지역이 파괴될 수 있고 대양의 바다가 낮아져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것은 변하기 쉽고 그래서 무상하다. 내적, 외적인 물 성품은 다 무상하고 자아가 없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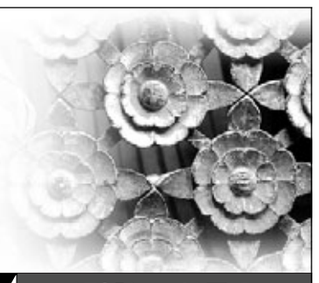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여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구합니다
(50대)
054)782-0659
011-9571-6559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법문과 염불해 드립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불공, 시달림, 고사
010-8396-4338
무유스님

획기적인 생약개발
관절염 비염 각종통증
옻 안타는 사람
(옻나무+장수버섯)
옻 타는 사람 (함초.우슬 환)
35~40일분 8만원
황보건강 amesil.kr
010-5556-1526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법화경 금강경 탑다라니
범어 외.. 등 경전)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행자 인연 찾습니다
(남녀불문, 서울지역)
010-4586-4525

월세 구합니다 산속에 있는 암자나 토굴 구함
(경상남북도 소백산지역)
051)632-5539

미니굴삭기 공사전문
(충청남북도 전지역)
010-3177-362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방생포교에 뜻 있는 스님, 법사님 구합니다
(방생도량 양도함)
010-3840-8277 老僧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종로)
010-5219-7021
010-3621-5539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불안,각종공포증,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길음동)
010-3774-409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가족세우기 지도자과정 모집
대 상 : 가족세우기, 조직세우기, 지도자 원하신 분
자신의 가족관계 치유를 원하신 분 (조상,부모, 부부, 자녀)
성공, 번영, 풍요, 건강 관계치유를 원하신 분
명 상 : 깨어남코스와 인도명상 여행안내
네이버 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참조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학 인 모 집
치문반,사집반 매주 화,목 오후2시
서예, 선화 특강 매주 일요일 오후2시
대 상 : 종단관계없음, 누구나
개 강 : 2월 11일(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520호(토월복합상가)
055)262-2045. 010-3749-4553
유점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세운 합장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동국스님의 풍수, 천도, 사업운
▶ 사업운 상담 ◀
법력치유 기공으로 운을 가로막는 원인 진단 및
제거로 건강과 사업운의 길문을 열어드립니다.
▷ 빙의 조상천도 상담 ◁
이유 없이 우울하고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일마다 장애가 생기고 고립되고
억울함이 반복되는 인간관계
횡재나 행운을 바라며 도박, 색욕,
음주 중독에 빠져 가산 탕진하는 분
예로부터 나라의 국운을 예언하고
풍수를 관장한 신승(神僧)들의
맥을 이어받아 영안으로 풍수를 들여다보는
동국스님의 영험함은 해외사업가들에게
정평이 나있습니다.
만블라선원 010-3676-5555
www.manbula.com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 1871-9

탈 종 공 고

- 법 명 : 무운(최영남)
- 승려증 번호 : 07-03-1100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부 산 지 사	박경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눈이 밝은 사람은 오히려 장님과 같으며, 귀가 밝은 사람은 오히려 귀머거리와 같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며, 강한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멀리 초월해 있어야 한다.

- 장로게경 -

사찰(급)안내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창원시 진해구
- 바닷가 전망일품 입구 아파트 대단지
- 부지: 240평 주지실, 공양간
- 목조 법당: 24평, 목조 산신각 3평
- 가액: 5억 3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급)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대전 계족산 황토길 마을
- 대지 200평 건물 60평
- 가액: 3억 6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연산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목조단청 법당
- 삼성각, 종각, 요사채, 공양간
- 전망최고
- 990㎡
- 가액: 15억

(주 금호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
051)861-2233(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주례동 사찰
- 대지 40평
- 건물 2층 주택 은행 4천안고 1억 2천만원 인수 급 양도

주)한길부동산중개법인/서보호
051-925-3800
010-3808-4499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41.701 (연산동, 동화빌딩)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내이동
- 평수 50평 법당 25평, 방3개
-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시설완벽

010-2914-3534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영월 사찰
- 목조법당55㎡ 지장전,삼성각
- 요사채85㎡,토지1,600㎡
- 조용한사찰임
- 교통편리 동강부근임
- 양도금액3억5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사찰전문)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학장동
- 독채건물, 인법당, 석가, 관음, 지장, 산신각, 거실, 주방, 창고, 마당, 세면장, 화장실2개
- 육십년 된 암자
- 버스정류소 40m 아파트 밀집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1-768-1355

포교원안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45평
- 4층 건물 내 2층
- 최고요지 위치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지장도량
- 종교용지 227평 3층건물 1층(50평) 후원 및 요사 2층(30평) 법당, 3층(20평)선방
- 목조산신각 1평
- 영옥 봉안 납골당
- 원불, 석등, 영구위패단
- 가액: 7억 5천만원

053)983-0152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아파트 상가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안내

- 부산 기장 시장
- 평수 20평
- 법당, 방, 거실, 화장실
- 주차시설
- 보증금 1천,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4870-8359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건물
- 문화재급 보유
- 요사체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총양도가액 4억7천만원
- 즉시법회가능,집기일체

017 - 725 - 5907

암자안내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화리
- 절터포함 임야 1만 6천평(55.758㎡) 이 38필지로 분할되 있음
- 절이나 불자마을 건립 하시고져 하신분은 연락주세요
- 양도가: 임야 16,000평 × 20만 총 32억

011-296-3612

사 찰 안 내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 국유지 약 450평
- 법당 약 30평 (삼존불, 신중, 지장, 산신)
- 요사채 50평(방 7개)
- 가액: 3억 8천만원(가격절충)

010-8710-8802

행운의 땅 양도

저는 인연이 다해 복 받을 분에게돌려드립니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2,000평
- 가액 : 6억
- 본인직접

010-5414-2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사찰부지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360번지
- 평수: 3,500평(오래된 금강송 소나무가 많음)
- 특징: 노적봉이 있는 좌청룡 우백호에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곳
- 교통 : 동해바다 및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 (소나무 가격만 수억이 넘는 가치있는 땅)

010-3531-5562

별장같은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도청 10분 도립공원 등산로
- 총평수 1020평 (대지 :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1,2층)
- 마당에는 450년된 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8대명당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9805-552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사 찰 안 내

- 재벌을 길러낸터 포교최적지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최다.
- 바로옆50m전방 재개발확정, APT2천세대
- 법당30평 부처님5분,천불전불사중 현재소불약300분진행중
- 1층-차고, 창고, 일주문.
- 2층-법당, 방 3개, 공양간, 화장실 2개.
- 3층-방 3개, 산신당, 빈공간 3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양도가 12억(융자4억포함) 시세이하가
- 학업관계로 부득이 양도(절충가능) 부동산사절 꼭하실분만

스님직통.010-8634-7851

사찰 기도 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양도가액: 2억 7천만원 (융자1억포함)
- 인수금 부족시 5년간 분할납부가능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계곡 접 해발 700m)
- 대지 : 1815평 부지조성 완료 ,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 사용
- 노인복지, 요양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5평(5층 중 4층)
- 삼존불, 칠성, 산신
- 방2, 학업상 급 안내 (꼭 방문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문의 010-4138-5523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4〉 다르다

‘나’는 유일한 존재… 좋아하는 일 하며 사세요

저는 옛날부터 저 자신이 의지가 약하다는 사실에 상당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릴 적 가정 통신란에는 종종 ‘주의 산만, 의지박약한 경향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지가 약한 인간이라고 줄곧 믿어왔습니다.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 이른바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좀처럼 오래 지속한다는 건 제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놀랍게도 묘하게 오래 지속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건강을 바란다기보다는 오히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병에 걸리는 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병원을 너무 싫어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든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살아 있는 이상 가능하면 기분 좋게 살고 싶고, 컨디션이 좋은 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건 비단 나이 때문에 든 생각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게 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세계에서 만큼은 기분 좋게 살고 싶다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깅, 태극권, 요가, 간단한 체조나 심호흡, 그 밖에 여러 가지 건강법을 시도해보았지만, 그 무엇도 사흘 이상을 계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옛날에 자주 했던 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교사로 평생을 보냈는데, 젊은 시절부터 무릎 바깥쪽 근처에 스스로 뜸을 떴습니다. 여름 저녁나절이면, 아버지는 유카타 차림으로 툇마루에 앉아 마른 다리를 드러낸 채 한 손에 향을 들고, 삼리혈에 열심히 뜸을 뜨곤 하셨죠. 그런 이유로 뜬금없이 뜸을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국에서 파는 자가 뜸 세트를 사 왔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그림을 보며 뜸자리를 잡고, 몇 군데에 뜸을 떠봤는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중독이 된 듯합니다. 그 후로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이제껏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뜸을 즐겨왔습니다. 여행할 때도 반드시 챙겨 갑니다. 어째서 이것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니, 이 뜸이라는 것이 저와 잘 맞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든가 아팠다면 계속할 수 없었겠죠. 원래 불을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자극적인 일입니다. 뜸도 일종의 불장난 같은 것이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야 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연기를 피우며 조금씩 타오르는 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곤 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다. 그걸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바로 잘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재능이라는 것에도 ‘좋아한다’는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것이라면 노력이나 수업 같은 훈련 없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식사도 잊고 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인연이 없던 걸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좋아했지만, 빠져들지 못했던 건 그것과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과 대면하게 됨으로써 불현 듯 발현됐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시켜도 결국은 내던지는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의지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른 얼굴과 다른 체격, 다른 성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기질도 용모도 동작도 전부 다르기 마련이죠. 지구 상의 수십억 명의 인간 중에도 완전히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야릇하고 불가사의한,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중에는 노력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힘들거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지가 약하다든가 강하다는 것은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는 것, 힘이 세거나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간의 유형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일은 오래갑니다. 좋아하는 일도 오래 갑니다. 기분 좋은 일 역시 오래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강제해도 결국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최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태어난 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놀랄 만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열도에 살고 있는 1억 2천만명의 사람들 사이에 제아무리 혈육이라고 한들,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고 한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외모가 닮았거나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원전 400~500년 전의 청년이었던 고타마 싯다르타, 지금은 석가모니로 불리는 불교 창시자의 에피소드에 관해 의문을 품으며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설로,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제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이름난 학자들의 해설을 읽어도 좀처럼 와 닿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말에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존엄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미국 미술가인 키스 해링(1958~1990)의 작품

단 한 사람으로 한 번 뿐인 인생받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진귀한 선물

다 같이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단 한사람 밖에 없는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손을 잡은 것

인간이 살 날은 정해져 있기에
스스로 ‘유아독존’ 삶 살아야

그러나 그런 건 아니겠지, 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불교라는 커다란 사상의 핵심을 통과하는 화두가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수께끼 풀이를 해왔는데, 최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나만이 존엄하다든가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이 위대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르다. 단 한 사람도 같은 존재는 없다.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위대하다든가 위대하지 않다든가, 뛰어나다든가 뛰어나지 않다든가, 아름답다든가 아름답지 않다든가, 건강하다든가 건강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타인과 다른, 오로지 한 번뿐인 인생이 주어지며, 단 한 사람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므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것이다. 석가모니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는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개인은 지구상의 60억에 달하는 인류의 한 명에 불과하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개개인 모두가 ‘나’, 단 한 사람의 인간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도 다르고 형제와도 다릅니다. 단 한 사람의 인간,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단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존재,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진귀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둘도 없다는 것, 두 번 다시 없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단히 귀중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얼음이 녹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깨의 짐이 상당히 가벼워지는 듯 편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약속에 따라, 혹은 그룹이나 가족, 조직의 상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다양한 형태로 제재가 가해지거나 제한, 또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필요 없는 삶의 방식, 즉 무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저의 룰로 강제되는 것, 그 외에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는 부분까지도 주위와 똑같이, 주위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두와 똑같이 행동해온 건 아닐까요.

한때 ‘빨간불에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빨간불이 켜졌을 때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파란불에 건너가면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자기 책임 하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위험한 빨간불을 혼자 건너가는 것도 그 인간에게 허락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주위와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주규제(自主規制)의 한도를 넘어 모두와 똑같이 하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저 모두에게 맞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두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일본인의 미덕이긴 하지만, 그 때문에 ‘유아독존’이라는 의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인간, 단 한 번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끼리 손을 잡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손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혹은 읽을 책, 들을 음악,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유아독존’ 페이스를 유지하며 살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저는 그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다른 이와는 전혀 다른, 단 한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이든 청년이든,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중년을 지나 고령기에 접어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은 하루하루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다다라서까지 주위를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제하려는 무의식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길이 있다. 그리고 평생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유아독존’이라는 삶의 태도를 이 사회가 허용하는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생각의 1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새삼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여행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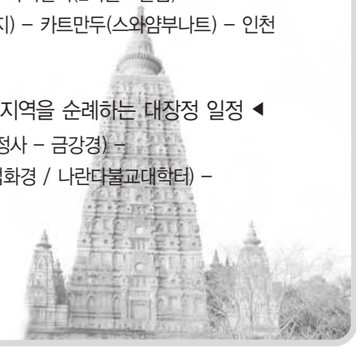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갤러리 색즉시공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쓰면 쓸수록
커진 답니다.

마음은
마음은
내면 낼수록
좋아 진답니다.

드러내는 마음
무심한 마음
…
잘 살펴야겠습니다.

글·그림 희상 스님
〈유연선원 주지〉

위 그림과 글은 책 〈당신을 바라봅니다 · 희상 저 · 담앤북스〉에 있습니다.

정진 그리고 행복한 가정

자재화보살의
바라밀일기



10년만에 돌아온 고향 조계사

"엄마 이렇게 추운 날에는 집에서 하시면 안돼요? 감기 드시면 어쩌시려구요."

"할머니 엄마가 이거 붙여 드리래요."

작은 놈 큰 놈, 손주들이 핫팩을 들고 나와 배와 등에 붙여줍니다. 멋진 청년이 다된 손주들이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추운 날, 절에 가는 나에게 주욱 서서 배웅하는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핫팩의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지며 아이들과 식구들의 사랑이 전해옵니다. 이렇게 다시 절을 찾아 기도정진을 시작한 지가 열 달이 됐습니다.

80년대 중반 조계사 기초교리 1기생으로 시작된 저의 불교공부는 십 오륙 년 동안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참회하고 정진하며 포교하고 봉사하며 큰 행사 때는 화주도 하며 여기저기 많은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일 번지를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음회에서 잠깐씩 일도 도우며 행복한 신행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단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절 분위기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처를 우이동 도선사로 옮겨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저의 신행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세계여행, 국내여행, 등산 등으로 돌아치기를 10여 년. 시내에 나오면 조계사 길 건너편에서서 삼배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신행 생활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던 날 혜민 스님이 하시는 조계사 힐링법회에 참석했다가 2시 관음기도하시는 스님의 염불소리에 끌려 법당 뒤편에 앉아 있노라니 마치 제가, 떠돌던 탕아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 여 년 만에 나오니 옛날 도반들은 드문드문 보이고 모두가 낯설었지만 기도를 따라하면서 다시 신심이 일기 시작 했습니다. 무임승차로 마무리 기도를 끝내고 이제는 당당하게 111일 기도에 입재해서 빨갛고 예쁜 기도 책과 백팔염주도 받고 법당 앞편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전생과 현생에 지은 심악업 모두 참회합니다. 무수한 전생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온갖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형식도 옛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엄성중기도에 104위 신중님들을 일일이 모두 부르며 절을 했습니다. 신묘장구다라니 108편은 기본이랍니다. 화엄경약찬게는 21편, 108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들 기도정진 하기에 옆 사람과 얘기도 잘 나누지 않을 정도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하며 그들 속에 끼어서 작년여름을 땀범벅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끝냈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기도를 끝내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전철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땀 냄새가 날까봐 한 귀퉁이에 서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기도를 회향하고 나니 몸무게가 4키로나 빠져 원하던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고 그 동안 같이 기도한 도반들과도 친하게 되어 서로 격려해 주면서 다시 2차 기도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회향 후 사업하는 아들이 힘들었던 큰일들이 알게 모르게 풀려있었습니다.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는 예전으로 돌아가 평온을 찾았습니다. 다시 2차 기도중이지만 손자들의 학업성취 발원이 이뤄져 합격의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다른 도반들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리본을 붙인 큰 난 화분과 떡 등 많은 회향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엄마 할머님들 모두 모인 도량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회와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태교 사경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도를 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저는 아들에게 기도법을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직접 절에 가서 신도카드번호 대고 입재비도 내고 공양물도 올리고 신도들과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들은 불교서적을 구입해 열심히 읽고 배우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기도하고, 쉬는 날에는 먼저 절에 가서 삼배라도 하고 다른 용무를 봅니다. 출강하지 않는 날이나 요즘 같은 방학 때는 아침 일찍 식사준비를 다 해놓고 "어머지 저 절에 다녀옵니다."하고 근처에 있는 화계사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소중하고 고마운 내 며느님.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부처님 품안에서 살아 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종교가 달라 가족 간에 불화가 잦은 이웃들을 보며 저는 처음 며느리를 선 볼 때 아예 이런 시어머니의 결혼조건을 내놨습니다. '불자여야 한다. 아기를 가지면 불교식으로 태교를 해야 한다.' 열 달 동안 노력해서 복과 지혜가 구족한 아이를 낳아 평생이 행복해 진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요즘 처녀들이 들으면 어느 시대 시어머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아우성치겠지만 제가 석성우 스님이 하시는 불교식 태교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갖기 전에 이런 태교를 할 수 있게 누구라도 도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 손자들에게는 꼭 불교식 태교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인지 저의 며느리는 제 말에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형편껏 부모님 힘드시지 않게 해라. 나는 불자라 밍크코트다 뭐다 이런 허례허식 모두 거두고 하자"하고 아들이 다니던 대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였던 법진 스님의 주례로 조계사 합창단의 축가와 축복 속에 전통불교식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며느리에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열 번 사경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고 이어서 법화경을 한번 사경하게 했습니다. 사경한 것을 소중히 모시고 제주도 황금사리대탑에 봉안을 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보는 손자라 집안은 온통 환희로움으로 행복 가득했습니다. 큰 손자가 채 돌도 되기 전에 연년생으로 작은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큰아이 키우느라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법화경을 한 번 더 사경하고 둘째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잘 자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당신만 있는 손자 인양 유치원, 미술학원, 수영장, 태권도장, 음악학원, 기원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의 기회를 주며 동네가 시끄럽게 행복한 마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외가댁과도 한 달에 한 번씩 온 식구들이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혹은 중간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며 사돈사이가 아닌 형님과 동생, 언니와 동생사이처럼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돈은 서로 멀리 살수록 좋다고 했는데 서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이로 산다는 것도 큰 축복인 듯합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절에 와서 백팔배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행이 자기 자신만은 비켜가길 바라고 또 나름대로 부푼 꿈을 꾸어봅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나 설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진지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회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양심과 진면목을 혼자서만 비추어 볼 수 있는 자기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자기를 돌이켜 볼 줄 알기 때문이겠지요. 지난해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방해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새해는 진정한 새해로 내게 찾아 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먼저 진심 참회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장애와 회의와 시험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화합하고 남과 척을 짓지 않고 부지런한 생활 할 것을 새해 벽두에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한 갑오년이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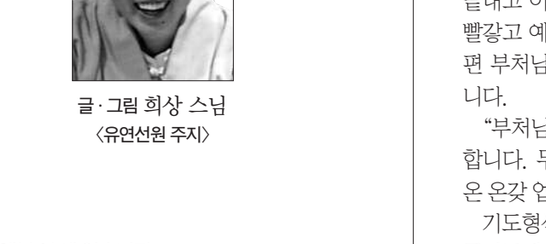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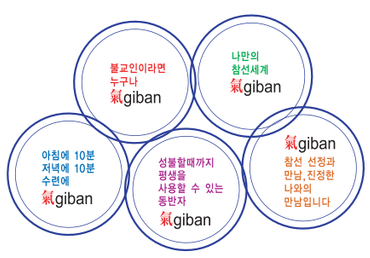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9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흉내만 내려 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천도재를 지냈습니다마는 어느 도량에 가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살아 계신 분에게 천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곁들여서 영(靈)의 세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뭐, 그 얘기 하면 영도 들어가는데 뭐를 또 붙였습니까? 하하하…. 그것도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차원은 모를 때에,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천도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흉내를 낸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 시절의 부처님의 마음과, 지금 그 부처님이 '이렇게라도 해라.' 하고 말씀해 놓으신 거를 따라서 외우면서 해 주는 천도식입니다.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이제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는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스님네들이 그 마음의 도리라도 알아서 만약에 상에다가 조그맣게 떡 한 그릇을 차려 놓고 한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차림이 없이 했을 때 비로소 그 영령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면 천체가 나 아님이 없는 도리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갖고, 어떤 거를 할 게 없이 전체가 자기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님네들이 공부한 차원에 따라서 그 영령들도 천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스님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또 신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는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자손들도 잘된다더라 하는 생각으로써 천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고서 부모의 천도를 할 때, 일체제불의 마음과 그 조상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짐으로써 크고 밝은 마음의 불이 되니까 조상님들이 이렇게, 아주 큰 밝은 불을 보고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추웠는데 저기 크고 밝은 불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내가 따뜻하고 밝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리로 갔을 때에 그게 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끄달리다가 돌아가시면 그 차원의 그릇밖엔 안 됩니다. 사발이다 종지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그릇에 갖다가 놓고 아주 밝게,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밝음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내 먹을 거, 내 거 아닌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천도가 되는 이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해서 정말이지 당당하고 원력이 있게 되었을 때 '아하,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조상들의 마음이나 친가의 마음들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고 드니 이것은 몇 가지 놓고 빌고 두들기고 그렇게 해 봤자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그 원력이 있을 때에는 촛불 하나 안 켜 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밝은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음 속에 온 누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밝고, 그 온 누리에 통신 안됨이 없고, 온 누리에 한마음으로서 바로 공심으로서 돌아갈 때에 그 조상의 마음도 그냥 거기 한자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또 따로 지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죠.

여기 요새 부단하게 천도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구, 울산, 부산 등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남들의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천도를 시키고 우린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해야겠다. 조상 천도는 그전에도 했지만 잘 안되었는데 여기 와서 천도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잘 천도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선 요새는 하루에 그저 한꺼번에 여러 집씩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영가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넣어서 해." 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걸 빼놓고 지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챙겨 주면서 천도재를 해 달라면 해 줍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집은 형편대로 가져오고, 왜냐하면 지금도 가정이 가난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적지 않습니까? 또 부자면 부자대로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죠? 그거와 똑같이, 상 차려 놓고 그렇게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거야 돈 십만 원에 지나지 않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한다 그래도 한 이십만 원 들면 다 하겠죠? 하지만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정성들여도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고생 고생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벌어 놓고 간 거, 부모를 위해서 좀 쓴들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진실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자기의 무주상(無住相)의 통장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정말입니다. 거짓 아닙니다.

그래서 깨치지는 못해서 공덕은 받지 못하나 그 자식들의 보시금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무의 세계의 곳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부모가 통장을 해 가지고 떠억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법이 없고, 또 자식들로 인해서 그 공덕을 받았으니 무식한 사람이 안 되고, 진짜 당당한 사람으로서 출세를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살면서 죄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자식의 공덕으로써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천도시킨 분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죄지은 건 자기가 죄지은 것대로, 자기 한 대로 나오는 거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천도한 분들은 통장 안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복주머니 안 가지고 온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 거기에 맞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아주 착하게 산 어느 분이 죽었대요. 죽어서 어디로 가자고 해서 가니까, 촛불을 주욱 켜 놨는데 복주머니들이 주렁주렁주렁 전부 달렸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 석자가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초가 가는 게 있고, 아주 그냥 금방 꺼질 듯한 게 있고, 긴 게 있고 그렇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내가 잘못한 죄로 자식들도 이렇게 고생을 시켰노라." 그러니까 "아하, 마음이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 줄 테니 한번 해 보시오." 하면서 긴 촛불을 하나 보더니만 "이 사람은 촛불이 이렇게 길어서 오래 있다가 죽을 거고 그 뒤에야 복주머니를 가지고 나갈 테니까 이것을 꿔 주겠다. 이 사람의 복주머니를 가지고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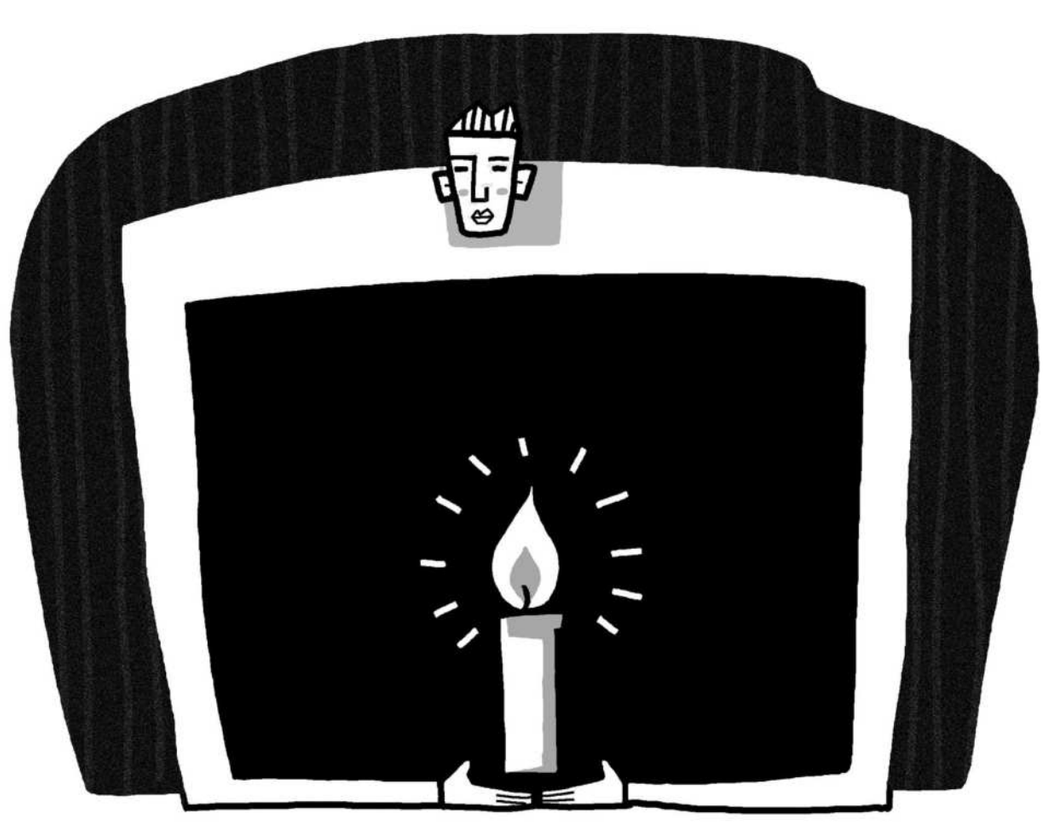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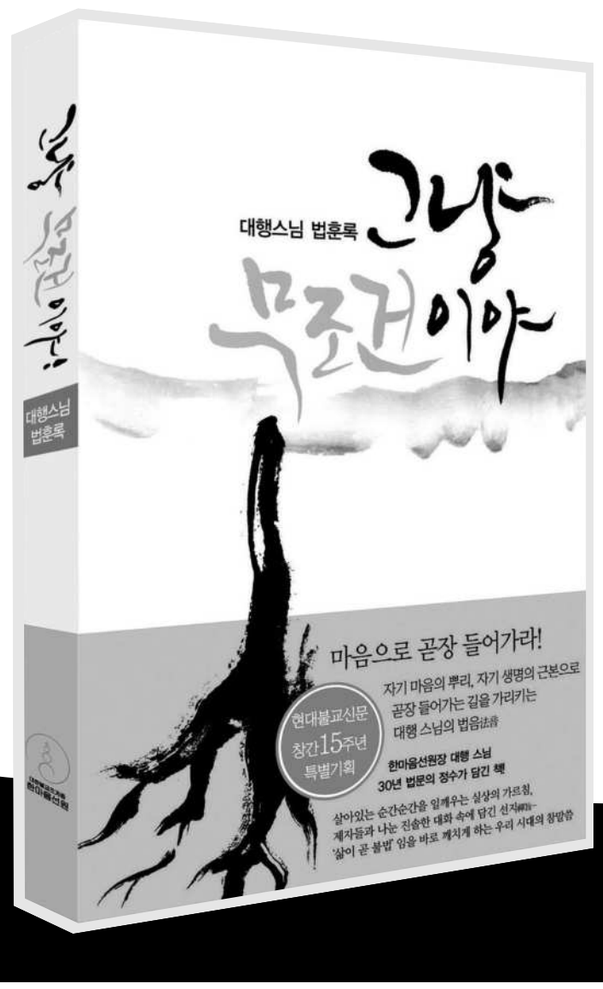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조상들도 자기와 둘이 아니게 근본에다 맡겨 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한다면 앞서 취해 간 그 돈을 다 갚고도 이(利)가 남아서 더 좋은 일을 하고도 복주머니에 다 찰 것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해 보라." 그러고선 내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내보내 주니까 어떻게 도로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3일장을 지내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은 7일장을 지냅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7일장을 지내는 겁니다. 만약에 3일장을 지내 버리고 난 뒤에 나흘 만에나 닷새 만에나 나왔는데 자기 집이 없으면 딴 집으로 또 들어가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내보내진 거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딴 몸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부인이 둘이 되니까요. 허허. 그래 가지고 혼돈을 일으켜 가지곤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타의의 영계(靈界)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난 아무개야." 이러고 딴소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딴소리가 아닌데 제삼자가 듣기에는 딴소리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갖다 넣어야죠. 이것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 천차만별의 그 뜻, 천차만법의 그 나툼,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전력이 들어오는 걸 못 보듯이, 그저 전등에 불 들어온 것만 보시지 전력이 오고 가고, 천차만별로 그저 달라는 대로 그냥, 씀씀이대로 전력이 간다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가고 있다 하는 것만 알지 그걸 실질적으로 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이 천차만별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면서 진화되고 또 진화시키면서 이끌어 나가는 나툼의 그 중용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옛날에 어느 신도가 가발회사를 조그맣게 냈는데, 하면 망하고 하면 망하고 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조상 천도도 시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면 꼭 도로 들어오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할머니 형제들이 모두, 그 난리통에 죽은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보따리 갖고 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천도가 안됐다는 걸 본인 자신이 알고는, 또 딴 데 가서 하고, 딴 데 가서 했다가 도로 들어오면 또 안된 것을 알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소저 보살님네 여관 사무실에 잠시 있을 당시에 거길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거길 찾아와서 "아유, 천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무심코 한다는 소리가 "당신 앉았던 방석에다가 놓고 삼 배 하고 가시오." 그랬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글쎄? 하하하. 당신 앉았던 방석에 놓고 절을 삼 배 하고 가라고 그랬으니 그거는 도깨비 장난이지 그건 말할 수도 없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한대도.

그러니 낭패스럽게 된 거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며 도로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서 그냥 그 방석에다가, 이젠 잊어버려서 그럽니다만 얼마를 놓고 갔습니다. 그때에 그 돈이 3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놓고 갔습니다, 절 삼 배를 하고. 하도 속아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라도 해 보자 하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그럭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요 아, 구름을 타고 그냥 그냥 올라가면서 "얘야, 나는 그 스님한테 암만 암만을 더 거기다 취해 가지고 가니까 그걸 갚아라." 250원. 250원이 모자라서 더 꾸어 가니까 거기다 갚아라 이러곤 간 거예요. 그 이튿날 와서 고맙다고 250원을 내면서 좋다고 그냥 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부터 그 가발회사가 부쩍부쩍 일어나서 돈깨나 벌었죠.

그러다가 그 사촌 동생이, 그 얘길 하면 길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주에서 구멍탄 들이고 내는 데 사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받아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인이 화장품 장사도 하고 그랬죠. 그때에 그이가 폐결핵이 돼 가지고서는 피를 쏟고 그랬는데 부인이 절에 올라왔길래 팔천 원인가 시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팔천 원을 시주를 하라 그랬더니 "없는 사람이 팔천 원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길래 "당신 남편을 살리려면 화장품 장사 하면서 벌어서 버선 속에 넣어 둔 거 가져와." 그러니까 버선 속에 넣은 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하하. 하도 없다니까 말입니다. 없어서 못한다니까 할 수 없죠. 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 들어가서 벌금을 물고선 빼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떡 벌금을 문 셈이죠. 그렇게 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가 잘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 병이 나아서 이제 서울로, 그 가발회사의 분점을 내 가지고 벌어먹기 위해서 왔는데, 다리가 삐어서 약국에 가서 동침을 맞았단 말입니다. 발목 뼈에다가 맞았는데 그게 썩어 들어갔던 거죠. 그래 가지고 딛질 못해서 병원에 가니까 여기까지 자르라고 그런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거기까지 자르라고, 다음날 아침에 자르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 놓곤, 어린 애를 업고 와서 그 부인이 막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습니다. 낫걸랑은 돈 25만 원을, 그 무렵에는 화폐개혁 되고 오래 됐으니까 25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25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은 그거 하고도 남음이 있는 집이니까. 그랬더니 아휴,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가지곤 다시 한 번 진찰을 해 보고 잘라도 자른다고 그렇게 떼를 써서 다시 진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발목으로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르는 걸 그만두고, "아, 우리가 오진은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뭘 믿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보내 주더랍니다.

그래 발목만 조금 아프지 괜찮아져서 병원에서 나왔죠. 그런데 돈 25만 원을 부인이 꼬깃꼬깃해서 손에다 쥐어 주니까 그게 아깝거든요. 5만 원은 빼고 20만 원만 넣어서 갖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어치 발목이 영 안 낫는 거예요. 허허허…. 그래서 그 후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여기 집 짓고 그렇게 됐으니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 후에 와서, 저 마당에서부터 "5만 원어치 마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5만 원을 그때에 가져왔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서야. 그래서 그 5만 원을 도로 갖다 놓은 뒤에야, 그 발목이 5만 원어치가 마저 다 나았다는 얘깁니다. 이게 전설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깁니다.

그거뿐입니까, 어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건 여러분이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찰나찰나 화하시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가야 옳으냐 안 가야 옳으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돈오돈수가 옳다는 사람은 돈오돈수에 걸린 사람이고 돈오점수가 옳다는 사람은 돈오점수에 걸린 사람이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뭐냐? 아무 소리 없이 주먹만 내밀었겠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흉내만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원력을, 자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없는 그 고장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들고 날 수 있어야, 그렇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그것도 한계점이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주 법계가 돌아간다는 그 사실, 살림살이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그 점, 내 마음속의 그 의식들이 전부 내 마음내는 대로 돌아간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원자 속에서 입자로 화해서 분신이 돼 가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무기를 들고 들어가야만 일을 하겠다' 하면, 그 모습으로 화해 가지고는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한마음이, 깨달은 사람의 그 한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툰다 이 소립니다. 나툼! 이걸로도 되고 저걸로도 되고 그걸로도 되고, 그렇게 나투면서 일을 해낸다 이겁니다.

내가 영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거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맛을 봐야 실감이 나듯이. 여러분은 모르시는데요. 여러분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 조상들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어떠한 목신이든 지신이든 용신이든 뭐, 할 거 없이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으십시오.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으십시오. 그러는 이유는 한생각에 악의 씨가 수만 개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집안을 어지럽힐 수도 있고, 선의 씨가 또 수만 개가 돼서 부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영, 영, 영, 영이므로 그 씨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천만 개를 집어넣어도 둘이 아니니 구태여 그걸 둘셋으로 보지 마시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조상들도 다 자기와 둘이 아니게끔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영가님들이 부질없이 그렇게 떠다니지는 않을 거다 하는 소립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랬지만, 지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있는 이상 살아 계시는 거죠. 항상, 더불어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들만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생(共生)이며, 공심(共心)이며,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共食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도리가, 천체가 주고 먹고 주고 먹고 이럽니다. 나무들이 공기를 좋게 해서 우리를 주고, 우리는 또 나무들이 먹게끔 내놔 주고 하듯이 말입니다. 모든 게 서로 괜히 태어난 줄 알지 마십시오. 개구리 하나도 촌충 하나도 그냥 괜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나날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됐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배 속을 보십시오. 그 생김새가 천차만별로 얼마나 많이 다르게 생겼으며 또 작고 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 거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생긴 그 뭉치가 바로 혹성입니다. 그 의식들이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의 집안이 바로 지구라고 해도 되는 혹성, 작은 혹성, 큰 혹성, 또 거기다 더 큰 혹성, 이렇게 본다면 수없이 은하계가 많고 수없이 혹성들이 많아서 모래알 같다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의 그 별성이 바로 그 별성의 생명의 밝음인지도 모르죠. 아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전엔 하늘을 쳐다보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와 내가 직결돼 있구나. 모든 생명들이 내 생명과 더불어 직결돼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런 거를 스스로 자기가 알고 느낄 때에, 안다 모른다 봤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간략하게 아주 근본 도리로서 얘기한 거지 자세한 거, 차려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건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극치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니까 그런 건 일일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모두가 없는 겁니다. 이 상대성원리도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시고 그 삼 단계 없는 삼 단계를 다 흡수하셔서 '하나의 마음도 없는 도리구나.' 하는 그런 나툼, 그 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91년 2월 0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 속에 온 누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온 누리에 통신 안됨이 없으니
온 누리에 한마음으로서 바로 공심으로 돌아갈 때
그 조상의 마음도 그냥 거기 한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2014년 2월 19일, 2월 22일, 2월 24일, 2월 26일 등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고 시리암 5일)..... 요금문의
2014년 2월26일
* 운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2014년 2월14일, 2월18일, 2월20일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불자 세상보기

자비심이 영화 '변호인' 흥행의 힘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영화 '변호인' 은 한 정의로운 인간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영화 속 주인공 송우석(송강호 분)은 평범한, 어찌 보면 속물적인 세금 전문 변호사였다. 당시 그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는 체념이 깔린 절망이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것. 흔히 비유하는 그것은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가 비겁하다고 해서 정의로운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그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그건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전해들은 상식이며 처세술이다.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수긍한 것이다.

어느 날 그런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다. 그는 서민에서 투사로 태어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순수하다 못해 순진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한다. 우석은 권력을 논리로 이겨보려고 한 것이다. 법정과 헌법을 믿은 것이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논리가 비논리를 이긴다고 생각했다. 법정에서 권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피해자의 처지를 항변하였다.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다. 권력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 서야 했다. 법정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권력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는 세상이 거짓임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금강경에 나오듯 세상은 이슬이요, 번개고, 그림자였던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드라마 속에 살고, 결국 주인공임을 깨닫는다. 영화 속 주인공 우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허위의 세계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이 영화는 한 인간의 깨달음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 은 한 인간을 그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얼마나 정치권력에 밀착되어 민주주의에서 퇴행하고 있는가를 고발한 것이다. 송우석이 주로 싸우는 것은 법 해석에 관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우위에 서서 피고들을 부당하게 다루는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 영화는 독재가 법을 제멋대로 전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란 무엇보다 먼저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 그런 법은 법도 아니다.

부처님은 입멸하시면서 법을 등불삼아 살라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내리셨다. 법은 인간보다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부패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법이란 여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태인 것이다.

영화 '변호인' 에는 국밥집 주인 최순애(김영애 분)가 나온다. 송우석은 소시적에 국밥을 먹은 후 도망친 경험이 있다. 변호사가 된 후 우석은 빚을 갚으러 갔으나, 순애는 받지 않는다. 순애는 전형적인 서민이며, 마음씨 착한 사람이다. 순애의 보시는 상대를 보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순애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화신처럼 느껴진다. 우석은 이후 국밥집을 단골로 드나든다. 순애는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자리한다. 순애의 아들이 고초를 당하자 우석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순애를 통하여 그 아들은 마치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느껴진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 발동한다.

우석이 변호를 맡게 된 것은 순전히 자비심 때문이다. 순애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있어 순애의 슬픔은 순수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며, 우주가 파괴되는 것이다. 인간을 길러내는 모태가 무너지고, 오염되는 일이다.

순애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어른들에게 어머니요, 젖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철모르던 어린 시절 이런 어머니들이 주는 밥을 먹으며 자라났다. 커서 당연히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이 송우석을 움직인 것이다.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고,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 커다란 마음도 작은 동정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란 커다란 게 아니라, 결국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작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현장 속으로

다문화 가정 설 맞이 행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목동 국제선센터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국제선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이웃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담당실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만두 빚으며 한국의 情 나눈 뜻 깊은 시간"

폭설과 강추위가 심했던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국제선센터에서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려 얼어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제선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이웃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력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 '사찰식 만두' 를 빚고, 지역 내 장애인들과 나누는 사찰음식 나눔의 장이었다.

참여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100여 명과 조계종 국제선세터에서 초청하고, 양천경찰서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양천구지역 내 다문화가정 5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150여 이주여성들이 사찰식 만두를 빚고 있다.

오전 10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모국어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도 법사 스님의 지도로 5분 명상이 시작되자, 모두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고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다들 집중한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에게 만두 빚기는 익숙한 활동이었다. 재밌던 것은 각 나라마다 만두를 빚는 모양이 달라 문화 차이를 느꼈던 점이다.

절집에서의 행사라 만두는 당연히 고기와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사찰식 만두' 였다. 참가자들은 오순도순 만두를 빚으며 그들의 나라에서 지내오던 설 풍습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날 다문화가족이 함께 빚은 일곱 빛깔 무지개 만두 500개는 양천장애인복지관을 거쳐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전달됐다.

이어서 진행된 염주 만들기 시간. 스님이 명상 문 한 소절을 읽으면 염주 한 알을 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국에서 시집살이하며 느꼈던 고달픔과 서러움이 물밀 듯 밀려왔는지, 한 여성은 평평 눈물을 쏟기도 했다.

외국인을 위한 설 문화 체험 행사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국제선센터,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찰에서 명상과 사찰음식을 테마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됐다는 허금화 씨는 "단주만들기를 할 때 한 알 한 알 단주를 낄 때 스님의 기도를 따라하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 같아 묘했다"며 참가 소감을 밝힐 정도로, 이날은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실천해 다문화이웃이 진정한 한국의 이웃이 됨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지은(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 팀장)

社說

유물기증 운동은 종단 역사 되짚는 불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종단의 역사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축사업에 돌입했다. 그 일환의 첫 번째로 근현대 스님들의 소장품을 기증받는다. 이 운동은 불교계의 유물기증문화 확산과 함께 박물관 소장 유물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유물 기증 사업은 불교계에서도 현저히 인지도가 낮은 근현대문화유산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1차적으로 현직 종정 스님과 원로 · 중진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스님의 소장품의 기증을 유도한다. 이후에는 역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 유물은 사용하고 있는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등 생활용품과 법구를 비롯해 종단 역사 정리에 도움이 되는 유물,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근현대 자료까지 포함된다. 원할한 유물 기증을 위해 기증 시 특전과 예우도 마련한다. 각종 전시 출품 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하고 유물의 복원 수리, 훈증 처리와 복제품을 요구했을 경우 복제품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기증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증자 및 기증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서 발급과 총무원장 명의의 감사패도 증정된다.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사 한 벌도 종단서 제대로 소장하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종단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불사다. 박물관측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스님들의 소장품 기증을 독려한 뒤 역대 종정 스님 문중에게도 소장품 기증을 부탁하려 한다고 하며, 기증 방법은 연구 기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시대의 생활상과 사상 등 변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고 종단의 교과서적인 '통사(通史)' 를 기술할 수 있다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이벤트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적 내성천 '땅 한 평 사기' 환영한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화두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소비로 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사회 역시 대형 토목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사회 갈등 요소가 된지 오래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래강인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댐 공사로 모래가 유실되면서 자갈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영주댐이 완공되면 내성천 19km 구간, 10.4㎢의 유역이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된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옛 천성산 지킴이로 활동했던 지율 스님이다. 스님은 2012년부터 강둑에 텐트를 설치하고 내성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겨울바람처럼 차갑다.

이런 상황에서 내성천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 지원과 땅 한평 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불교' 를 슬로건을 내건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기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문이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를 천명한 바 있다.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도 이웃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최근 조계종은 노동, 환경, 지역 갈등 등 사회 전반의 현안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내성천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종단이 참여하는 것은 생명붙이들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